

미래형대학 이런 대학 없습니다

MY
BRIGHT
FUTURE

地域社會
지역사회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경험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10대 거점 도시에서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국내 등록금으로 마·중·일 해외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 각지를 무대로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영어 몰입형 수업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르칩니다

- 24시간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교내현장실습 강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 영화·영상·콘텐츠·디자인·AI 등 특성화 교육을 집중 육성합니다
- 강의, 교수, 강의실, 시험이 없는 혁신적인 수업이 운영됩니다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언제든지 적성에 맞는 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 희망자 모두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1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 창업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권두칼럼

지역연구 특집 1

지역연구 특집 2

한일 新시대포럼 지상중계

전문가의 눈

부산의 국제기구

제1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CEO 포커스

'지산학 프로젝트'와 부산 경제 도약

문화분권과 시민 문화 향유

양재생 온산해운항공 회장 인터뷰

명사 에세이

역사산책

김홍희의 포토 에세이

부산 스토리텔링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어떻게 지내십니까

편집인 칼럼

꿈 없이 사는 꿈 이야기

임시수도 기념관&정부청사

정과정

김정명 원로 조각가 인터뷰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 인터뷰

地域社會 지역사회

2022년 7월
제3권2호

'지산학 프로젝트'와 부산 경제 도약



2022년 7월 제3권2호

地域社會 | 제3권2호 | 발행일 2022년 7월 1일 |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Dongseo News

동서대학교 소식 2022년 1월~6월

01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선정
2022년부터 6년간 최소 240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03

부산시 오픈캠퍼스 미팅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참석, 문화콘텐츠 도시 부산 위한 지·산·학 협력 강화 방안 논의



02

2022년도 '동계 교직원 연수회' 열려
장제국 총장, 교육운영체제혁신 안착과 교육내용의 혁신 등 7가지 전략 제시



04

2022년 학부모 초청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한 신입생 학부모 46명과 유튜브 생중계 통해 동서대의 성과, 첨단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설명



05

캠퍼스아시아학과 학생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라

2~3학년 학생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캠퍼스 2년간 순회하며 학점인정



07

또 뉴욕을 날다! - 국제광고제 클리오 어워즈 수상

광고홍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 은상 2팀, 동상, Shortlist 등 4팀 수상



06

SAP Global-UN프로젝트에서 발표

파견된 10명의 학생은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항공료 등 장학 혜택을 받고 현지에서 수학



08

서울영상광고제 YCA를 휩쓸다!

광고홍보학과,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3팀 등 5팀 수상



09 레저스포츠과 졸업생 이영은 선수, 동서대학교 최초 국가대표 선발
포물라카이트보딩(아시안게임, 올림픽 정식종목)



10 영화과 졸업생 이태동, 칸 핑크카펫에 서다!
웹드라마 <종종소>, 프랑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선보여



11 졸업생 정지혜 감독의 영화 <정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대상 수상
100% 부산표 영화의 쾌거... 동서대가 이끄는 지역콘텐츠 자생력 속속



12 (주)위메이드와 10억 원 상당 암호화폐 발전기금 기부 협약 체결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연구, 학술 활동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



004 권두칼럼

新미국 단상

장제국

COVER STORY



006 지역연구 특집 1: '지산학 프로젝트'와 부산 경제 도약

시정 제1 과제 채택... 부산의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박차	고미자
지역 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제때 공급' 대책 박차 가하길	원광해
23개 대학-지자체-기업 협력플랫폼 구축 통해 혁신도시 도약	서용철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강화해 디지털 주역 ICT 인재 육성에 주력	정문섭
지방정부, 산학협력 적극 도모해 혁신도시 성공 이끌어	정성문
국내 첫 '기업가형 대학' 모델로 '부산 르네상스' 꿈꾼다	정도운
'기업 니즈' 잘 살려 혁신 도모 부산 재도약해 '한국의 워털루' 되길	이영활

050 지역연구 특집 2: 문화분권과 시민 문화 향유

제대로 된 경부울 동남문화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남승우
경부울 광역·기초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해 협력 강화해야	조정윤
시민 거버넌스 구축 큰 성과...광역·기초 지자체 연계 강화를	고윤정
'개방성'과 '민중정신' 바탕으로 문화 주제 우선한 정책 펴야	김경복
공업화로 외지인 유입 많은 '노동자 도시' 변모... '이중성'이 특징	안성길

081 한일 신시대포럼 지상중계

양국 정상회담 재개해 주요 쟁점 논의하고 관계 개선 나서길	이원덕
----------------------------------	-----

092 전문가의 눈

한일관계 회복: 프랑스-독일 화해외교가 주는 교훈	전홍찬
-----------------------------	-----



099 부산의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16개국 도시정부와 민간단체들 협력해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우경하
----------------------------------	-----

105 제1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기후변화,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무기다	진재운
-------------------------	-----

111 CEO 포커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부산 'Sea & Air' 복합물류 활성화하면 세계 1위 환적항 된다"	장지태
--	-----

120 명사 에세이

꿈 없이 사는 꿈 이야기	유익신
---------------	-----

129 역사산책: 부산의 역사 현장 2

임시수도 기념관 & 정부청사, 3년간 한국 현대사 심장부였다!	류승훈
------------------------------------	-----

136 김홍희의 포토 에세이 3: 백두대간을 따라

"시대의 가치를 찍어야 하는데..." 나는 오늘도 백두대간을 걷는다	김홍희
---------------------------------------	-----

144 부산 스토리텔링 4: 정과정(鄭瓜亭)

봄밤의 낭독	이미욱
--------	-----

149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4: 김정명 원로 조각가

"작업으로 고해성사하고 진실된 작품 통해 인류사회에 보시하고파"	강선학
-------------------------------------	-----

158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

"현역 때보다 더 바쁘네요... 지역사회에 구심점이 절실합니다"	김용성
-------------------------------------	-----

165 편집인 칼럼

'성공한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 업적은?	장지태
------------------------	-----

地域社會

통 권 제3권2호
 발행인 장제국
 편집인 장지태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매년 1월, 7월 발행)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315호
 T e l 051) 320-1708
 F a x 051) 320-1691
 E-mail pusamo21@dongseo.ac.kr
 인쇄처 CCA
 인쇄인 정형권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新미국 단상

장 제 국 동서대학교 총장



“
미국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독립선언서(1776년)에
‘자유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부적(天賦的) 권리로 만약 어떤 형태의 정부든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고작 코로나 역병 따위가 어떻게 하늘이 내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

최근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다녀왔다. ‘코로나19’가 하늘길을 막은 지 2년여 만의 해외 나들이였다. 출국 전과 귀국 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했지만 불편할 정도의 절차는 아니었다. 물론 비싸진 항공료와 불리한 환율은 여행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말이다. 청년 시절 상당 기간 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의 미국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뉴욕은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된 듯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맨해튼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가는 식당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 정부의 강제적 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던 미국 사회는 이제 완전

히 ‘자유(Liberty)’를 되찾은 것이다. 미국 시민에게 있어 자유란 유전자(DNA)에 입력이 되어 있다 할 정도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이다. 미국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독립선언서(1776년)에 ‘자유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부적(天賦的) 권리로 만약 어떤 형태의 정부든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고작 코로나 역병 따위가 어떻게 하늘이 내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여행 기간 중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나 어린 학생들이 다수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에서는 총기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총기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미총기

협회(NRA)는 예정대로 연차대회 개최를 강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연사로 나서 “총기 난사를 한 과립치범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자유라는 중요 가치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자유에 대한 깊은 신념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다.

보스턴에 소재한 주요 대학을 방문해 행사에 참석했다. 원래 기독교 전통으로 세워진 대학이라 행사에 앞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다. 교목(校牧)의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니 어떤 신(神)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어떤 특정 종교의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극도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기도문에는 포용(inclus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 이는 미국 사회의 또 하나의 가치 축인 ‘평등(Equality)’을 배려한 데기인한 것이다.

1831년 미국을 둘러본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평등’이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오래전 지적한 바 있다. 사회가 평등해지면 모든 사람의 가치관 생활양식 입장을 배려하고 포용해야 하는데, 배타적 가치관에 기초한 말이나 행동은 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미국 대학 캠퍼스를 거닐어 보니 수많은 중국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현지 대학관계자 이야기가 “하버드 MIT 예일과 같은 유수대학도 중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 대다수가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를 보니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외국인 학생 중 중국 학생이 단연 1위로 31만 7000명(2021년 기준)에 이른다.

겉으로 보기에 미·중 관계는 패권적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매일 쏟아내는 상대방을 향한 대변인 성명은 매우 적대적이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의 존재 하나만 보더라도 양국 관계는 상호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재정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들이 쏟아내는 우수 연구결과물을 통해 얻는 미국의 과학기술적 이득도 상당하다. 또한, 이들이 미국생활을 하며 보고 배우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먼 훗날 중국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중이 갈등하면 서로 잃어버릴 것이 더 많은 구조이다.

미국 사회가 앞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중요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 또 날로 불편해지고 있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우리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항로를 우회한 유난히 긴 귀로에서 필자를 상념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주제였다.

(국제신문 2022.06.8 게재)

01

COVER STORY : 지역연구 특집 1

‘지산학 프로젝트’와 부산 경제 도약

- | | |
|---|-----|
| 01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시(市) 목표와 전략
시정 제1 과제 채택... 부산의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박차 | 고미자 |
| 02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R&D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역 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제때 공급’ 대책 박차 가하길 | 원광해 |
| 03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23개 대학-지자체-기업 협력플랫폼 구축 통해 혁신도시 도약 | 서용철 |
| 04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부산 IT & CT 산업 발전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강화해 디지털 주역 ICT 인재 육성에 주력 | 정문섭 |
| 05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해외 지산학 협력 성공 사례
지방정부, 산학협력 적극 도모해 혁신도시 성공 이끌어 | 정성문 |
| 06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동서대 산학협력 성과 사례
국내 첫 ‘기업가형 대학’ 모델로 ‘부산 르네상스’ 꿈꾼다 | 정도운 |
| 07 부산 지산학 프로젝트 - 상공계 현장의 희망 & 제언
‘기업 니즈’ 잘 살피 혁신 도모 부산 재도약해 ‘한국의 워털루’ 되길 | 이영환 |

시정 제1 과제 채택... 부산의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박차

고 미 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



들어가며

산학협력(産學協力)¹⁾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이며, 상호협력을 통해 좀 더 높은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 이후부터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하여 본격적인 산학협력 지원에 나서게 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과 대학 간 기술·정보·인력의 상호교류 및 작용을 촉진하는 정책, 즉 대학 내 산학협력단 운영,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정, 링크(link)사업 등 정책을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국가산업의 혁신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정부의 산학협력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과(기술진흥팀)와 교육협력과(인력양성팀)에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연구개발과(산학협력팀)를 신설하면서 산학협력 사업을 한 부서로 일원화시켰고, 2019년 산학협력단으로 산학협력 사업 추진부서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산만의 특색 있는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산

학협력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였다. 그러다 2021년 박형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부산시정의 제1의 과제로 표방하면서 청년산학창업국·지산학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부산형 지산학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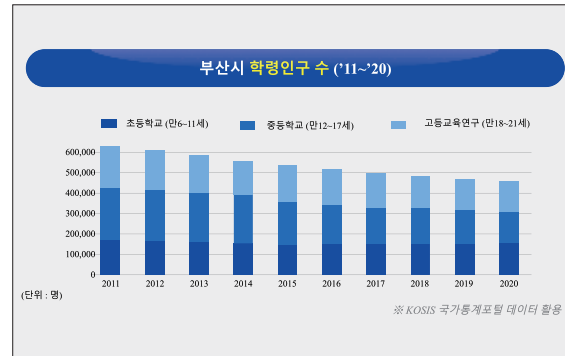
1. 왜 부산형 지산학 협력인가?

1) 부산지역 대학과 산업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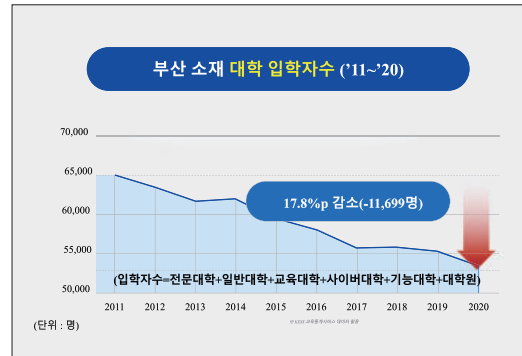
부산지역의 출산율은 오랫동안 전국 최하위 수준(20년 0.75)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2010년부터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부산소재 대학 입학자수가 2011년 대비 2020년에는 11,669명이(17.8%) 감소되어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2046년에는 부산지역 대학의 7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산의 경제상황 역시 전국 대비하여 GRDP 추세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지난 15년간 1.5% 감소), 2020년 현재 전국의 1,000대 기업 중 부산지역 기업이 29개로 그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학협력을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①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양성, ②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 인력·시설·장비 등 유·무형의 보유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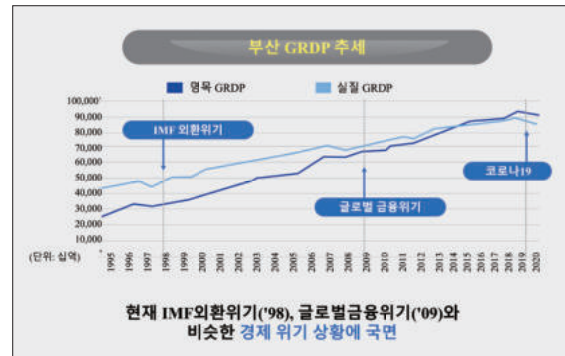
부산시 학령인구수, '11~'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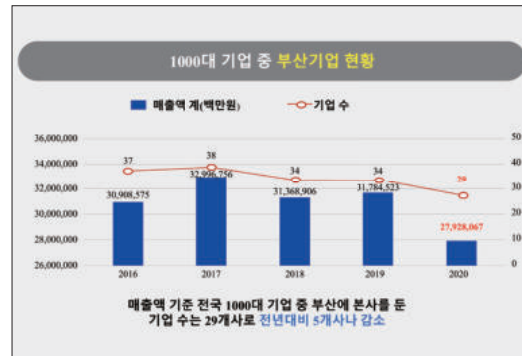
부산소재 대학 입학자수, '11~'20년



전국 대비 부산 GRDP 추세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존 산학협력의 한계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 개별기관·부처(부서)별 산발적인 사업 추진, 대학·기업 단위 부분적 연구와 협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지난 21년 12월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조사한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산학협력 저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대학의 연결 및 매개기능 부족이 28%를 차지하고 있어, 산발적·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연결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자체의 연결·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산학협력 저해요인 조사 (2021년, 부산시·테크노파크 공동조사, 220개사)

저해요인	대학과 기업의 기술수요 불일치	기업-대학 연결기능 부족	기업 내 산학전담 인력 부족	대학교수의 현장경험 부족	기업의 산학협력 경험 부족
응답률	75개사 (35.7%)	59개사 (28.1%)	32개사 (15.2%)	24개사 (11.4%)	20개사 (9.5%)

중계 역할을 강조하는 부산형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의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부산형 지산학 협력 시스템과 구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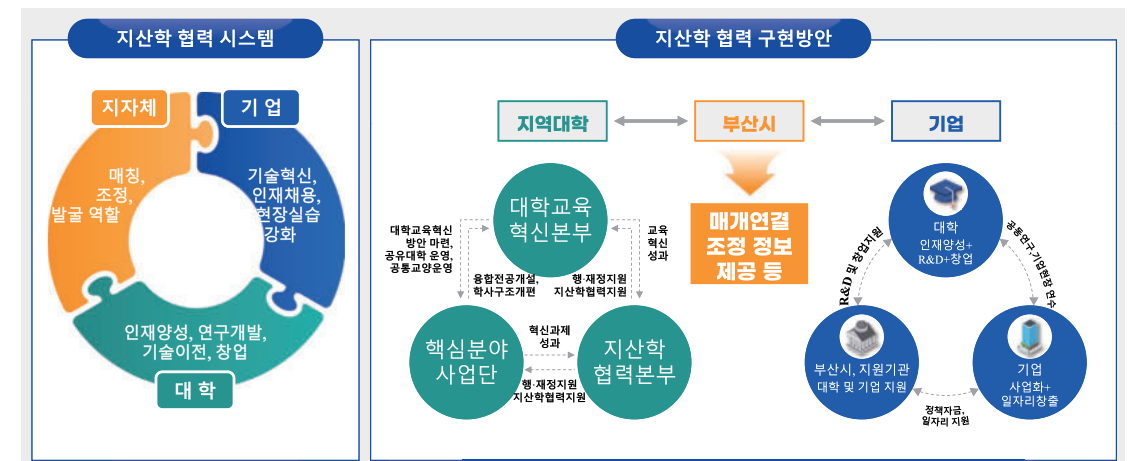
투입된 비용과 시간에 비해 산학협력 성과가 다소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학협력 주체 간(기업-대학-청년) 정보의 제공, 참여동기 부족 등 연결과 매개 역할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산학협력 주체 간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부산형 지산학 협력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산학협력센터²⁾를 신설하여(2021년 8월) 현장정보를 수집, DB화하여 중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미스매치 최소화 및 현장실습 통합관리를 위한 현장실습추진단 구성 및 현장 코디네이터

배치 등 기업과 대학 그리고 청년을 연결하는 윈스톱 지원창구의 역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부산 및 전국의 산학협력 주체 간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지산학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플랫폼 구축의 주요 내용은 대학-기업-청년 간 각종 정보 축적 및 제공, 청년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어플 개설, 기관별 정보 DB 구축 및 백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산학 협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산학협력촉진조례도 제정하여(2021년) 부산이 지산학협력도시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되었다. 이처럼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부산시정의 중요과제로 선정한 이후, 지난 1년간은 이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였고, 향후에는 내실 있는 지원과 사업 운영으로 산학협력 주체들이 스스로 지산학 생태계로 들어오고 그 속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나갈 예정이다.

부산형 지산학 협력 시스템과 구현 방안



2) 지산학협력센터는 기업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센터장 포함 9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코디네이터 등 3~4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3. 부산형 지산학 협력 추진전략

부산형 지산학 협력은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자원 및 혁신역량을 지역산업(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즉 대학은 훌륭한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로 보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지산학 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산학 주체 간 연결과 매개라는 대전제하에 세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가 지산학 인재 양성, 두 번째로 지산학 연구개발 강화, 세 번째가 지역대학 혁신 유도이다. 세 가지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지산학 인재 양성 지원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방안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지원하는 체

계를 갖추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산업 발전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미래 성장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 수요를 넘어 기술 진보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인재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서도 지역 산업계의 시급한 인력 요구에 대응하여 단기적인 인력 양성은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을 선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신기술 등 기업현장 적합성이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이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력양성사업이 대학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석·박사급 고급인재 확보와 역외로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업환경 적응성이 높은 실무인재 양성에 대응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직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적응성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점

연계형 기업현장 실습지원 사업을 신규로 기획하여, 기업이 부담했던 1인당 100만 원의 현장실습비를 부산시가 직접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래 신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ICT융합대학원, 이공계대학중점연구소 등을 통해 미래산업 기술 혁신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하여 '부산 디지털혁신 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2천 명, 5년간 1만 명을 양성하고, 교육생의 60%인 6천 명 이상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넷째 수도권 등 역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부산 기업이 역외 인재나 부산출신 출향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전용주택 공급 및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외에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유망기업(일명 '청끝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의 청년이 지역의 강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적인 피드백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 기업이 산학협력에 참여하면 직면하고 있는 애로 기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역기업으로 이전·사업화로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대학의 연구소가 곧 기업의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부산 지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기술·정보뿐만 아니라, R&D역량이 부족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실을 기술혁신이 필요한 기업에 개방한다면,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유휴공간에 기업을 이전시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인력양성도 병행하는 대학산학혁신단지사업(IURP)도 '22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2개 대학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대규모 국비 유치로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과 창업역량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한다. 올해 2월에 동남권 창업중심대학으로 부산대가 선정되어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5월에는 동서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의 14개 대학이 LINC 3.0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최대 2,82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LINC 3.0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 지역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지원, 공유·협업 체계와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등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성장하는 산학연 협력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의 사업도 차질

부산형 지산학 협력 추진전략



2) 지산학 연구개발 지원 강화

부산형 지산학 협력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 전략 중의 하나가 기업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의 강화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를 반영한 최신훈술에 대해 대학과의 효과적 연결을 추진하고 우수기술이 이전된다면, 지역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즉시 해결하여 주고, 중장기적인 기술과제는 지속

없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셋째,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의 추진이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21년) 지역 내 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기술과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바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산학협력센터 내에 대학과 기업의 기술이전을 연결·매칭해주는 얼라이언스를 3명 채용, 기업현장 애로기술(단기·중장기) 해결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3) 대학혁신 유도

앞서 언급한 바처럼, 대학은 현재 소멸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학문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기업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혁신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오픈캠퍼스 행사를 통하여 대학의 혁신 의지와 비전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장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을 협의하여 지역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동물병원 유치, 첨단산업파크 유치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세워지고 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신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고등교육 정책의 과감한 권한이양, 광역단체에 포괄적인 교육예산권 부여,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교육분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교육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분권이 확립되어야 인재와 기업의 역외 유출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여 부산시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대학혁신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가며

부산은 21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산학협력에 가장 적합한 도시이다. 각 대학이 쌓아 올린 그간의 역량과 경험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계적인 도시는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발전해 온 것처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기술의 환경 속에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스스로 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기업이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한다면 부산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산학 협력을 시정 제1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신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 제2 도시로서 면모를 되찾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해 주고,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대학과 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뒷받침해 줌으로써 기업과 대학 그리고 청년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산학 협력을 통해 '행복한 도시 부산, 살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고미자 프로필

경제분야 전문관료로서 부산시 투자유치팀장, 창업지원과장, 첨단소재산업과장, 혁신경제과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청년산학 창업국장에 재직하면서, 지산학 협력으로 청년이 정착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역 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제때 공급' 대책 박차 가하길

원 광 해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장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기업혁신을 위한 연구투자나 사업다각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대기업이나 제조 선진국 중소기업의 경우 오래전부터 '산학협력'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산학 간 협력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급감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1. 산학협력 R&D와 기술 사업화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역량이다. R&D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은 그 기업의 현재가치를 반영하고 잠재적 미래가치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업 R&D 투자→우수기술 확보→기업경쟁력(가치) 상승→고급인재 채용으로의 당연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기술혁신 역량 확보를 위해 어떤 방향적 노력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R&D 연구 규모와 질적 성과 측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일수록 연구비 규모, 특허출원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 여건 등으로 인해 기술·연구직의 적정인력 확보가 어려워 지역혁신 거점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R&D 추진은 물론 첨단 장비, 교육·훈련 등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제품 등의 최신 정보 입수와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술을 가진 공급자와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의 거래관계 활성화가 핵심이다. R&D 관점의 산학협력 관계 확대를 통해 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구하려는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의 우수한 기술들은 기업과 결합하여 사업화되지 못하고 연구 결과물로만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

가 많다. 반대로 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특허기술을 찾지 못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묵히고 미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기술거래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과 전문인력의 정보 순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과 기업 누구라도 산학협력 플랫폼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공동연구나 사업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의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전문인재 양성

지역 기업들에게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의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에서도 해마다 수많은 인력이 배출되지만 고급 인력의 역외 유출과 맞물려 정작 지역기업이 만족할 만한 인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체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인재의 양성과 공급체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의 양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대학교육혁신이다. 그간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교과과정과 기업현장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대학-지역 간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 과제 발굴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대학 모델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적 니즈를 반영하는 효과적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을 통한 공유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

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인력양성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개방형 정보화 체계 구축이다. 지역인재들의 역외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우수한 인재들을 품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부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 대다수 인재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정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대기업도 좋지만 지역에도 세계적인 기술력과 잠재적 성장 비전을 가진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적어도 지역의 청년들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의 틀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특화프로그램 확대 추진이다. 지방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맞춤형으로 양성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과 기업들이 계약학과 설치의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미 니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역량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까지 연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의 현장수요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부산시는 수소, 파워반도체,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중심 기업-대학 연계형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설계 중인데, 마이크로그리/나노그리와 같은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들을 더욱 개방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림1> 부산 지산학 협력 브랜치 지정 현황(2022년 5월말 기준)



3. 지산학 저변 확산과 시민사회 협업

지산학 기반의 공동기술개발과 맞춤형 인재양성은 지산학 협력의 주체들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조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설립한 지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의 산학협력 기반을 발굴하고 이를 거점으로 연결하여 산학협력의 모델들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산학 브랜치(branch)를 지정하고 있다. 부산시 지산학 브랜치는 현재(2022년 5월 말 기준) 26호까지 지정되었으며 연내 50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지산학 브랜치는 기존 추진해 오던 특정한 기준 충족 기반의 우수기업 인증제도와는 달리 산학협력의 노력과 가능성을 전제로 고유한 영역에서의 혁신 노력과 성과가 돋보이는 기업이나 대학 등을 지정하여 향후 지산학 기반의 활동들을 장려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산학혁신 확산 모델이다. 무

엇보다 기존 규모경제 중심의 기업인증과 달리 성장 잠재력 기반의 스타트업 발굴, 제조혁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문화예술 기반의 산업생태계적 저변 확대 등에 주력하는 브랜치를 집중 발굴하여 사업화에 대한 방향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이디어 기반의 제조+서비스 융합형 스타트업 소셜빈이나 지역대표 커피브랜드 모모스커피, 원도심 글쓰기 공동체 백년어שר원 등의 브랜치 지정은 지산학의 공간적 기능적 범주가 대학과 기업의 연결을 넘어선 대학+기업+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협력의 범주적 저변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지산학 브랜치를 중심으로 부산시 7대 전략산업별 특징과 고유기능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산학 모델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를 넘어 쿼드러플 헬릭스(Quadruple Helix) 기반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경제문화적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이들의 상호적인 작동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존 NIS체계에서 강조하던 산학연 협동체계에서 변화되어, 혁신의 주체인 대학-산업계-정부가 삼중나선 구조로 얹혀 일체가 되는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모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기술과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역 내 핵심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의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과거 산학협력 구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트리플 헬릭스 모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혁신의 주체들을 이어주는 정부, 지원기관 제도들의 연계 시너지 효과, 공통 목표에 기반한 혁신 생태

계 조성, 연구의 협력과 연결을 가능케 하는 혁신 정책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대학-민간 등 혁신주체 간의 강한 파트너십과 연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산학 정책과 각종 규제에서 연구개발 주체를 리드하고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R&D 인프라를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지원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산학 협력모델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 대학의 혁신, 나아가 기업과 대학의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기업, 대학, 정부의 역할로 재단하여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도시공동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사회의 참

여와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대학-기업을 연계하는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를 넘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연계하는 쿼드러플 헬릭스(Quadruple Helix) 기반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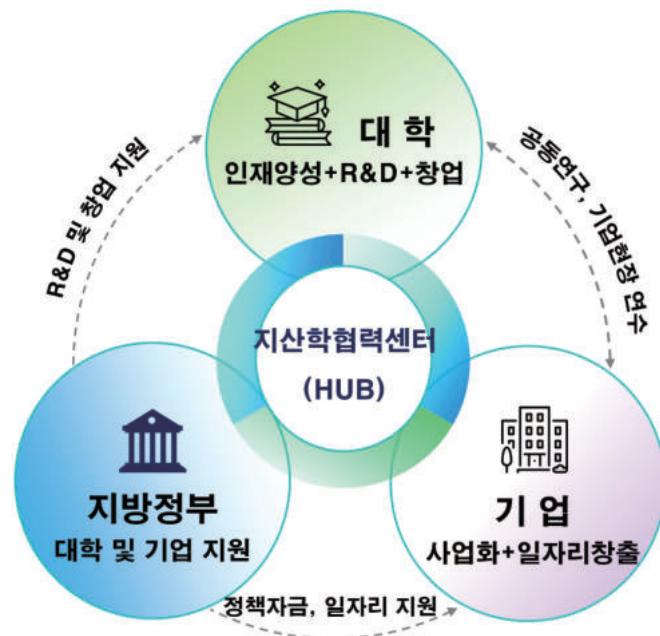
나가며

앞으로의 산학협력 체계는 기업-대학-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상호능동형 연결구조가 되어야 한다. 자발적 지산학 협력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각 혁신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산학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혁신주체와 관련 기관들을 적극 참여시켜 내실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결하고 새로운 지산학 협력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지산학을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원광해 프로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 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하여 부산대, 동의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산업연구원, STEPI, 부산연구원 등 국내 다수의 정책연구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시집 「누군가에게 온전히 무엇이 되어」(2020)가 있다.

<그림2> 부산시 지산학협력 지원체계



23개 대학-지자체-기업 협력플랫폼 구축 통해 혁신도시 도약



서 용 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원장

1. 부산의 산학협력 필요성과 대학의 역할

과거 부산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국내외 산업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산업혁신 성장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오늘의 부산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외 많은 도시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新) 산업군 육성에 노력해온 것에 반해, 부산은 전통적인 강점 분야였던 제조업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 내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또한 그 이면에는 숙박업과 외식업 위주의 저부가가치형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생산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문제까지 더해져, 부산의 산업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선진도시들은 대부분 미래 유망성에 기인한 신 산업군 육성을 통해 발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기술 혁신은 산업을 넘어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산업체와 대학이 지역 내 강

력한 혁신주체로서 다양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협력에 몰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선순환 생태계가 모범적인 사례로 조명되는 경우가 많다. 산학협력은 단순히 활동유형을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산업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부산의 지역·산업혁신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내 소재한 23개 대학에서 매년 32,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21 기준)되는데, 이는 전국대학 졸업생의 8.41%, 부울경 지역대학 졸업생의 66.7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지역 내 국가 연구개발(R&D)의 약 38%를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산이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형 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들과의 기술사업화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것을 실현시킬 우수인재의 양성과 지역 내 활용도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표1> 부울경 및 전국대학 졸업생 현황('21)

지역	21년 졸업생수(명)	전국대비 비중(%)	부울경대비 비중(%)
부산	32,105	8.41	66.71
울산	3,226	0.85	6.70
경남	12,792	3.35	26.58
부울경	48,123	12.61	-
전국	381,549	-	-

자료출처: 대학알리미

<표2> 부산지역 수행주체별 국가R&D 수행 현황('20)

구분	국공립 연구소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기타	합계
투자액 (억원)	1,169	2,008	3,597	34	140	1,790	887	9,625
비율(%)	12.15	20.86	37.37	0.35	1.45	18.60	9.22	100

자료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

2. 지자체 중심의 산학협력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노력

그동안 지역 내 연구개발(R&D)은 주로 중앙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지원)사업을 대학이나 기업이 '선(先)유치·후(後)수행'하는 형태를 보여왔는데, 국가R&D사업의 유치 여부가 지역 내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만큼, 자체 투자역량이 열악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연구개발분야 혁신주체 간 협력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 사업의 특성상 지역 내 기업의 수요가 정밀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우수성과의 지역 산업 내 환류·확산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학협력 전담조직인 대학협력단을 지자체 내부조직으로 신설('19)하고, 과학기술분야 지역특화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등과 협력하여, 산학협력R&D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는 산학협력 기반의

R&D 기획부터 대학 내 인프라 집적화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른바 '부산시 산학협력R&D 전(全) 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민선9대 출범(21)과 동시에 도시발전 핵심요소로 산학협력을 중점 표방하고, 각종 정책 및 시정업무 전반에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지산학 협력'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구축해온 산학협력 전 주기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업수요의 실효적 발굴과 매칭'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21), 지산학협력센터 설립(21) 등을 완료하고, 기술개발·도입 수요가 있는 지역기업과 우수연구역량을 갖춘 대학과의 적극적인 중계와 협력을 지원 중이다. 부산의 지역주도형 산학협력모델은 향후에도 더욱 실효적인 성과 창출은 물론, 나아가 지역혁신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 특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2022년 세계해양도시 순위에서 부산은 11위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전히 국내 최고 해양도시로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해양기술이나 항만 부문에서 상위권 수준을 나타냈으며, 반면에 해상운송, 해양금융, 기업친화도, 해양교육기관 등의 관련 항목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해양 기반 전통 주력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의 육성 및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특성화 분야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대학 내에 구축하여 인재육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 산업혁신의 3요소를 집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내 혁신인프라 집적화는 대학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URP, '15~'19), 대학혁신연구단지조성사업(I-URP, '20~) 등 민선6기 출범(15)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지역대표 대학중심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전략이다. 특히 지역 기업체들과의 밀접한 연계협력을 위해 기업 입주공간, 공동장비활용·메이커스페이스,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 등 보다 확장된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지역혁신플랫폼사업)' 또한 대표적인 특성화 분야 중심의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모델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지역대학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지역혁신에 필요한 핵심분야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자체가 선정한 후, 지역대학의 효율적인 참여구성을 통해 산업혁신과 지역혁신을 도모

하고자 중앙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역혁신시스템(RIS, Region Innovation System)모델 발굴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심화 등에 따라 지역대학들은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2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가 지역대학에 집중(교육부,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되어 있을 만큼, 지역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다시 지역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지역 내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5영역에 있어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이자 생성·양성의 원천이다. 따라서 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23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의 경우, 대학과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모델을 발굴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시가 지역혁신플랫폼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본 사업이 23개 대학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내 다양한 산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 대학중심 협력플랫폼 모델 구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5년간 총사업비 2,145억 원(국비 1,500억 원/시비 645억 원, '22년 사업 기준)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대학 밀집도가 높은 부산이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마중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지역혁신의 강력한 두 축으로 산학협력과 대학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하게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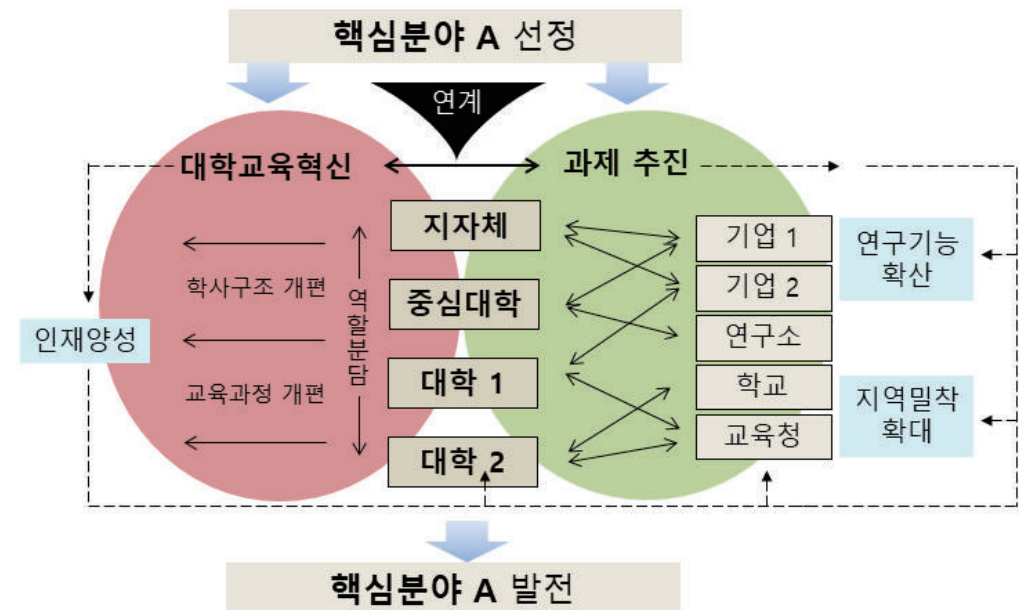
력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기존의 대학교육체계가 미래 유망산업분야의 인재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육체계가나 콘텐츠를 적극 혁신한다는 개념이다. 이 모든 혁신활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육성분야(본 사업에서는 핵심분야라 명명)를 별도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산지역 혁신플랫폼은 해양특화 지산학 협력 혁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유기반 대학혁신, 기술기반 기업혁신, 협력기반 지역혁신을 3대 핵심가치로 제시하였다. 이에 부응하는 지역 혁신인재 양성, 공유형 교육과정 개발, 지역 청년인재 고용, 산학협력프로젝트, 지산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울경 혁신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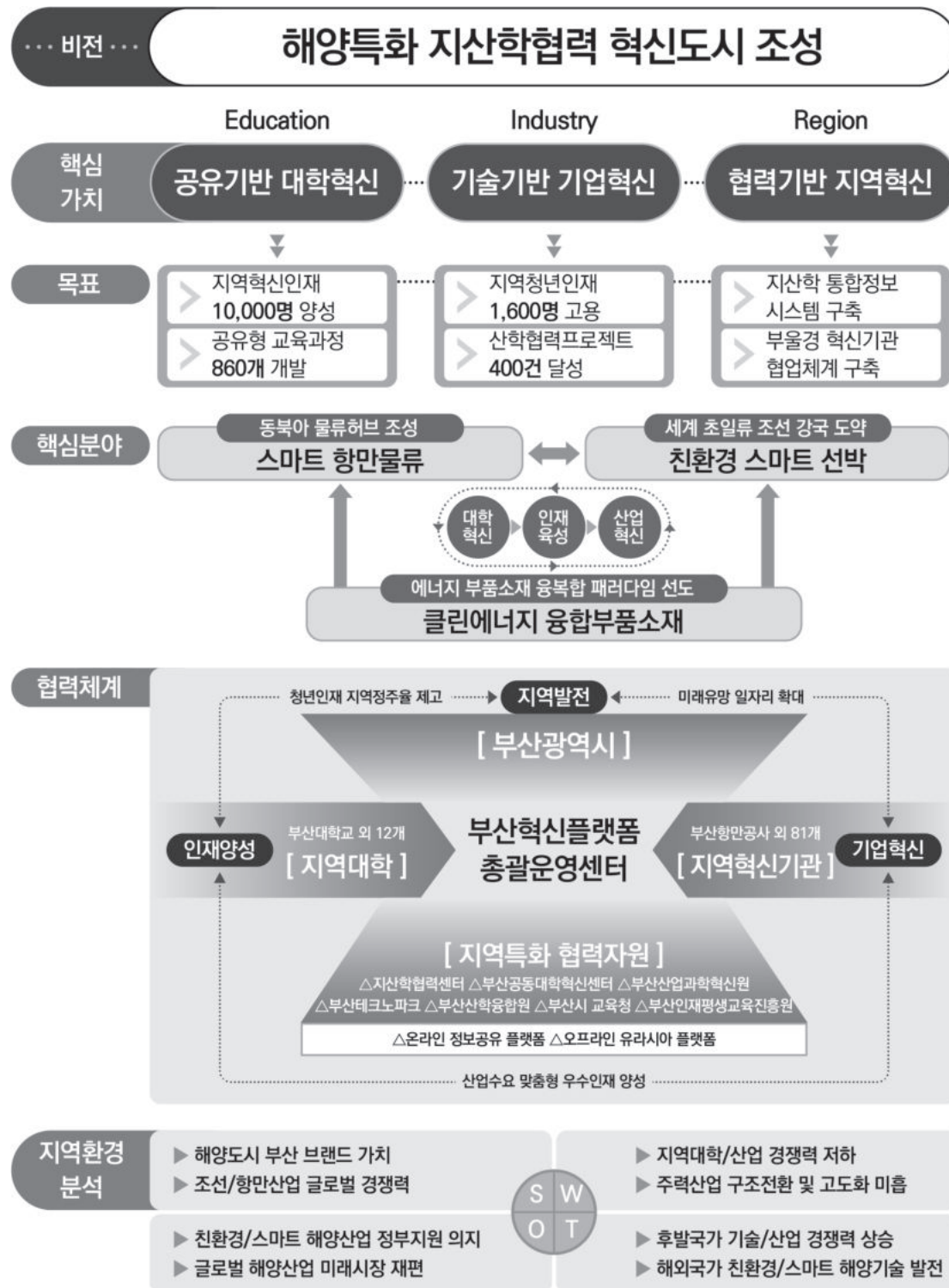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목표는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등 3개 핵심분야를 통해 구현한다. 내륙의 항만과 해상의 선박 간 스마트화·친환경화를 도모하고, 기존의 에너지 부품산업군은 친환경화분야 대응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분야 간의 연계논리이다. 각 핵심분야는 경남, 울산 등으로의 인재-기술-산업 연계·확산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며,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 본격 출범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산업적 확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 혁신플랫폼은 산학협력이나 대학교육 혁신 추진 외에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혁신자들이 총망라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12개의 지역 대학, 81개의 지역 내 혁신기관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부산시가 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자체 추진해온 지산학협력플랫폼(추진체계 및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부산산업과학혁

<그림1> 지역혁신플랫폼사업 구성도('22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그림2> 부산지역혁신플랫폼 비전 및 목표('22년)



신원, 부산시 지산학협력센터, 부산산학융합원 등 지역특화 협력자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사업수행성과 창출에 머물지 않고, 향후 지속 확대가 가능한 부산형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타깝게도 본 사업계획은 '22년도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부산시가 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목표하에 추진 중인 다양한 계획들의 추진체계로서, 즉각적인 반영과 지속적인 고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유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부산시의 지역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추적인 추진체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에 수립된 지역혁신플랫폼 추진계획을 차년도 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추진방안과 재원을 마련하여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초광역시대에 부응하는 대규모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최근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내 최대 이슈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일 것이다.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지자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행정공동체,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 4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 차원의 강점들이 융합될 수 있는 미래 산업분야의 집중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 확대, 정주여건 강화 등 초광역형 지역혁신시스템(mege-region

innovation system)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산학협력은 가장 강력한 혁신수단이 될 전망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역량이 결집된 부산, 다양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남,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첨단연구개발 및 사업화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울산 등 각 지자체별 여건과 강점이 고려된 대규모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의 적극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산학협력은 대부분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향후 산학협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생활공동체와 문화공동체 영역에서 새로운 협력과 융합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의료, 복지 등 사회 영역에서부터 영화·영상, 관광 등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육성에서도 산학협력은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新 산학협력 모델의 실험적인 발굴과 도전적인 추진을 통해, 부산시가 목표하는 산학협력 혁신도시가 가까운 미래에 구현되길 기대해본다.

서용철 프로필

부경대 지속가능공학부 교수,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원장, 부경대 산학협력단장, 신산학융합본부장, 청와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자문위원, 전국 산학협력선도대학 고도화사업 단장협의회(LINC+) 전국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강화해 디지털 주역 ICT 인재 육성에 주력



정 문 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들어가며

최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내부역량 강화 측면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지산학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산학 협력의 참여자 간 공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지산학 협력 정책 대부분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내부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과거 정부 주도의 지산학 협력 정책은 대학 중심의 지원체제로 단순 일회성 프로젝트 협력,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고 있어 지역산업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디지털전환 시대의 지산학 협력 중요성과 필요성

지산학 협력의 본질적인 기능과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전통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계다. 참여자 간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기업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비즈니스를 촉진하며, 대학과 기업은 인재를 공유한다.

즉,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인력 확보, 제품 및 서비스를 확산하고, 대학은 산업과 직결되는 기술연구, 산업형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상호 윈(win)-윈(win) 하는 공통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여 산학협력의 미래방향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의 대응, 디지털 인적자원의 확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이 되면서 기업에 '산학협력'이 중요한 기업혁신 수단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대학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연구지원에 나

서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업 간 기술역량의 불균형, 기술투자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필요성이 훨씬 높아진 상태이다.

3. 부산의 IT/CT 산업과 지산학 협력

부산은 성장성이 높은 ICT 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인 이하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한 규모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내 우수한 IT 인력들은 지역 내 기업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수도권 대기업으로 역의 유출되고 있다.

지역 콘텐츠 산업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한 콘텐츠 R&D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미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콘텐츠 기업들 또한 IT 기업과 같이 인력부족, 혁신기술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산 지역 IT/CT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산학 협력은 인력의 육성 및 공급, 혁신기술의 확보 측면에서 부산지역 IT/CT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다.

4. 국내 지산학 협력의 한계

하지만 국내 지산학 협력은 공급 중심의 지산학

협력 정책에 편중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BK21, NURI 사업, 산학협력단 설치, 계약학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참여자인 대학의 예산 지원에 편중되고, 대학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지역 간 양극화 문제가 지산학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인 양극화 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에서 지산학 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5. 국내외 지산학 협력의 사례 및 유형

반면 해외 산학협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지산학 협력의 문제점을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로 극복하고 있다. 해외의 산학협력 모델은 참여자 간 공통의 목표를 수립하여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방적 &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학협력사례는 크게 '대학주도', '정부주도', '기업주도'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학주도' 산학협력 사례는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단순 대학 연구지원을 넘어선 산업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산업계 니즈에 기반한 과제출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역량을 사회로 환원하는 형태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IAP(Industrial Affiliates Program), 싱가포르 난양공대 리서터 디렉터 등은

산업계 니즈를 바탕으로 수요 지향적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 엔터프라이즈, 옥스퍼드유니버시티이노베이션 등은 기존의 대학 중심 산학협력에 벗어나 기술 이전, 기술개발, 창업 등 전담하는 별도의 산학협력 전담 외부기관을 설립·운영하여 기업, 대학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2) '정부주도'의 산학협력은 선순환 구조의 개방적인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 말피시, 미국 랩 센트럴, 프랑스 스테이션F 등의 사례가 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산학협력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학협력 참여자 간 쌍방향적인 지식 공유와 공동된 산학협력 목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다.

3) '기업주도' 산학협력 모델은 기업의 수요 중심으로 추진된다.

즉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조달받는 형태로, 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IBM은 스위스 최고의 명문대인 취리히 연방공과대와 장기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나노테크놀로지 센터를 공동 구축, 10년간 9,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 결과 본래의 연구주제인 나노 기술 이외에도 그

린 컴퓨팅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였다.

구글은 스탠퍼드대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대학과 AI 연구 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카이스트, 서울대가 AI인력 양성,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7조원 가량을 투자해 세계 주요 대학과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와 같은 해외의 산학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지산학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 대학, 정부(지자체)가 공동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개방적 지산학 협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주도 산학협력 사례 '구글'



정부 주도 산학협력 사례 '미국 랩센트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지역 내 IT/CT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AWS 클라우드 혁신센터의 '클라우드 혁신센터 챌린지 프로그램'과 '시민참여형 바다 SOS-LAB'을 운영 중이며 개방적 혁신을 추구하는 지산학 협력을 지향한다.

'클라우드 혁신센터 챌린지 프로그램'은 아마존웹 서비스(AWS), 부산지역 IT·클라우드 기업,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사회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IT서비스를 기획·개발·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인 AWS와 부산시가 협력하는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시민참여형 바다 SOS-LAB'은 부산의 바다(해양)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민체감형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SW를 지역 IT 기업이 개발하고, 지역 IT 연구소인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와 협력하여 서비스 실증, 테스트, 컨설팅 등 기술기반 코디네이션을 지원하여 지역 IT 기업이 우수한 SW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IT/CT 산업 인력의 육성과 공급을 위해 클라우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인력육성을 위해 베스핀글로벌, 더존비즈온 등 IT 기업과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교육과 함께 네이버, AWS, MS 등 글로벌 IT기업과 협력을 통해 재직자 대상 IT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 지산학 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앞선 지산학 협력의 배경과 개념,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서 지산학 협력의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사업 베스핀글로벌 협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클라우드 혁신센터 챌린지 프로그램'

첫째, 정부주도의 산학협력 방식의 탈피가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주도 산학협력은 일회성 성과에 치중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이라는 산학협력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 예산지원의 산학협력 형태를 탈피하고, 직접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형 지산학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지산학 협력의 참여자 간 공통 목표를 수립하고, 실효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지산학 협력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업, 대학,

정부(지자체) 참여자들이 각각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참여자 모두 형식적인 산학협력이 아닌,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게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산학 협력의 참여자들 중 리더십을 가진 추진 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주체는 꼭 정부, 지자체가 될 필요가 없다. 지산학 협력 목표에 부합하고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참여자가 지산학 협력 추진 주체가 되어야만 지산학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학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지산학 협력에 리더십을 가진 추진 주체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산업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전(全) 단계로 지산학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비단 기술 중심의 산업인 제조업, IT/SW 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융복합의 시대에서 다양한 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산학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비즈니스 전 단계로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산학 협력이 필요하다. 비단 우리나라의 지산학 협력은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치우쳐져 있으나 기술 및 제품 기획, 기술개발(R&D), 생산, 마케팅, 사업화 등 기업비즈니스 전 단계에서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지산학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산학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긴밀한 기업-대학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기존 일회성 프로젝트 협력, 인력 교육 등 단편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연구지원을 통해 특정 기술이 개발되었다면 해당 연구지원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지원, 융복합연구 지원, 관련 연구인력의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후속 교육지원 등의 연속적인 산학협력 지원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산학 협력 시 참여자 간 장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지산학 협력에 연속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7. 부산, 제2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방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1940년대까지 대부분이 과수원과 농경지로 황무지 상태였으나, 스탠퍼드대학 전기공학 교수였던 터만(Frederik Terman)의 기술형 창업을 지원하는 연구소를 시작으로 많은 벤처기업과 창업을 꿈꾸는 전문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실리콘밸리의 산학협력은 기술창업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참여자 간 공동의 산학협력 목표를 공유한다. 현재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소규모 스타트업이 모여 산학협력을 통한 유니콘의 성지로 자리잡았다. 실리콘밸리는 개방적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그런 생태계 속에서 인력의 교류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 단계까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다.



실리콘밸리 대표기업 및 현황

부산형 지산학 협력 모델 또한 실리콘밸리처럼 기술혁신이 가능한 개방적 지산학 협력을 지향한다면 국내 우수한 인력과 기업을 부산으로 모으고, 지역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첨단기술의 전초기지로 세계 디지털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문섭 프로필

(주)유니크, (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거쳐 2002년 9월부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장, 경영기획팀장, 교육·문화사업팀장, 기반조성사업부장, ICT신사업단장, 콘텐츠사업단장, 콘텐츠진흥본부장을 역임하고 2021년 11월 제9대 원장에 취임했다.

지방정부, 산학협력 적극 도모해 혁신도시 성공 이끌어

정 성 문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해외의 지역-기업-대학 간 협력, 즉, 지산학 협력 제도는 각 국가별로 경제성장 단계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가 모방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와 부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지산학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RTP 연구단지

먼저, 미국 롤리시(Raleigh)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더럼시(Durham)의 듀크대학(University of Duke), 채플힐시(Chapel Hill)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등 3개 대학을 연결한 삼각지대(트라이앵글)의 중심에 건설된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NC) 사례를 살펴보면,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 연구단지는 세계적으로 지산학 협력 사례 중 가장 성공한 사례이다. 1958년 당시 주지사는 역외 인재 유출 방지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쌍벽을 이루는 연구센터를 형성하기 위해 리서치트라이앵글연구소와 같은 관민연구소,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등 대기업 연구시설을 유치하였다.

주정부는 RTP에 간선도로 확장고속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롤리-더럼 국제공항, 6개의 지역공항, 2개의 항구와 다수의 연방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켜 기업관점에서 RTP 입주 매력도를 상승시켰다. NC 주정부와 대학은 단지 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컴퓨터센터, 고등교육센터, 비영리 전자공학센터, 생명공학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과 시설을 건설하고, 기술개발국 산하에 벤처기금을 조성하여 신기술 개발과 벤처창업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 호텔, 우체국, 신문사, 사무용품점, 식당 등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더럼시는 1970년대 중반 RTP 내 하수도 시설을 건설하였고, 리서치트라이앵글재단은 1959~1960년 기간에 더럼시에서 RTP에 이르는 구간의 상수도를 자체비용으로 건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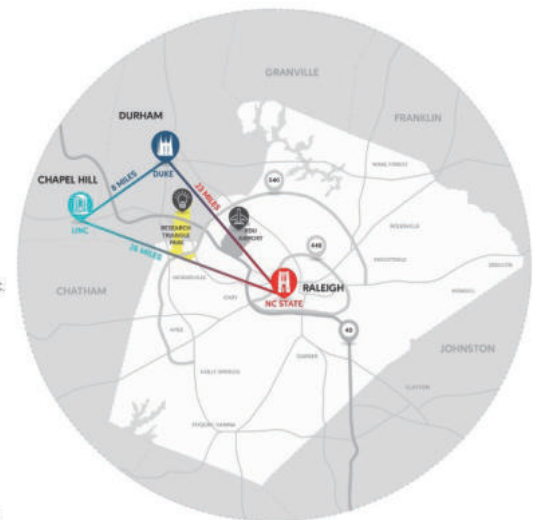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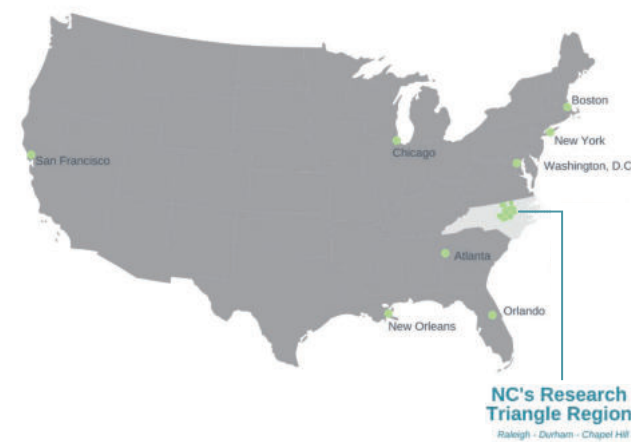
10년 후 더럼시에 기부채납 하였다. RTP는 NC 주정부의 적극적인 기관-기업 유치 노력으로 임업시험소, 협회, 연구소, 기업 등을 입주시켰다.

또한 NC 주정부는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965년 IBM, 1977년 데이터제너럴(소프트웨어 사업부), 1980년 노텔(연구개발센터), 1990년 에릭슨(스웨덴 대표 이동통신장비 및 서비스업체), 1994년 시스코(세계적인 무선통신 장비업체로 R&D 및 제조사업부), 1969년 버로우스 웰컴(본사 및 연구소), 1983년 글락소 등을 유치하는 등 198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 RTP재단은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주의회로부터 1백만 달러 기금을 확보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연구센터(The Micro Electronic Center of North Carolina : MCNC) 설립을 주도하였고, 명망 있는 과학자들 중심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RTP 내 지역대학 연합 컴퓨터센터를 설립하기도 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중 정보통신산업(IT)와 바이오산업(BT)에 특화된 복합 클러스터로

성장시켰다. IT, BT 산업 모두 IBM과 국립환경·보건연구원 입주 후 관련 기업의 연쇄 입주로 네트워크를 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산학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오늘날에는 약 55,000명 이상의 직원과 30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TP 내 대학과 기업은 연간 6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지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117,000여 명의 학생이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어 졸업생 중 65%가 지역 내 정주하면서 교육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NC 주정부는 지역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상하수도 설치, 공항·항구·고속도로의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 연구소와 대기업 연구소 이전을 꾀하는 등 산학협력에 있어 SOC 기반을 다짐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림 1>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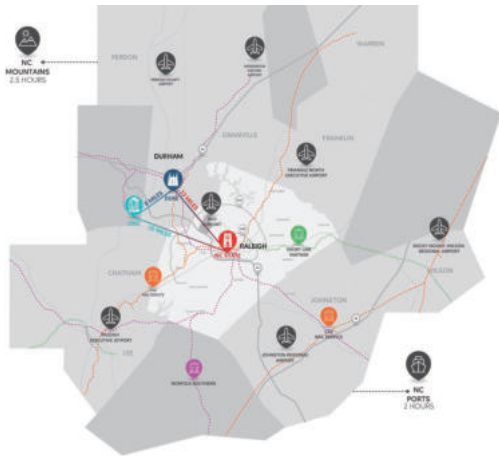


자료 : www.researchtriangl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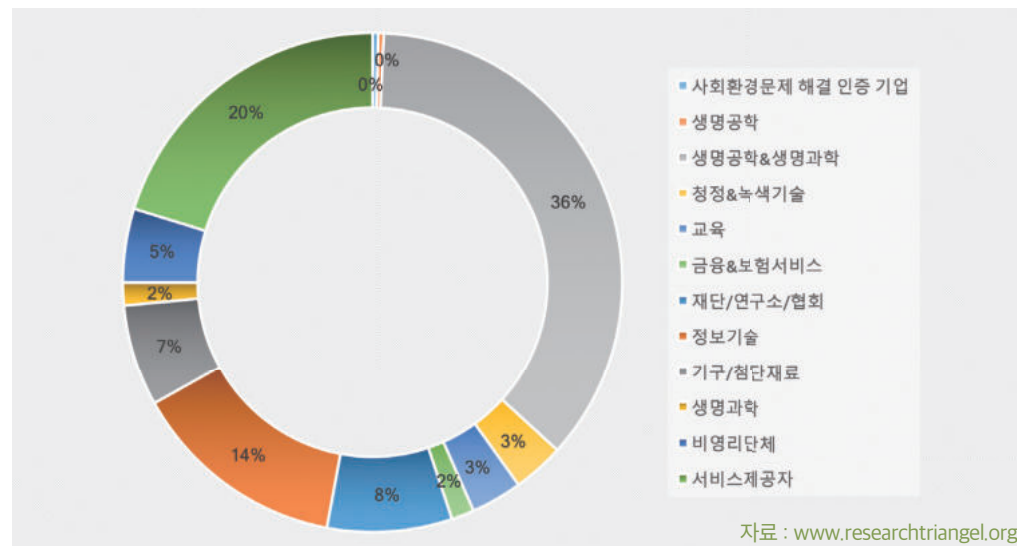
2. 캐나다 워털루대학 Co-op 프로그램

이어서 캐나다의 인구 40%가 거주하고 있고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Ontario) 사례를 살펴보면, 1957년 개교한 워털루대학은 1970년 이후 Co-op 프로그램(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제조업이 번성했던 온타리오 주에 엔지니어와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인력 공급을 위해 현장실습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1970년대 냉전체제로 인해 전 세계적

<그림 2> 주요 연방고속도로 현황



<그림 3> RTP 내 입주기관(기업) 현황



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했으며 교육 분야에서 도 산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워털루대학은 2021년 캐나다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2위, 고품질의 교육 제공 대학 4위 (MACLEAN'S)로 지방정부 기반의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캐나다 대학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7~2018년 시기의 워털루대학은 대학 운영지출을 통해 11억 캐나다 달러 수준의 GRDP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Economic Impact Report, 2019),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은 신입사원을 뽑는 대학으로 언급할 만큼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취업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Co-op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대학으로도 보급·적용되었고, 캐나다 전역 약 80개 대학, 8만여 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워털루대학은 이를 선구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산학관이 추진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캐나다 내에서도 워털루대학이 시초로

<그림 4> 워털루대학 Co-op 프로그램에 따른 취업률 및 고용효과



자료 : www.uwaterloo.ca

약 1.8만 명인 최대 규모(캐나다 전역 참여자의 22%, 워털루대학 총원의 60% 수준)로 운영한 사례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하여 7,100개 이상의 기업이 본 프로그램 과정에 고용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 관점에서 보면, 대학에서는 학업 중에도 참여 보수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지가 상당히 높을뿐더러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설립 초기부터 산학협력 추진을 위해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했으며, 기업 네트워킹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경험과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 지원조직인 CECS(Co-operative Education & Career Service)를 설립하였다. 이는 정보센터, 프로그램 자문 등을 위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300여 명이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육 품질 제고와 더불어

<그림 5> 워털루대학교 외부전경



자료 : www.uwaterloo.ca

<그림 6> 워털루대학교 내부전경



자료 : UNN한국대학신문

주정부의 지원제도, 대학교육, 기업수요 간 미스 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타리오 주정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세 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이 학생에게 지출한 임금이나 운영비를 총비용의 30% 한도(1인당 한 학기에 최대 \$3,000)까지 교육세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3. 핀란드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다음으로 북유럽 중 전통산업인 목재가공, 종이, 금속산업이 여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보통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는 핀란드 오울루(Oulu)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한 클러스터 조성 사례가 있다. 1958년 오울루대학을 설립하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단과대학에서의 전기 및 기계 엔지니어링 교육은 현재 오울루 클러스터 형성에 발판이 되었다. 자연스레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성장시켜 기업들을 유인하였고 당연히 클러스터 형성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주도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기업 요구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은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가 졸업의 필수요건이며, 교육과정에서 기업과 연구소가 연구개발(R&D)을 같이 참여한다. 1974년 설립한 핀란드 기술연구센터(VTT)와 1992년 기술전문대학도 R&D와 고급 인력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전자분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82년 오울루 지방정부 주도 민관합동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대학 옆에 기업 인큐베이터와 기술센터가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모델을 참조하여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부지와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기업-대학 혹은 기업-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기회를 무한히 제공함에 따라 상호 협력활동을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로는 신기술·신제품·기술개발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전화·통신·인터넷·방문객 안내·인력공급 등 전반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노키아(Nokia), 에릭슨(Ericsson Inc.), 텔리아소네라(Teila Sonera), 콤팩(Compac), 지멘스(Siemens) 등 세계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총 25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위치해 있어 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고 있다.

오울루 지방정부는 1984년 '기술도시(Technology City)'로 공표하고, 「테크놀로지 도시화 선언」을 통해 오울루 지방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북유럽 최초의 사이언스 시티로 기업도시 추진 전담 조직인 테크노폴리스가 기업입주를 본격 추진하여 현재 핀란드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창업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스타트업 회사 생존율은 90%에 육박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스타트업 회사의 취약한 부분을

<그림 7>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외부전경



자료 : www oulu.com

<그림 8>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네트워크 환경



자료 : 산업정책연구원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전략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을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오울루 지방정부는 북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이자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명성을 높였으며, 인구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 13만 5,000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020년 20만 6,00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입주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핀란드 정부와 오울루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가 함께 오울루 바이오센터 등 주요 국공립 연구기관을 이전시켜 R&D역량 제고를 뒷받침한 것이 큰 발판이 된 것이다. 또한 오울루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급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의 첨단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4.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이어 스웨덴이 자랑하는 연구도시인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 이하 시스타)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정부 주도로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로 원래 군부대 훈련장이었던 이곳이 스웨덴 최대 기업인 에릭슨의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지산학 협력으로 과학 도시로 발전하였다. 2003년에는 에릭슨의 본사까지 이전하였고, 이를 따라 에릭슨의 납품 업체들도 공장과 연구소를 이전하였으며, 기업들이 몰리자 정부 연구소와 대학도 이전하게 된 사례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 북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로 유럽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을 갖춘 혁신 산업단지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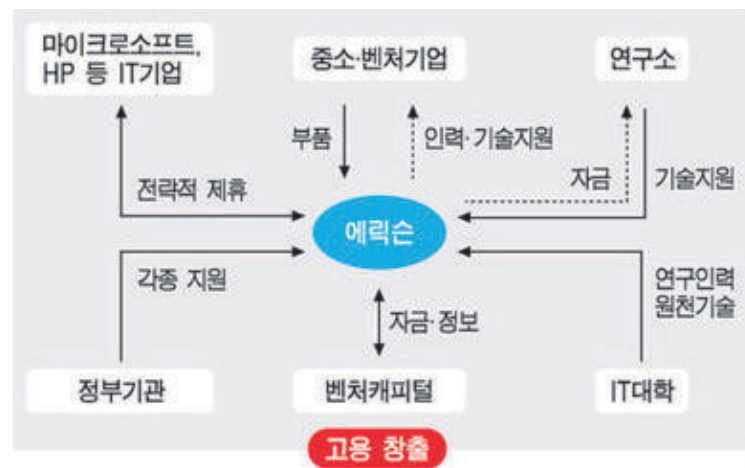
<그림 9>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외부전경



자료 : www.kista.com

시스타는 ABC원칙-일자리(Arbete), 주거지(Bostad), 소도심(Center)-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을 살리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초창기부터 시스타에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가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80년까지는 에릭슨과 IBM 이외에는 입주기업이 부재하였으나, 시스타와 스톡홀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8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30,000여 명을 고용한 수준이다. 당초 시스타는 스톡홀름

<그림 10>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 에릭슨 효과



자료 : 매일경제(2007)

지방정부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과 기술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변모하였다. 시스타 구축 초기에는 지방정부가 산학연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시스타 근로자 중 10% 미만에 불과하여 인근 대도시와 출퇴근 문제가 심각하였다. 하지만 입주기업에게 적극적인 교류의 장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 시스타 쇼핑센터 재건축 그리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를 해소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시스타가 성공적인 기업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에릭슨 등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인근에 있는 우수 대학, 주요 국책 연구기관 활발한 협력으로 혁신능력을 극대화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스웨덴왕립공과대학(KTH)과 스톡홀름대학(Stockholm University)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을 2001년 IT대학으로 공식 출범시켜 단지 내 고급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주도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스톡홀름 지방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ICS, ACREEO, SITI 등 국책연구소를 유치하여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였고, 국제적인 ICT 회의 유치 등으로 시스타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에릭슨과 같

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입지로 인해 무선이동통신과 ICT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며 집적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스웨덴은 ICT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표적 사례이며, 스웨덴의 ICT 산업의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미국의 RTP, 캐나다의 워털루대학,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등 주요 해외 지산학 협력 사례를 통해 결국 지방정부 주도의 산학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쇠퇴산업의 전환 혹은 유망산업의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지방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입은 산학협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비전 혹은 전략 제시로 인한 산학협력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관점에서는 지방세·교육세 감면과 정주여건 조성이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부산에서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한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부산에 꼭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학 관점에서는 인력 양성의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가 다른 지역에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여 머무를 수 있는 선순환적 밸류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선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률이 향상된다면 지역대

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도시로 성장한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부산은 이제 국내 100대 기업도, 10대 대학도 없는 도시로 추락한 상황이다. 이에 지산학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대학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 없이 대도시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산학협력 중개조직을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밑거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 부산만의 특화된 산학협력 사례를 통해 혁신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정성문 프로필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팀장을 거쳐 현재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위원, 한국경제통상학회 사무국장, 한국혁신학회 학술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내 첫 '기업가형 대학' 모델로 '부산 르네상스' 꿈꾼다

정 도 운 동서대 산학협력단장(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1. 산학협력 교육의 성과가 지역 공헌으로

부산 북구가 시장에 내놓은 수제맥주 '구포만세 329'가 지역에서 큰 인기입니다. 이름이 특이한 이 맥주 브랜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와 7명의 학생들이 클래스셀링(class-selling)을 통해 제품 브랜딩과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기초단체,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산학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시장에서 사라질 뻔했던 '구포맥주'가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역 최초의 지역맥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역 창작 뮤지컬 '가야의 노래'의 탄생도 흥미롭습니다. 창작 뮤지컬 '가야의 노래'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입니다. 이 뮤지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동서대 뮤지컬, 디지털콘텐츠, 패션디자인 학과 3개 전공 학생들의 합작품입니다. 뮤지컬 학생들이 기획과 공연을, 디지털콘텐츠 학생들이 무대 배경과 이미지를, 그리고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의상 디자인 제작을 각각 맡았습니다. 전형적인 산학협력이면서 융합작품입니다. 유료관객

2,160명, 공연수익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전공 학생들이 창작 뮤지컬 제작에 참여한 탓인지 전국의 언론이 일제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서대 산학협력으로 빛을 본 부산 북구 '구포만세 329' 지역맥주 재탄생 프로젝트



동서대 뮤지컬, 디지털콘텐츠, 패션디자인 학과 3개 전공 학생들의 합작품인 지역 창작 뮤지컬 '가야의 노래' 중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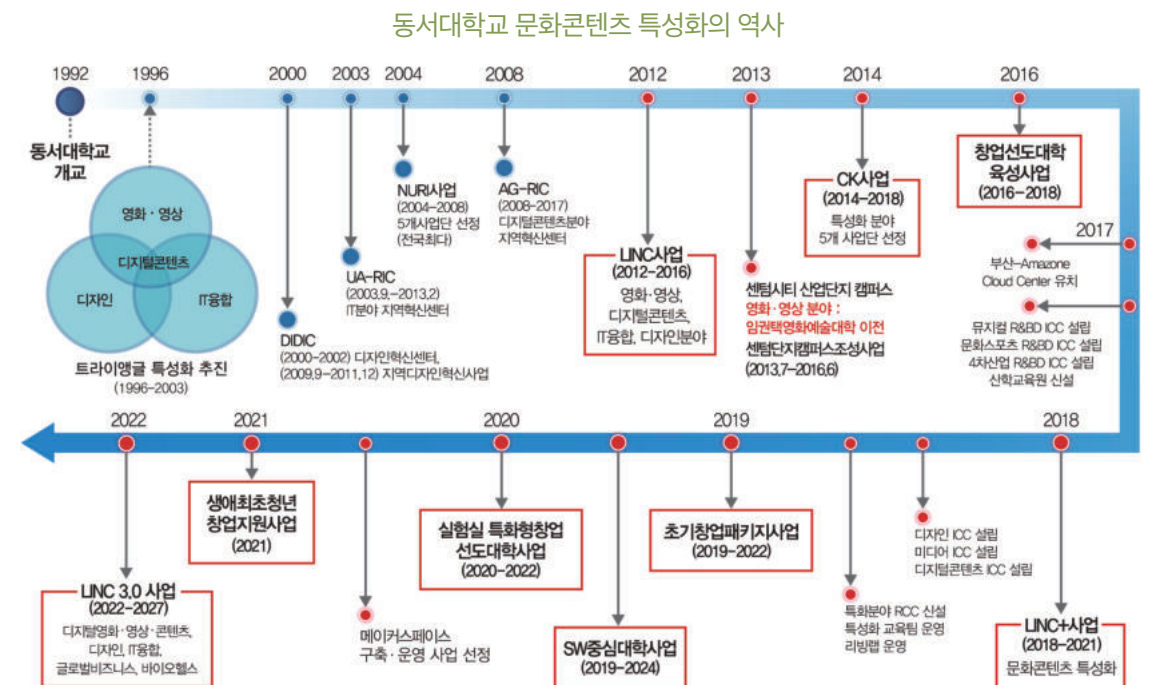
2. 문화콘텐츠분야 특성화 산학협력 모델 대학

동서대가 전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콘텐츠분야 특성화 산학협력 모델대학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서대는 올해로 설립 30년밖에 되지 않는 젊은 대학입니다. 대학 역사만 놓고 보면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에 관한 가장 돋보이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동서대는 부산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독창적인 산학협력 대학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창업기지로,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그리고 문화콘텐츠 중심 대학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2012-2016 LINC, 2017-2021 LINC+)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앞으로 6년간 LINC3.0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분야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패키지사업(2019-2022),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2020-2022),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2020-2022), 그리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2021) 등 여러 창업지원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전 창업 프로그램 운영대학으로, 그리고 동남권 창업 허브대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3. 동서대 산학협력의 바탕 '3H와 3G 교육정신'

청년 동서대가 하루아침에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 대학이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서학원 설립자인 장성만 박사의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숨어 있습니다. 장성만 박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60년대경에 이미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국에 돌아가면 고급 기술자를 양성하리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리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기술 인재론’이 서른 살 동서대를 오늘날 산학협력에 관한 한 최정상 종합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서대의 교육 목표는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입니다. 이른바 3H(Head, Heart, Hands) 교육철학입니다. 장성만 박사의 3H 교육은 박동순 전 총장에 의해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중시하는 3G 교육으로 발전합니다. 오늘날 동서대가 지향하는 산학협력을 통한 문화콘텐츠 모

델대학은 바로 이 3H와 3G 교육정신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4. 동서대 산학협력의 7가지 차별성

동서대는 몇 가지 점에서 여느 대학과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특성화 분야가 명확한 대학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영화·영상, 디지털 콘텐츠·정보기술(IT),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 집중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적어도 이 세 분야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소수 특성화 전공에 집중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입니다. 여느 대학들의 백화점식 프로그램 교육방식과는 다릅니다.

둘째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교수진을 구축하는 대학입니다. 동서대는 살아있는 현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영입합니다. 한국의 다른 대학들이 이론에 비중을 두는 데 반해 동서대는 현장 실무형 교육을 중시합니다. 동서대는 적어도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갇힌 교육이 아닌 현장 필드형 교육을 추구합니다.

셋째는 지역 최고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동서대가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을 주도하는 배경

에는 고가의 인프라가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 기업이 갖기 힘든 고가의 장비가 동서대 캠퍼스 곳곳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동서대를 찾는 많은 외부인들이 시설 인프라에 놀라곤 합니다. 학생들은 이 인프라 위에서 제품을 기획, 개발, 사업화, 창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학생 창업가가 지역 최고의 산학협력 인프라 속에서 탄생합니다.

넷째는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모델 대학을 추구하는 대학입니다. 동서대는 4차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 특성화 대학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유연산학교육시스템’입니다. ‘유연산학교육시스템’은 한마디로 산업 간 융합교육, 취업과 창업교육, 비대면 글로벌 산학협력 교육, 산학학점포제와 클래스셀링 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동서대가 추구하는 ‘유연산학교육시스템’은 융합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장점입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에 힘입어 동서대 학생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각종 콘테스트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광고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세계 광고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클리오 어워즈(CLIO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Award)에서 지난 7년간 모두 16개의 작품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동서대 학생들이 일군 이런 성과는 국내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대학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생각을 디자인하는 방법(Design Thinking)을 통해 학생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동서대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D.School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학생들에게 창의적 발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해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동아리 발굴과 육성, 그리고 창업경진대회 개최와 같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합니다.

여섯째는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을 추구하는 대학입니다. 동서대는 뛰어난 산학협력 교육모델과 대학 내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례캠퍼스를 중심으로 디자인과 마케팅,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대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센텀캠퍼스가 있는 동부산권에서는 뮤지컬과 VR/AR 기업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스



실무경험, 현장학습을 위한 동서대 최첨단 산학협력 교육인프라



동서대 광고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세계 광고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클리오 어워즈를 수상했다.



동서대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지난 7년간 모두 16개의 작품이 수상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마트퍼포먼스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수제 맥주 '구포만세 329' 브랜딩과 디자인은 동부산권 상생 모델에서, 창작 뮤지컬 '가야의 노래'는 서부산권 상생 모델에서 얻어진 성과물입니다.

일곱째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全) 주기적 창업 지원을 해주는 대학입니다. 창업의 단계에 따라 짝을 띄우고,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이른바 '띄움-키움-피움'으로 창업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 6년간 모두 123개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대의 이런 교육 모델은 정부로부터 우수 산학협력대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수한 링크(LINC)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또다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에 선정되어 앞으로 6년간 28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아탑에서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신

동서대의 다음 목표는 국내 Top 5에 드는 문화 콘텐츠 특성화 대학입니다. 문화콘텐츠 특성화를 통해 10년 안에 국내 최정상급의 산학협력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발전계획의 핵심요소로 최근 기술투자와 기술사업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기업가형 대학'을 선언했습니다. '기업가형 대학' 모델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기업가형 대학'은 공허한 이론에 갇힌 상아탑 대학을 벗어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기술과 연구개발, 그리고 경영과

지역사회 산학협력 성과 확산 : Two-Zone 프로젝트

Zone 1 주례캠퍼스 중심 : 이음(이어지는 마음) 프로젝트



문화콘텐츠 확산 이음

서부산권 콘텐츠에 동서대 특성화 분야 기술을 적용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지역주민과의 이어지는 마음 구현



도시재생 이음

서부산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통해 지역간 이어지는 마음 구현



삶의 질 향상 이음

서부산권 지자체, 지역사회봉사기관, 기업이 연계하여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다양한 계층간의 이어지는 마음 구현



Zone 2 센텀캠퍼스 중심 : 함세(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프로젝트

배리어프리 함세

장애인 직업육성 프로그램 및 차별없는 디자인 제안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



스마트관광도시 함세

IT융합 MICE기술 등을 적용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방문객에게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



스마트퍼포먼스 함세

VR/AR, 인공지능, IoT 기술을 문화콘텐츠에 적용하여 지역 기업 및 지역주민에게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



동서대학교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 2030



시장이 함께 펴떡이는 '기업 같은 대학'입니다. 기업가형 대학의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인력양성과 특성화 분야 산학협력 기술혁신 고도화'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실행전략으로 '산학협력 체제 고도화', '미래산업 선도 인재양성', '산학협력 성과 Value-up'을 추진합니다.

동서대는 이전 LINC 사업을 통해 특성화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산학협력의 성과를 기반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6년 동안 약 28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LINC3.0 사업 그 중심에 기업협업센터(ICC)가 있습니다. ICC는 한마디로 기술중심의 '기업가형 대학'을 움직이는 전진 기지이자, 심장부입니다. 기술중심 대학의 심장부 ICC는 실감 융합콘텐츠, 시각기반의 디자인 혁신,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관광콘텐츠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 가동됩니다. ICC는 영상·영화, 디자인, 관광 등 지역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 센터입니다. ICC는 동서대의 지식자산이자 부산·경남지역 산업의 기술자원이기도 합니다. 서른 살 청년 동서대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의 최고 문화콘텐츠 대학을 향해 힘찬 닳을 올렸습니다. '기술 명문', '산학 명문', 그리고 '콘텐츠 명문'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다운 프로필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동서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의공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서대학교 임용 이후 다수의 산학공동연구와 NURI, UA-RIC,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창업선도대학,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산학협력단부단장, 창업교육센터장을 거쳐 현재 창업지원단장과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다.

‘기업 니즈’ 잘 살펴 혁신 도모 부산 재도약해 ‘한국의 워털루’ 되길



이영환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들어가며

‘지방의 시대’를 모토로 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최초로 신설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전국 지역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바람이 실 천과제에 담겨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엿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정책은 ‘서울·부산 양대축’과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이다.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남부경제권을 육성시키고 부산은 서울과 같은 수도 개념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중앙정부 규제의 유예·면제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이런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부산이 자체적으로 주력산업과 관광·마이스, 물류 등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고부가가치화시켜 나가려는 것은 물론 4차산업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원의 균등 배분이 아니라 공정

한 기회 부여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점이 있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해 지역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산학(地産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5년은 부산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시기이기에 부산경제의 현실을 타개할 정책자산 중 하나인 지산학 협력에 대해 지역상공계가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1. 부산경제의 현주소

지난해 부산을 연고로 한 KT 농구단이 수원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스포츠 구단이 연고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드물다. KT 농구단은 수원 KT WIZ 야구단과의 통합 운영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서 기업의 마케팅적 관점에서 부산의 매력력이 떨어졌던 것은 아닐까?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한 과거의 부산과 현재의 부산이 기업의 눈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2도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부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매년 발표하는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의 수는 29개사이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금속, 자동차, 기계, 신발 등 제조업이 11개체, 건설업, 금융 보험업, 운수 창고업, 도소매업 등 비 제조업이 18개체를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업체수가 43개에서 14개 감소했다. 10년 동안 지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2020년과 2010년 부산기업의 업종별 현황의 구성비가 대동소이하다는 데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구조가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부산의 산업구조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 등의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산업계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블록체인, AI, 사물인터넷, 바이오, 반도체 등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후장대형 산업을 가진 부산으로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속도감 있게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고, 과거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경기도는 SK하이닉스와 약 120조 원 규모의 SK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인천 송도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에 선정되는 등 4차산업의 지역특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모습이 부산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부산의 인구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때 400만을 바라보던 지역인구는 330만마저 무너지기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8월 기준, 특별·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에 진입해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유출이다. 지난 10년간 부산을 떠난 인구 중 2030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이탈은 인재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시대에 지역기업들의 구인난을 불러오고,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야기시켜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검으로 자른 알렉산더 대왕처럼, 달걀을 깨트려 세운 콜럼버스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경제의 현실과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지산학 협력이다.

2. 부산경제의 재도약, 지산학 협력에서 해결책을 찾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위털루는 블랙베리를 개발한 리서치인모션(RIM)을 비롯하여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는 IT 핵심도시이다. 인구 10만의 이 조용한 마을이 세계적인 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위털루 대학교, 더 정확하게는 코업(Co-op) 프로그램을 통한 지산학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과정의 절반 이상을 지역 기업체에서 인턴십으로 이수하여 실무경험과 현장 적응력을 갖추게 되고, 기업은 이들을 채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코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등 산학협력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한다.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조성되자 위털루 지역은 창업이 활발하고 기업들이 모여 정착하는 혁신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위털루의 지산학 협력 모범사례는 산업구조, 인구 등 다방면에서 절박한 현실에 놓인 부산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제시되어 왔던 산업구조 개편,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대기업 유치, 인재 육성 등에 있어서의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역시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털루의 사례는 부산이 살펴봐야 할 새로운 대안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부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긴밀히 교류하여 학업지식과 현장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기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인력 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

지역이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기업에 이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같이 지역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 연구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산학 연구협력 활성화는 기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고착화된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해지는 것이 지산학의 핵심이다. 기존 산학협력의 개념 속에서 지자체는 산·학을 매칭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산학 협력체계 하에서 지자체는 단순 매개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발전의 미래 청

사진을 제시하는 적극적 참여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산학 협력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장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역외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여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삼성·LG·SK 등 수도권의 대기업들은 첨단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역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기업별 인력수요가 각양각색인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결시켜 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혁신이 절실한 부산이 신속히 부산형 지산학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거점으로서 '한국의 위털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부산상공계 현장의 바람과 제언

부산은 지난해 부산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개설하고 기존 산학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산학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 산학협력 체제에서 대학은 공급자 역할만 했고 기업은 최종 소비자 역할만 했다. 특히 대학은 산학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에 매몰되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희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상공계 입장에서 산학 협력의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와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다.

실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조사한 '2021년 부산지역 산학협업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의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과 후속 기술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부산 스타트업데이 99도' 행사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 간에 산학협력 저해요인으로 대학 보유기술과 기업 수요기술 간 불일치가 가장 높았고 기업과 대학을 연결·매개하는 기능 부족이 뒤를 이어 기존 산학협력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에 소통이 긴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을 갖춰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원하는 것은 크게 기술과 인재 두 가지다. 먼저 기술과 관련해 기업들은 4차 산업, 친환경 등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싶어도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필요한 기술을 알아도 어느 대학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현재는 일일이 대학을 접촉해 필요한 기술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부산 스타트업데이 99도' 행사를 개최했다. 물이 끓기 전의 온도 99도에 지역 상공인들이 1도만 보태면 스타트업이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취지의 행사다. 이 행사에는 스타트업 8개사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2세 경영인 120명이 참석했다. '부산 스타트업데이 99도'는 그동안 각개전투(各個戰鬪)를 하던 투자기관과 스타트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진출을 희망하고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기업이 한곳에 모임으로써,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기업이 지산학 프로젝트에 바라는 것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이 보유하고, 연구 중인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대학의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을 쉽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대학과 기업이 함께 나서야

지역 기업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청년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어렵게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해 기업들은 인재 채용과 육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이 대학에 원하는 것은 지역산업과 기업의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상공계도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지역 MZ세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부산 MZ세대 구직자가 가장 원하는 취업 지역으로 부산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기업들도 지역인재들에게 기업을 알리기 위해 대학과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현장 실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MZ세대의 니즈에 맞는 기업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산학협력센터 지역혁신의 터닝포인트 되기를

상공계가 지산학협력센터에 거는 기대도 크다. 센터는 7개 전략산업 분야별 거점·협력 Branch를 올해 5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R&D 지원사업, 중위기술 현장해결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또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문단 운영, 기술 매칭데이 행사 개최 등 교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센터가 정상적으로 정착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상공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산·학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혁신의 선순환구조가 갖추어지면 침체를

반복하던 부산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지산학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가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은 기술연구의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역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인재양성 역시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산학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산이 야심차게 준비한 지산학 프로젝트가 지역에 잘 정착해 대한민국 산학협력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영환 프로필

부산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산시 공보관, 경제산업실장, 정책기획실장,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부산외국어대 석좌교수, 국립부산과학관 초대 관장을 거쳐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02

편집자 주

3월 25일 경부울문화연대가 '지역문화 분권'의 가치를 내걸고 결성됐다. 100명이 훨씬 넘는 부울경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선결 요소가 문화분권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고 공감했다. 또 이들은 “경부울 문화연대라는 명명은 원래 부울경 행정구역의 원뿌리가 경남이었기에 문화로 하나 되기를 기대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연구 특집 2

문화분권과 시민 문화 향유

01 총론 : 경부울 문화연대와 방향성

제대로 된 경부울 동남문화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남송우

02 경부울 문화분권 현실과 발전 방안

경부울 광역·기초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해 협력 강화해야

조정운

03 도시재생과 경부울 문화도시 전망

시민 거버넌스 구축 큰 성과... 광역·기초 지자체 연계 강화를

고윤정

04 경남 문화 정체성과 문화분권

'개방성'과 '민중정신' 바탕으로 문화 주체 우선한 정책 펴야

김경복

05 울산 문화 정체성과 문화분권

공업화로 외지인 유입 많은 '노동자 도시' 변모... '이중성'이 특징

안성길

지역연구 특집 2 총론 : 경부울 문화연대와 방향성

제대로 된 경부울 동남문화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남 송 우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



1. 왜 문화분권과 경부울 문화연대인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문화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인류문화사를 통찰하면서 인간이 지닌 문화력이 인간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추동한 선진 민주국가의 발전의 토대는 그 나라 시민들의 문화력이었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경제대국의 밑바탕에도 한층 더 높은 문화적 지수가 작동하였음을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정치, 경제가 한 나라의 발전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성원이 내장한 문화력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소위 한류문화로 통칭되는 한국문화의 현재적 열풍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국 사회의 현 문화 상황의 민낯과 대면하게 되면, 한류의 열풍에 취하고 있을 때만은 아님을 알아차리게 된다. 한반도 전체의 문화판은 수도권 중심주의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오

직 서울 공화국을 위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한 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는 유일하면서도 기형적인 이상한 국가로 변했다.

어떻게, 이 기형적이고 해괴한 모습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성형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유일한 길은 지역분권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지금 동남권을 함께 묶어 분권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분권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권의 실현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영역의 논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울경이 온전한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차원의 통합 이전에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문화적 연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생각하는 주민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한다. 무엇으로 가슴 뛰게 하는 실질적인 통합의 동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뜨거운 가슴 없이 하자는 통합은 온전한 통합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통합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런 일을 감당할 최적의 영역이 문화·예술·인문학이다. 경제·산업·물류·교통부터 해놓고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선행되어야 할 본질적 요소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화의 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이러한 중앙과 지역의 주종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부울 문화연대를 시작으로 모든 지역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역 정체성에 토대를 두고 지역문화분권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부울 문화연대를 결성하고자 한다. 경부울 문화연대라는 명명은 원래 부울경 행정구역의 원뿌리가 경남이었기에 문화로 하나 되기를 기대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인식이 바탕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연대에는 문화예술, 인문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문화분권자들이 함께 하길 기대하며, 문화예술 전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문화융합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경부울 문화연대는 기존의 서울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모든 문화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주도하면서, 경부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지역문화분권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의 서울 중심의 모든 문화단체들은 지금까지 지역문화단체들을 지회 혹은 지부로 치부하며 주종의 논리로 운영되어 왔다.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수평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조직이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문화의 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이러한 중앙과 지역의 주종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부울 문화연대를 시작으로 모든 지역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역 정체성에 토대를 두고 지역문화분권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이 온당한 한국문화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며, 새로운 동남권 문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의 문화전략의 문제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분권은 결과적으로 서울 공화국만 살찌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중앙집권체제의 정치권력에 맞 들인 정치지도자들의 그동안의 흰소리를 탓한들 무엇하랴.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진 국민의 의식을 온전히 씻어내기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까? 온전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분권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부울은 지난 2021년 4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2022년 3월 18일부터 경부울은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부울은 행정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9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고시함으로써 부울경특



전해철 행정안전부 전 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2년 4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별연합이 출범했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하되 사무별로 규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정해졌다.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의장은 구성 지자체장 중 1인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 4개월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경부울이 하나의 동남권으로 지역분권을 새롭게 일어나갈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갈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온전한 지역분권은 온전한 문화분권이 현실화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통해 4대 공동체 전략, 8개 분야의 40개 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4개 공동체 전략은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전략이다. 이 중 관심이 가는 영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전략이다. 아무리 행정, 생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더라도 문화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민의 현실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공동체 전략을 살펴보면, 문화의 본질적인 차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된 전략은 ①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 ②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③동남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④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벨트 조성 등이다. ①은 유치를 추진 중인 월드엑스포 행사를 겨냥한 것이고, ②는 동남문화

권이 지향해야 할 한 지점이며, ③, ④는 관광을 위한 전략이다. 이는 철저히 현실적이면서 관광에 치우친 전략이다. 동남권 문화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문화와 관광은 서로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을 목적으로 문화가 수단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문화전략은 지역문화의 토대를 제대로 형성하기 힘들다. 긴 안목에서 문화를 인식하고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전략을 세울 때, 그 문화가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관광상품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래야 경부울 지역문화가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격상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오직 관광을 위한 급조된 문화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동남문화권 형성을 위한 전략은 출발부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금 현재의 경부울 문화의 정체성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경부울은 원래 문화적으로 한 뿌리였다.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삼분된 것이다. 삼분되면서 경부울은 각 지역마다 삶의 토대에 근거한 문화의 양상이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어촌, 산촌, 농촌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역과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경부울 문화 자체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문화 민주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부울이 지향해야 할 동남문화권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문화를 모델화하는 선이 아니라,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동남문화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방향성을 설정해

야 한다. 그래야 명실공히 동남문화권을 통해 지역분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문화전략의 수립을 행정에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경부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기관이나 단체의 현장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과 역량을 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문화를 향유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이며, 현재의 문화향유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선에서 문화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는 지금 나와 있는 문화적 전략이 경부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지성의 논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문화의 시대에 문화적 전략수립은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자체의 문화 행정의 구조 속에서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경부울 연구원의 문화 전략 수립은 그 토대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문화전략의 수립을 행정에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경부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기관이나 단체의 현장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과 역량을 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향유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이며, 현재의 문화향유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선에서 문화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급조되는 문화전략은 결국 경부울 지역문화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정치논리에 함몰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문화전략은 문화논리에 의해 수립되지 않으면 문화다운 문화를 정립하기가 근본적으로 힘들다. 경부울 동남문화권 형성 과정이 현장문화활동가들과 문화향유를 주도하

는 경부울 지역주민의 문화논리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경부울 동남문화권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한국의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낳은 적폐의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이다. 이는 일극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다극주의의 지향이며, 온전한 지역분권을 통한 삶의 진정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길이다.

그런데 이의 실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이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법적인 토대는 갖추어졌지만, 이미 관성화 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 각각의 자치행정을 허물고 새로운 부울경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그렇게 손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너무 정치, 경제적인 관점으로만의 접근이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 각각 나뉘어져 있던 부울경의 관행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부울경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지역 자치를 통해 일구었던 자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승화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요소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적인 가치와 지향을 추동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따로 있다. 그것이 문화력이다.

그러면 문화력의 어떤 부분이 공동체를 하나의 가치와 온당한 지향점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문화가 지닌 공감력이다. 문화의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문화란 동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총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공유하면 할수록 공감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는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예술문화는 이를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다. 보편적으로 예술문화의 창작자들이 향유자를 향한 공감대의 형성을 근원적으로 지향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예술문화의 다양한 양상과 작품들은 일차적으로 인간이 지닌 감성을 건드려 공감의 진원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지닌 공감적 참여의 좋은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점이다. 공감적 사유의 공유와 그 실천 없이는 온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현이 힘들기 때문이다.

공감적 세계인식은 자율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맥을 같이 하며, 이 체계이론은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지닌 이러한 공감적 성향은 꾸준히 연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마를 위한 하나의 좋은 매개가 문화예술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늦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의 공공 문화기관들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경부울에 산재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느슨한 연대로부터 끈끈한 연대로의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산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미 협약을 맺은 바를 토대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

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우선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일이다. 공유를 통해 함께 협력해야 할 지점과 문제점을 협의함으로써 경부울 문화권(동남문화권)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부울 문화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부울 문화프로젝트를 완성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문화재단이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바탕 위에 새롭게 열려질 경부울 문화권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여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재단 정책팀이나 기획팀이 상시적으로 만나 빠른 시일 안에 <경부울 문화비전 2030> 기초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부울 전 지역 시민들의 온전한 문화권 향유를 위해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추동하고, 이와의 긴밀한 연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부산에는 금정구와 부산진구, 경남에는 창원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창문화재단, 울산에는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준비 중)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정도의 기초문화재단 설립으로는 경부울 지역 전체의 문화진흥을 제대로 일구어 나가기 힘들다. 최소한 경부울 지역 시군구에는 하나 이상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경부울 문화분권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경부울 각 문화재단 정책팀이나 기획팀이 상시적으로 만나 빠른 시일 안에 <경부울 문화비전 2030> 기초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부울 전 지역 시민들의 온전한 문화권 향유를 위해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추동하고, 이와의 긴밀한 연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부울 문화분권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문화기관이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사를 점검해보면, 한국문화진흥을 위해 제일 먼저 설립된 단체가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사의 영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체이다. 관변문화 창출의 원천이었다. 문화재단이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이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진행, 실버문화 페스티벌 운영,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은 문화재단과 같이 광역문화원 조직과 지역문화원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문화원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다. 진정한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본부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해체하고, 각 지역이 수평적으로 평등한 연합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소위 중앙의 한국문화원에서 모든 예산과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지역문화 분권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역문화원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일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수용층의 욕구에 따라 문화재단이 관장해야 할 것과 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분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부울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화원 수가 문화재단 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점은 이들의 관계 정립이 그만큼 큰 과제임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큰 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산에는 14개의 문화원이, 울산에는 5개의 문화원이, 경남에는 20개의 문화원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원을 방치해 두고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경부울 전체 문화의 미래 조감도를 그리고 실현해 나가기에는 많은 결락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문화원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경부울 지역문화의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프로그램이나 문화기획의 역량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문화원의 체질을 바꾸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협력과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해본 적이 없기에 경부울 지역에서는 기존 모든 문화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부울 동남문화권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정립과 협력체계 구축은 선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경부울 지역에 세워나가야 할 시군구 기초문화재단의 설립과 기

존 문화원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경부울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현실 대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부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해서 문화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경부울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연대 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인 문화기관들이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협력체제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언제나 현실과는 거리가 생기는 문화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송우 프로필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로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한국문화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운동주 시에 나타난 자기의 문제』가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평론집 『전환기의 삶과 비평』(1981), 『다원적 세상보기』(1994), 『생명과 정신의 시학』(1996), 『대화적 비평론의 모색』(2000), 『비평의 자리 만들기』(2007), 『이것저것 그리고 군더더기』(2008)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경부울 광역·기초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해 협력 강화해야



조 정 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1. 지역의 문화 권리 확보를 위한 문화분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文化權, cultural rights)'을 가진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헌법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¹⁾ 아쉽게도 우리의 국가 문화정책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추면 문화기반시설 인프라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격차(隔差)'가 엄연히 존재한다. 즉, 문화예술의 인프라, 생산, 소비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중앙-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분권' 이슈가 이제 지역문화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분권(分權)이라는 용어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만이 문화분권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문화진흥의 정책적 관점에서 본 ‘문화분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에 대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율성과 자치에 대한 요구이다. 지역 내 문화 생태계의 자율성, 주체성, 분산, 거버넌스, 권한위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문화분권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문화권역의 ‘협력과 공생’을 통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문화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 확보가 문화분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 권리 확보를 위한 문화분권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 정부울이라 불리는 경남, 부산, 울산이다. 본 고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울의 문화분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도권 대비 경북울의 문화 인프라 현황

정부를 문화분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전 우선 일차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의 문제는 제기해야 할 것 같다. 매년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²⁾의 데이터와 통계가 뒷받침하듯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인구 백만 명당 미술관 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부산, 울산, 경남은 서울, 경기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미술관 총 271개소 중 경기(54개), 서울(47개)

순으로 많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바로 문화 인프라의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는 인력과 관객을 포함하는 휴먼웨어, 소장자료의 소프트웨어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문화재단 역시 예산, 인력,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부산, 울산, 경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래의 표 '수도권, 경부울 광역문화재단 현황 비교'를 통해 특히 휴먼웨어인 인력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 문화기반시설 총람 중 수도권 대비 경북울의 미술관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비교

지역	미술관 수	직원 수	학예직원 수	소장자료	연 관람 인원
서울	47	615	218	27,000	2,111,586
부산	8	142	36	4,674	303,699
인천	5	43	15	11,539	27,863
울산	-	-	-	-	-
경기	54	1028	233	28,307	1,471,069
경남	10	121	32	8,504	137,394
수도권	106	1,686	466	66,846	3,610,518
경부울	15	263	68	13,182	441,093

1) 관련된 내용은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토론회(2021. 12. 6.) 자료집 중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 문화격차’ 발제문(조정윤)을 참조 바란다.

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은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시설 현황을 총정리한 것으로,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중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예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다.

수도권, 경부울 광역문화재단 현황 비교

재단	조직현황	직원 (정규직/ 무기 계약직 등)	예산 (단위:억)	사무실
서울	2실 5본부 22팀 11단위 조직	222	597	자체(2367.41㎡)
부산	1센터 1실 2본부 9팀	63(35/28)	391	무상임대(723.34㎡)
인천	2실 1본부 2부 2센터 3관	82	269	자체(808.4㎡)
울산	1실 1본부 4팀 1추진단	25	153	임대(503.44㎡)
경기	2관 1실 3본부 7소속기관 1지원단	432(195/237)	481	자체 및 무상임대 (5772㎡)
경남	3본부 7팀 3센터	67(50/17)	429	무상임대(235.32㎡)
	수도권	736	1,347	
	경부울	155	973	

예산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예산 대비 직원 수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역문화 생태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재단의 부족한 직원 수는 문화행정 서비스의 저하, 비정규직 양상, 전문성 부족 등 조직 안정화의 저해를 가져온다. 한편, 지역문화의 싹틔움 역할을 하는 기초문화재단 역시 서울 22개, 경기 21개,

인천 3개에 비해 부산 2개, 울산 2개, 경남 9개 등 수도권에 비해 열세를 보인다.

다만,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표방하는 최근의 지역문화 정책 동향과 발맞추어 풀뿌리 문화를 상징하는 생활문화 거점시설인 생활문화센터가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 경부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발성과 주체성을 위한 정책이 생활문화센터 확대로 나타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부산, 경남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설치 현황만 보면 문화자치를 위한 시민문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3. 경부울 문화재단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800만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해도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 요구는 법에 보장된 문화 권리이다. 또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수도권 문화집중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왜곡될 수 있

는 국가 문화정책의 오류를 지적해야 한다. 문화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과 연대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함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의 동향을 보면 개별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협업에서 기관 간 조직 차원의 네트워크로 확장이 이어진다. 서울, 경기,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팽창과 함께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경부울 지역은 타 권역에 비해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우선,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을 뿐 아니라, 광역시와 광역도의 행정 권역에서 오는 기초문화재단 설립의 온도 차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의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는 우선하여 광역·기초의 경계를 넘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4. 경부울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협력의 확대

경부울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은 정책과 사업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적인 연대와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상시적인 문화정책 이슈 공유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경부울 정책 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형식을 빌려 연구조사 활동을 공유하며, 각 재단이 보유한 정책 매체(이슈페이퍼, 소식지, 웹진) 등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현안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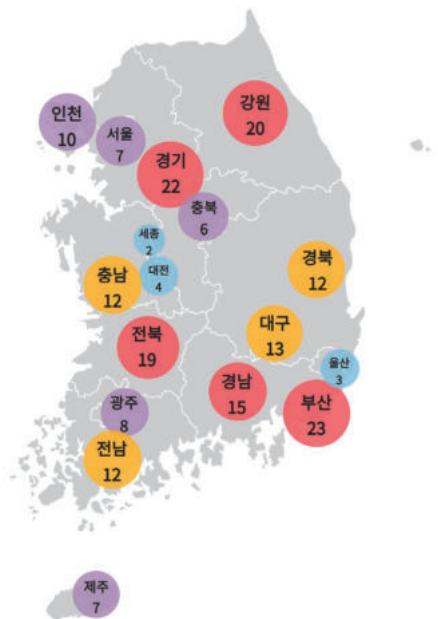
로 정책 이슈를 공론화하는 장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정례적으로 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정책 이슈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한광연·전지연문제부에 주기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경부울 광역·기초문화재단, 경부울 문화연대 등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은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인적자원 교류의 관점이다.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교류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요구는 광역·기초 실무자 통합교육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더욱 그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신속한 행정적 대처가 필요하며, 다방면에 걸친 상호 간 지식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을 권역별 광역·기초문화재단 통합 워크숍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인턴십 교류를 통해 양성하는 것도 인적자원 교류의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문화예술인 중심의 경부울 문화연대는 자생적, 지속적 교류를 위한 느슨한 연대로부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어젠다 중심의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공동 정책연구조사의 관점이다.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의 본격적 시행으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연구조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광역을 중심으로 정책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면, 기초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경부울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는 이러한 정책연구조사를 공동으로 실행해야 한다.

생활문화센터 전국 분포 현황(2021년 11월 기준)



예컨대, 경부울 권역별 예술인 실태조사 혹은 문화 트렌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부울 권역별 지역문화 자원의 동질성, 이질성 등의 결과를 도출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정책 및 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경부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부울 지역문화재단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로드맵 연구의 공동 시행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인적자원 교류와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협업의 관점이다. 예술창작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기초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역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 공연 예술 단체들의 창작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부울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해문화의전당, 창원 성산아트홀이라는 우수한 시설에 부울경 광역문화재단에서 육성·양성된 상주단체들의 연간 지속적인 공연 프로그래밍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부울 공동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설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같은 공연작품을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5. 문화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문화분권, 권한의 분산과 위임

‘경부울 우리는 왜 문화분권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며, 그 해답이 바로 문화분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향후 국가 차원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기저에 문화적 접근과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며, 격차 사회에 대한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결국 문화가 사회와 지역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경부울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이야말로 문화를 통한 사회와 지역을 통합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사명(mission)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략적으로 경부울 지역문화재단의 문화 생태계 간 권한의 분산을 통한 권한위임(empowerment)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 문화권역의 민간 생태계 주체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문화 생태계 주체들의 권한위임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역할 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중간 지원기구-예술가-시민들은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하며, 문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문화자치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부울 문화적 동질성은 행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더 크다. 문화자치의 주체는 경부울에 거주하는 800만 명 시민이며, 이들이 지역문화 창조의 주체이다. 시민의 자주성, 주체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행정은 그 기반 만들기과 지원 정책을 정비한다는 것이 곧 출범하게 될 부울경 특별연합 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화분권의 핵심인

주민의 참여, 자치 강화를 통해 문화생산·소비·분배에 있어 탈중앙화 및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해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경부울 문화분권은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공진(共進)의 경부울 지역문화 만들기이다. 또한, 문화분권은 더 이상 행정이 주도하는 정책 의제가 아니며, 분권을 위한 문화행정만큼은 통제와 규정이 아닌 자율과 책임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조정운(2022), 경부울 문화연대 결성식(2022.3.25) 자료집 중 ‘문화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문화분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내부 자료 ‘2022 광역문화재단 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조정운(2021),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토론회(2021.12.6) 자료집 중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 문화격차’
부산문화재단(2021), 문화정책이슈페이퍼 8~12호, 부산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조정운 프로필

필자는 영국과 일본에서 문화정책&예술경영을 연구한 후, 공공 영역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민간 공연기획사(PMG Korea), 지역문화재단(부천, 마포, 부산), 고양시 문화예술 전문위원으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민선 7기 부산시장 문화정책 보좌(문화정책협력관)로 파견 근무 후, 현재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한광연 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으로 복귀하여 지역 문화정책&예술경영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경부울 문화자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시민 거버넌스 구축 큰 성과... 광역·기초 지자체 연계 강화를

고 윤 정 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장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금까지 17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경부울 지역에는 부산 영도구, 김해, 밀양이 있고 본 도시 지정 전 단계인 5차 예비 도시로는 부산 북구, 울산, 창원이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을 토대로 2018년 5월 정식으로 문화도시 정책 추진이 공표되었다. 이후 지역별 창의적·혁신적인 지역성장과 문화균형발전을 견인하지는 취지로 문화도시 사업은 매년 고도화를 거듭 중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 중인 문화도시 2.0 논의의 내용을 보면 지정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문화도시 외에도 중소 단위 소규모 지자체를 (가칭) 문화마을 형태로 지정하지는 의견이 우세해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가치는 더욱 더 확산될 전망이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도시 간 과잉 경쟁과 줄세우기 평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다. 문화도시의 도시의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사회성장과 발전의 구

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문화 사업도 정부가 주관해 특정된 주제에 부합하는 단란 공모 사업이 주류였다면 문화도시의 지역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에 맞는 문화계획을 수립하고 5년 동안 장기 지원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졌다. 영도구만 하더라도 '사람·자연·역사를 문화로 잇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기존 하드웨어 건설의 도시재생 운영 방식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 참여 과정을 반영해 영도구 대평동 일대를 새롭게 조망한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 본 도시 지정 전에 성공리에 추진됐다.

이후에는 영도가 가진 다양한 도시문제(고령감 심화, 인구유출, 이미지 다각화, 해양생태 오염 등)를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미션으로 '예술로 이웃은 가깝게 아이들은 자라게, 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게' 등의 세부 미션을 설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문화도시 7곳 선정 포스터

활용 중이며 최근에는 문화도시 2025를 민관이 협력·설계해 공표했다.

또한 행정협력 구조가 긴밀해졌다. 그동안 지역에서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는 주로 제출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문화도시의 민간과 행정 간 협력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렇다 보니 지역에 맞는 다양한 문화조례, 고유사업들이 출현하고, 도시재생 등 관련 부서들과 공간 협력 사업이 용이해졌다. 김해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 전 실국장이 참여한 행정협의체를 발족해 문화부서 외에도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처 간 협업 사업을 추진 중이다.¹⁾

원주, 포항, 원주, 밀양 등에서도 도시재생 결과물로 만들어진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확보해 시민 및 문화인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추진해 공간의 쓰임새를 확장하고 있다.²⁾ 새로 공간을 건립하거나 리

모델링 하는 것 외에도 지역에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를 도모하는 커먼스 공간 전략도 도시별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민 거버넌스 구축은 문화도시 사업의 최대 성과다. 시민 추진위원회 형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문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시민 참여 리빙랩 구조로 다양한 시민 문화주체들이 발굴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시정 문화자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도 있다.

사실 기존 문화기관 내에서 시민은 사업 참여 대상으로 역할을 했을 뿐 협력자나 의사결정자로서 참여는 극히 드물었다.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중앙과 관 주도 형태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한 추진 방향으로 삼다 보니 시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문화자치의 기반을 도모한 부분에서는 성과가 크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삶과 도시의 기능에 관한 성찰이 깊이 있게 진행 중이다. 문화도시 사업은 그 어느 프로젝트보다 공론장을 자주 연다. 그만큼 질문을 서로 나눈다는 얘기가. 함께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도시를 지켜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묻는다. 질문을 나누면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모색한다.

이렇다 보니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로 지역을 종합하여 보는 도시 담론이 지역에 생성되고 있다. 솔직히 언제 우리가 도시 전체를 문화로 조망해 본 적이 있었나. 영도구만 해도 도시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도시 담

1) '도시 전체가 움직인다! 김해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57785>

2)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진달래관 소개 https://blog.naver.com/wonju_cc/222742032241



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 시민참여 사업 상상마당

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다 보니 자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도시의 다양한 성과들을 확산하고, 보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은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이다. 물론 문화자치 방향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성된 현장 정책들이 광역자치단체로 수렴되고 다시 재확산하려면 광역자치단체가 반드시 협력자로 나서야 한다.

현재 문화도시 준비 및 지정 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크지 않다.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광역 단위 예산을 일부 매칭하는 정도에 그친다. 문제는 모든 도시들이 반드시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도 없고 문화도시를 지정받는 것이 최종의 목

표도 아니라는 점이다. 즉, 모든 도시들이 문화도시의 가치를 가지고 지역 나름의 정책을 생산하고 문화예술인과 창의적 교류를 추진하며 시민들과 호흡해야 하는 것이지, 선정만을 위한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 문화도시 준비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선정을 위한 문화도시가 아니라 '찐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체계를 만들 준비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차 법정 문화도시의 문화특화조성사업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이때 시민들과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실험을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로드맵을 구성했다. 이후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이 토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도모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준비 과정이 사라졌다.



영도문화도시센터 기획자 학교 성과공유회

부산시만 봐도 기초자치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해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없다. 대부분 문화예산은 광역문화재단 추진 사업으로 위탁된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 형태로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내 기초문화재단들과 협업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³⁾

특히 생활문화나 문화예술교육 사업처럼 시민들이 참여하고 현장 기반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경우는 광역문화재단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광역문화재단은 광역단위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가야 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기초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유사한 문화권에 있는 경부울 문화도시 및 문화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 형식상네트워크를 넘어서 각 도시 간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문화권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정책과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으로 치

자면 경부울 문화도시 간 시민 협의체, 문화기획자, 예술인 등 부문별 교류들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는 공동 공모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인 간 교류는 중요하다. 부산 예술인이 부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역량 있는 창원 문화기획자들이 창원에서만 일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체계에서는 도시 내 거주하는 예술인과 기획자만을 대상으로 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을 넘나드는 창의적인 작품과 기획을 생성하기 어렵다. 경부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간 경계를 넘는 지원과 교류 사업이 필요하다.

최근 전남문화재단은 사회적 가치지향 프로젝트 참여를 공모할 때 도내·외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모집 폭을 열어 호응을 얻은 바 있다.⁴⁾ 물론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에게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경부울 단위에서는

3) 자치구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N개의 서울' https://www.sfac.or.kr/site/SFAC_KOR/05/10504040400002020060510.jsp

4) 전남문화재단, 사회적가치지향 프로젝트 참여 공모 <http://www.jncf.or.kr/jact/Board/35594/detailView.do>



전국문화도시협의회 포스터

시도해볼 만한 사업 형태다. 문화재단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실험 사업이 용이한 법정 문화도시끼리 추진해 볼 직하다.

마지막으로 법정 문화도시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폐해인 과도한 경쟁과 줄세우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정도시-비선정도시, 대도시-중소도시 간 컨소시엄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도시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인력난이 심하다. 역량 있는 기획자들이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지역 주도로 문화계획을 수립해 본 경험이 부족해 현재 문화도시 선정 경쟁체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경험을 가진 도시들이 정부를 내 중소도시와 주제에 맞는 컨소시엄을 맺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처럼 정부를 내 대

도시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상생전략을 적극
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문화자치는 문화도시에서
문화마을, 문화마을에서 문화읍면동으로 문화가
골목골목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문화가 지역
의 공기를 바꿀 수 있겠다는 점이다. 누구나 일상
기획자가 되고 누구나 도시의 미래를 문화적 방식
으로 상상하며 실천해 나가다 보면 공기가 바뀐다.
공기를 바꾸는 사건들이 정부을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시도를 해보자.

고유정 프로필

어쩌다 보니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었다. 교육·복지·마을 활동에 10년, 문화와 문화재단에 10년 일했다. 국민연금 20년 납부 차에 영도가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부산영도문화도시 센터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매일 질문하고 반성하는 삶을 산다.

‘개방성’과 ‘민중정신’ 바탕으로 문화 주체 우선한 정책 펴야



김 경 복 문학평론가, 경남대 교수

1. 왜 분권인가?

지역이 소멸해가고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인구 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에 이르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되면서 수도권권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들어가게 된다. 2067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다 2117년 쯤에는 수도권마저 소멸 위험지역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전망 앞에 우리는 놀여 있는 셈이다.

예전 중국 동진(東晉) 사람 도연명이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돌아가리라/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고 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하고 탄식하며 실제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로 남긴 바가 있다. 시골 고향을 지키는 노령의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폐허가 되는 이 현실에서 다 시금 이 시를 읽으니 몽클한 탄식과 함께 저미는 가슴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다. 도연명은 그래도 당시 무도하게 돌아가는 중앙 정치에 대한 환멸에 촉발하여 자신의 소신에 입각한 귀향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상당 부분 낭만적인 감성에 젖어 저러한 탄식을 내질렀다. 하지만 인구가 소멸하여 정말 폐

허로 변해가는 농촌의 지역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탄식을 내질러야 할 것인가! 환멸은커녕 체념에 더하여 암담한 공포에 질려 지구 종말을 맞는 심정에 가까운 표정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암담하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되는 까닭은 아무래도 저출산 현상의 확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출산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지 못해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이 뒤엉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웬만한 대안들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상당수 제기되고 실천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의 실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태로 암울한 하향곡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적 재화를 투입해도 굴러떨어지듯이 그려지고 있는 하향곡선의 기울기를 뒤집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직면하면 모든 인간들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위기가 지금의 예측대로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또한 내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의 이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미리 알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장 어떤 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성찰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된 것만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등 원인 분석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원인의 밑바탕에 중앙집중화의 욕망과 체제가 그러한 현상을 불러오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앙집중화, 다시 말해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는 거칠게 말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근대적 기획이다. 부정적 근대성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다양성과 고유성을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만 기여하는 것들로 모든 가치들을 재편해 놓았다. 그리하여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간은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여 정신적 자존감을 잃고 방향하게 되었으며, 삶의 가치는 오로지 물질적 부의 획득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인간의 몸에서 하나의 세포가 주변 세포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주변 세포들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가치를 없애버리고 하나의 세포로 덩치를 키워갈 때, 이것을 가리켜 '암세포'라 한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연을 파괴하고 오직 인간 중심주의로 지구를 재편하는 근대 이후의 문명 현실을 두고 생태학자들은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의 암세포란 말을 하기도

한다. 그것처럼 중앙집중화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 진행될 때는 발전의 효과로서 효율성을 발휘하겠지만, 이것의 관성은 근대적 기획이 보여주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없어 끝없이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여 오직 하나만 남는, 즉 자신만 남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변해간다.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과 순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흡수하려고 하면, 결국 다양성과 순환성을 잃어 자신마저 멸종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종말은 예견된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적절한 균형과 순환의 논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분권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필요와 당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이 지역 인구를, 특히 청소년들을 무한정 빨아들임으로써 지역에 노령 인구만 남게 하고, 지역의 삶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자신과 남이 모두 공멸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산과 공존, 즉 분권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왜 문화분권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일찍부터 인지하여 1991년도부터 지역자치제를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분권과 자립을 통한 지역 자치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대리기구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 사례를 두고 살펴보자면, 이번 2022년도 6월 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도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정책만 난무하여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실종되었다는 자조 어린 말



2022년 6월 4일 3·15의거기념관 뒤편 마산 오동동 통술진 골목에 있는 김주열 열사 등 의거 당시 목숨을 잃은 열사들 사진과 이력이 담긴 벽화를 보며 김원주 강사가 역사문화탐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들이 돌았다.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에 중앙당이 지지하는 인물이 아니면 안 되는 점이나, 지역적 특색에 따른 인물 선거가 아니라 당과 진영 논리에 따른 선거가 진행되어, 한 당이 전국을 싹쓸이 하다시피 한 매우 파행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 그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직 지역자치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그 제도 실행의 내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겐 뼈아픈 사실이다.

이렇게 지역자치제가 성숙해 가지 않은 부분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을 형식적인 체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분권을 하자는 취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토개발산업이나 지역계획사업 등 대부분의 정책이 전형적으로 물리적이면서 하향적인 접근이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이 불충분한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처음부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에 비해 분권화에 의한 지방정부는 지방의 자존권과 자율권

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등의 정책 수행을 가장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의와 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그 원래 취지는 왜곡되어 현재까지 지방분권 차원의 지역 정부는 중앙정부가 수행했던 기획과 책임을 위임받는 수준에서 중앙정부가 갖는 정책 결정, 재정, 행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수준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자립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은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를 띠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수평적 연대가 아니라 수직적 종속 관계 속의 지방분권은 그 지역의 자주성과 고유성을 여전히 살리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실제 상당 부분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의 진행은 비대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세계화로 인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작은 정부와 풀뿌리 정부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경제발전이 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셈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 기초한 생태주의 사상의 흐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즉 제 터와 환경에 기반한 정치체제가 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제 지역의 생명과 경제에 대한 밀착된 경영을 진행함으로써 지속적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 아래 진행되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지역자치체는 필요의 차원에서 정치적 분권화, 행정적 분권화, 재정 분권화의 부문을 현재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종속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아직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필자가 생각건대 그 근원적 이유는 분권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의 정치, 행정, 재정의 분권화로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자신의 삶을 편입시키려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분권화는 지역 자치의 본뜻이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왜 지역정부가 지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자치적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적 정치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을 떠나 중앙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로는 지역분권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생태계 질서의 파괴 측면에서나 수도권 집중의 혼란 비용의 증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분권에 따른 균형발전이 당대적 삶의 대이라 할 수 있다. 대의는 물질에 기반한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분권의 당위성이 문화적 차원의 정신적 가치를 담보해내지 않고 진행되었을 때에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낙후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 패배감에 빠지게끔 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현상에서 찾음으로써 물질적 가치로만 재편된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분권화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역 문화의 자치화, 지역문화의 개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분권화 수행은 지역문화를 담당하는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지역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분권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문화야말로 그 가치와 태도에 있어, 정치와 경제를 결정짓는 잣대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각 개인이나 나아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태도가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문화적, 정신적 가치의 고유성과 자주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정치와 행정, 재정적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분권화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자치화, 지역문화의 개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분권화 수

행은 지역문화를 담당하는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점에서 행정 당국에 의해 편의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를 구분하고 문화정책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문화 수행의 주체와 행정 당국이 같이 협의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생산/발굴하고, 유지/향유해 나갈 수 있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경남지역의 문화 정체성

한 지역의 지역성이 형성되는 것은 지리적 배경과 관련된다. 지리적 배경은 자연과 인문적 요소가 특정 장소에서 조합된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과 인간에 의한 변화 과정을 겪기도 한다. 경상남도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며 남해 바다와 접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남의 문화는 바다를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한반도 자체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낙동강하구와 남해안이 만나는 경남은 그 시작을 맞는 관문적인 자리에 위치함에 따른 지역적 특색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남은 내륙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남지역의 문화 정체성은 ‘개방성’이다. 이 개방성은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정신세계에 선진 의식, 즉 진취적 의식을 싹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취적 의식은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는 의식과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어 경남 지역민들은 불의에 맞서는 저항정신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근세 이후 경남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살펴보자면, 조선 후기 ‘진

주민란’(1862)과 ‘창원 농민봉기’(1862)를 필두로 하여, 개화기 때 침탈해 오는 일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마산에서 일어난 ‘마산포 구강장(舊江場) 수호운동’(1900), ‘구마산 해안 매축권 확보투쟁’(1906), 일제시대 삼진을 비롯한 경남 여러 지역에 일어난 ‘3.1 만세운동’(1919), 밀양 중심의 인물로 구성된 ‘의열단’(1919)의 민족주의 운동, 진주에서 일어난 백정의 ‘형평운동’(1923), 해방 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로서 마산 ‘3.15의거’(1960), 박정희 유신독재를 끝장내게 한 ‘부마항쟁’(1979) 등을 떠올려 볼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적 분기점마다 경남 지역민들의 의지를 드러낸 행위로 역사의 미래를 바꾸거나 요동치게 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민중의 입장에서 불의한 권력이나 제도에 저항한 경남지역민들의 의식이자 정체성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올바른 민중적 삶의 권리와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투쟁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경남의 문화 정체성은 (남해 바다의) ‘개방성’과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는) ‘민중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경남 전통문화라 할 수 있는 고성 오광대, 수영 야류, 밀양 아리랑, 영산줄다리기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남의 문화 정체성은 ‘민중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경남 전통문화라 할 수 있는 고성 오광대, 수영 야류, 밀양 아리랑, 영산 줄다리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외된 약자로서 민중의 정신과 정서를 표방하는 놀이문화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민중정신이 약자를 억압하는 무도한 세력에 대해 저항정신으로 발전하게 됨은 당연한 현상이다.

근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민중정신은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당대의 현실의 모순과 한계에 직립하여 그것을 반영하고 역사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리얼리즘 정신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문학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완연히 나타난다. 소설 분야에서 보자면 경남과 분리되기 전의 부산 출신인 요산 김정환의 소설이 그러하고, 하동 출신의 이병주와 사천 출신 정동주의 소설이 그러하다. 시 분야에 있어서는 통영 출신의 유치환과 마산 출신의 권환, 김용호, 정진업, 정규화, 이선관 시인이 그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고, 후배 세대로 보자면 백무산, 정일근, 오인태, 성선경, 이웅인, 표성배 등이 그러한 추세를 이어받고 있다. 지역적 강세를 보인 시조 분야에서도 현실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이은상이나 김상옥을 비롯한 이달균 등 여러 시조 시인들의 작품에서 리얼리즘적 경향을 강하게 볼 수 있다.

또, 개방성은 문화에서 늘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경남 문화의 정체성으로 실험적인 모더니즘 문화가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 문학의 경우로 볼 때에는 실험적인 시풍을 보여주었던 통영의 김춘수와 사천 출신의 조항 등이 보여주었던 초현실주의 운동이 그러하고, 미술에서 통영 전혁립 화가가 보여주는 강렬한 색채의 추상적 그림이나, 조각에서 세계적인 거장이 된 마산의 문신 조각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반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남지역은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등 조계종의 대가람을 두고 있는 곳으로 불교적 사색과 실천이 강한 곳으로 볼 수 있고, 남명 조식의 학파를 계승하여 실천적 유학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

지, 거제와 남해의 절경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고장이기도 하다. 이런 곳을 배경으로 하여 철학적이면서도 생태지향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경남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문화분권은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문화 주체성을 확보하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문화분권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삶의 가치가 중앙집중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터에 기반한 자생적, 자족적, 그리고 공존적 삶의 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경복 프로필

경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계간 시전문지 《신생》 편집주간,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199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및 같은 해 계간지 《문학과 비평》 평론 신인으로 등단. 저서로는 『풍경의 시학』, 『한국 아나키즘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 『서정의 귀환』, 『생태시와 녀의 언어』, 『시의 운명과 혼의 형식』, 『한국 현대시의 구조와 의식지평』, 『시와 비평의 측기』, 『연민의 시학』 등이 있다.

공업화로 외지인 유입 많은 ‘노동자 도시’ 변모…‘이중성’이 특징

안 성 길 시인·문학평론가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밝힐 수 있는 성질(다음 백과)이다. 달리는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이다. 이는 본디 영어 단어 ‘확인하다(identify)’라는 말에서 유래된 걸 감안하면, 자기가 아닌 남에 의한 확인과 증명을 통해 주로 형성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울산지역’이란 범주로 좀 더 가까이 당겨 관심사인 그 ‘문화 정체성’을 들여다본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지역으로서의 울산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울산의 문화 정체성을 살핀다. 또한 그것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문화분권이다. 하여 이 글 후반부에선 울산지역 문화분권의 방향을 좀더 세심하게 살피기로 한다.

여기서 울산지역의 최근 모습을 다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지난 2007년에 필자와 시인 오창현의 공동연구로 작성된, 기왕의 울산의 지역문화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프로젝터의 보고

서¹⁾ 일부를 상당 부분 활용하고 때로 참고하며 전개한다.

1. 지역으로서의 울산과 문화 정체성

사람이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한다. 생은 대자연의 신비로운 이법에 따라 그 일부로 오직 한 번 주어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 존재의 생에 있어 생존은 물·공기·음식 정도면 가능하지만 사람은 그 너머 곧 문화적인 삶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을 빌리면 사람은 배부를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이길 원한다. 즉 가치향의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태생적 환경, 나아가 정주 환경은 모든 것들이 세계화의 자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우리들 삶에 거의 절대적이다. 그것은 그 질적 가치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체성의 형성은 그가 속한 지역의 다양한 층위로부터의 결과이다. 그래서

1) 지난 2007년 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07년의 기초과제로 “한국의 지역문화 실태 및 지역문화 정책방안 연구” 프로젝터(연구책임자: 류정아-문광원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연구원)가 전국을 “강원, 경남, 경북, 서울·인천·경기, 제주, 충청, 호남” 등 7개 권역으로 묶고 여러 중요 도시별 세부 팀을 다시 짜서 9개월(2007.03.12~12.12) 동안 진행했다. 그 결과 보고서를 다음 해에 『한국의 지역문화』란 연구서로 간행하게 됨. 이 연구서의 울산지역의 연구결과는 그 연구진의 울산지역 팀(안성길, 오창현, 기타 보조인력)의 팀장이었던 필자가 오창현 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임.

문화적 정체성 역시 그것의 직·간접 영향 속에서 생성되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여 그 바탕이 되는 지역으로서의 울산부터 살펴본다.

앞서의 정체성은 그 지역 내·외부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 이미지로도 접근 가능하다. 먼저 세계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와 단일 자동차 공장 중 세계 최대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북구 등 2개 구에선 진보인사가 기초단체장으로 수차례 배출되었다. 게다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도 동구는 울산 유일 진보인사를 기초단체장으로 선택했다. 이런 요소들로 형성된 '노동자의 도시' 이미지인데 이는 여타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하긴 물론 인구 10만 남짓의 소읍이 울산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고 국가의 생존 동력인 공업도시로 탈바꿈하고, 그 중심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삶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업도시화의 부작용으로 격렬한 노동자의 휴식 문화가 즉시적이고 감각적인 소비문화로 많이 왜곡되었다. 한편 서울대 이문웅 교수의 한 글(2001 울산사랑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울산시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빠른 공업화와 함께 유입된 외지인의 비율이 울산시 100만 인구의 80%나 되었다. 여기서 타 시·도에 비해 유독 많은 향우회 조직, 이 중에서도 호남향우회는 20만 명, 강원향우회는 12만 명이었다. 그러나 1995년 통계자료 출생지별 인구 현황에는, 호남은 4만 명 조금 더, 강원도는 3만 4천 명에 불과해, 외지인 가족 중 울산으로의 이주 후 출생자가 약 2세대를 지나며 훨씬 늘었다. 이것은 명절 때마다 고향을 향하던 거대한 귀성 물결이 일정 부분은 제한적이며, 한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급할시', '공해도시', '떠돌이 도시', '문화의 불모지' 등 이미지가 급속히 부각되어 울산은 정주해 살 곳이 못 된다는 인식이 강했

으나, 2022년 현재는 다소 흔적만 남았다. 이는 그 사이 현실 삶터인 울산에 대한 정주의식과 애향심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로 형성된 ‘노동자의 도시’ 이미지인데 이는 여타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하긴 물론 인구 10만 남짓의 소읍이 울산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고 국가의 생존 동력인 공업도시로 탈바꿈하고, 그 중심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삶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2007년 8월의 울산지역 한 언론 사회면을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거대 사업장 노조의 파업 여부가 시 전체의 경제와 지역사회 분위기 등을 좌락좌락한다는 점에서 '노·사 간, 노·노 간'의 상생적 관계 정립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현재 노·사·정 간의 상생적 관계 재정립 분위기를 보면 몇몇 여타 사업장에서는 강한 목소리의 노조가 더러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차분해진 산업계를 볼 수 있다.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지금까지의 조선, 자동차, 정유 등 대단위 사업장에 더하여 가장 부족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고, 공업화로 희생된 태화강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어 지난 2006년에는 전국단위의 수영대회를 '태화강 물축제' 기간에 성공적으로 개최해 '생태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에도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향유되는, 울산고래축제와 같은 각종 축제들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울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잘 느낄 수 있다. 특히 '처용문화제, 울산고래축제, 마두희축제,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대향

연,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조선해양축제, 쇠부리축제, 외고산 용기축제, 간절곶 해맞이축제, 울산배축제, 은음암 사찰음식축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십여 가지는 울산지역 특유의 문화적 특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울산지역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할 수 있겠다. 특히 이들은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 주민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치로 이끌어낼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의나 공모 등으로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실효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울산은 매우 유서 깊고 매력적인 도시다. 우리나라 선사 시대 최고의 유물인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그 암각 속의 최소 62마리 고래들의 일부는 지금 이 순간 동해 울산 앞바다에서 수십 수백 마리가 유영을 즐기고 있다. 또 남구 옥현동이나 북구 정자동 등의

공사 현장에서는 소중한 각종 유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고려사람 일연의 '삼국유사' 열두세 곳에서 울산 관련 장소와 기록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철광산인 농소의 달천 철장과 수백 기의 쇠부리터가 북구의 곳곳에서부터 경주 일원에 걸쳐 남아 있는데 이들 역시 울산 문화 정체성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

2. 울산 시민들의 생활문화적 특성

울산지역 시민들의 생활 문화적 특성을 부산대 박재환 교수는 한 연구논문(현대 울산인의 삶과 문화, 2006)에서 “국가적으로 집중화된 산업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유실 및 망각과 함께 새로운 공업탑 문화로 압축되어 왔다”고 정리하고 있다. 다소 편중되게 '노동자들의 도시'란 관점에 기운 한계는 있지만 울산의 지역문화 특히 구체적인 생활문화의 특성을 잘 짚은 대표적 성과물로 보이므로 그 일부를 통해 울산의 생활 문화적 특성에 접근해 본다.

1962년부터 '조국 근대화'의 전인차로서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된 이래 반구대와 천전리 각석의 문화재적 가치는 경제개발정책에의 관심 집중에 따라 떠밀려 나게 되고 사연담이 축조된 이후에는 무시로 물속에 잠겨 그 중요성이 잊혀져 버리기 일쑤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대곡천에서 크게 발원한 태화강 유역의 모든 문화적 유적 또한 망각되거나 등한시되었다. 더구나 1970~1990년대의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해 2000년도까지도 태화강은 각종 폐수와 생활오수로 썩은 물이었다. 그리하여 1996년에는 수질오염의 정도가 아예 등급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잊혀진 암각화와 태화강의 오염으로 상징되는 울산 전통의 퇴색과 소멸은 비단 문화재나 유적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로

2021년 울산서머페스티벌은 코로나19 여파로 일 시 변경과 함께 실시간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백악산로에 소규모로 공연을 할 수 있는 Zoom(화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 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울산MBC-북구 옥현동에서 동해시, 달천 등지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주최: 울산MBC TV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날짜	공연명	출연진
2021. 8. 13. (금) 19:00~	창조라이브	육종원밴드, 노브레인, 신원희, 기쁘고, 노브레인밴드
2021. 8. 14. (토) 19:00~	말다쉬 트로트	전성, 동지, 김연다, 허영, 아메니, 수근, 이소희, 김다현
2021. 8. 15. (일) 19:00~	모의연말스페셜	비비, 로지, 이강민밴드, 스페셜, 안예은, 커미트
2021. 8. 16. (월) 19:00~	음악이랑고상있지	정갑용 밴드, 통지음, 서기호, 정현, 로하, 최정희와 휘핑크림, 뽕뽕사운드
2021. 8. 17. (화) 19:00~	ALIVE 1	AKM1, 19cm, 선우영라, 작대
2021. 8. 18. (수) 19:00~	ALIVE 2	가비, 정종일, 박영민, 소란

울산MBC

울산MBC 주최 울산서머페스티벌 포스터

이어져 오던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은, 새로운 공업화가 요구하는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에 꺾히거나 퇴색되었다.

그리고 공업화의 인적 자원은 대다수가 외지에서 유입되었다. 특히 공업단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생활문화는 울산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나 사회적 연결망과 무관한 경향이 많았다. 여기에 중소제조업의 노동자까지 합산하면(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보고, 2003년 참고) 그 수가 14만 명이 넘고, 노동자 한 사람당 가족구성원을 3~4명으로 잡을 경우 울산 인구의 절반인 무려 50만 명 정도가 '공업 가족'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은 울산지역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두루 미쳤다.

이렇게 울산지역의 주도 세력이 된 이들 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의 생활문화는 2교대, 3교대와 같은 그들의 근무시간에 의해 특징적인 모습을 갖는다. 가령 1일 2교대의 경우 낮과 밤이 뒤바뀌는 근무시간 때문에 아침에 퇴근한 남편의 휴식과 숙면을 위해 주부들은 낮 시간 상당 부분을 혼자서,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주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처럼 울산지역 공단의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부들 생활문화는 기타업종 노동자, 사무직노동자를 포함해서 그들의 부인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일상적 흐름이 맞지 않아 정서적 유대의 핵심 고리인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렵고, 그들 수입의 상당 부분은 잔업과 철야수당이란 점에서 노동의 강도 또한 높아 자기 계발, 여가의 향유 같은 문화적인 삶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정

규직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체불로 인해 문화적 욕구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어느 지역이나 향우회는 존재하지만 울산지역처럼 향우회가 사적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는 흔치 않다. 자영업자들 간의 향우회 조직은 물론 대기업 현장노동자들 간에도 10명 미만의 향우회가 일상에서의 중요한 정서적 교류단위가 된다.”

한편으로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모습이다. 울산시민 중 토박이의 숫자는 15% 미만이었다. 1962년 이후 유입된 많은 외지인들은 울산을 영원히 정착할 곳으로 간주하기보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생각했다. 여건이 허락하면 울산을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근에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실제 이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이러한 이주 희망도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외지인의 상당수가 울산에서 생활하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은 울산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향우회'의 많은 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어느 지역이나 향우회는 존재하지만 울산지역처럼 향우회가 사적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는 흔치 않다. 자영업자들 간의 향우회 조직은 물론 대기업 현장노동자들 간에도 10명 미만의 향우회가 일상에서의 중요한 정서적 교류단위가 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은 회사 전체의 군 단위 향우회보다 작업장 내의 소규모 향우회의 정기모임에 더 강한 일체감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울산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울산지역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계급 귀속에 있어서도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평균 근속 14년차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은 5천5백만 원에 이른다. 국내의 어떤 생산직 노동자보다 총수입에 있어서는 중산층 평균 수입을 상회한다. 이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노동자가 아닌 '노동귀족'이란 시선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생산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모순적인 정체감을 지닌 것이 그들의 처지이다.

작금의 울산지역 문화는 물질주의와 현장주의의 성향이 강하다. 그것은 비단 울산에만 한정된 생활문화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울산처럼 특정한 지역이 산업화의 중심이 되고 그에 따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새로 이주하는 주민의 일차적 관심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이다. 공업화의 선두주자로 국가로부터 지목된 울산지역에 밀려든 유입인구가 물질주의에 몰입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이 지배적인 울산에서는 작업이 일어나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상적인 원칙의 타당성론보다 현장에서의 문제 파악과 그 구체적 해결이 더 실제적이다. 이를 공동체 전반의 질적 가치 향상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그들 피부에 직접 느껴지도록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은 돈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2월 중순에서 다음 해 1월 중순에 이르는 기간 대기업 등 각종 기관의 특별 상여금 등으로 유통되는 돈의 액수가 어림잡아 4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른다. 이 유동자금의 상당 부분이 유흥업소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의 유흥문화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관련 업소의 수가 많다. 2006년 문화관광부 조사에는 울산지역 성인오락실이 486개소이며,

이 중 남구에만 234곳이다. 한편 경찰청이 2006년 발표에 의하면 울산 남구는 유흥주점, 퇴폐이발소 등 풍속업소가 1,029곳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성인오락실과 풍속업소만 놓고 볼 때 울산은 가히 소비향락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울산지역에 풍속업소나 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울산 노동자들의 노동의 강도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추상적 예술과 고급문화에 의한 여가활동보다 에너지의 재충전과 재창조가 더 다급한 일상적 욕구로 등장하는 경우가 울산지역의 경우 가장 많고, 이때의 즐거움의 추구는 결국 보다 감각적이고 몸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울산지역의 문화 정체성'은, 약 60년 전 불과 인구 10만 남짓의 소읍이 울산특정공업지대로 지정되고 60여 년 만에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고, 지역민의 80%가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유입된 외지인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100만 시민의 절반인 무려 50만 명 정도가 '공업 가족'으로 추산되는 시민적 특성과 그런 특성으로 파생된 향락문화, 여기에 지리·공간적 특색과 역사·문화적 유적과 그것으로 인해 생성된 특징적 정체성으로 구현되는 여러 축제 등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진 것이 바로 울산지역의 문화 정체성임을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3. 울산지역 문화분권의 현실과 향후 방향

두 번째로 울산지역의 문화분권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우리 울산지역의 문화분권의 현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선 대략 공연과 전시 그리고 출판 정도로 압축해서 살핀다. 그러면 자연 앞으로의 개략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일단 세계적으로 주목되거나 정평이 난 연극이나 피아노 연주 같은 공연이나 전시는 기본적으로 그를 받쳐줄 만큼 제대로 갖춘 시설 곧 하드웨어가 우리 울산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결과 제대로 감상하고 싶어 하는 매니아층은 거의 예외 없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울산지역 내의 창작극과 개인 콘서트 및 창작 동요제 등과 개인전, 동인전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객과 관람객 등도 지역매체의 보도를 확인해 보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그러나 출판의 경우, 우리 울산지역에도 몇몇 출판사가 있지만 그야말로 영세하기 짝이 없다. 거의 1인 출판사의 모습으로, 명함, 광고지, 각 학교에서 값싸게 의뢰 들어온 부교재물 등으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지, 자체적인 기획역량과 자본이 뒷받침되는 출판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출판의 꽃인 기획출판은 절대 다수가 언감생심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저간의 현실 때문인지 출판은 거진 절대적으로 수도권 편중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지역출판사를 외면하는 데는 무엇보다 수도권과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본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출판이 소중한 특별한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록해서 보존하는 일을 한다는 데 그 참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전문출판 인력의 태부족과 유통 및 홍보의 어려움으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지역출판사를 살려야 지역 서점이 살고 당달아 지역의 작가들과 독자인 지역민의 삶의 질적 고양과 위축된 지역문화 또한 복돋우고 살려내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지역 출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구 지역출판사 '학이사'의 신중현 대표가 블

로그 '학이사독서아카데미'에 게시한 지역출판사 활성화 방안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상당 부분 수용하고 필자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제시한다.

1. 대부분 지역출판사는 처한 여건상 역량제고가 필연적. 따라서 지역출판인들에게 찾아가는 출판 컨설팅 필요. 그들은 극소수의 인원이거나 한 사람이 기획자와 편집자, 마케터의 역할 모두 겸함. 그러므로 지역출판인들이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을 기회 제공.
2. 지역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 격려하고 포상.
3. 지역에서 출간되는 책을 지역민들이 참가해 낭독하는 낭독대회 개최.
4. 영세한 지역출판사의 경영을 도와 줄 재정적 지원책 강구.
5. 지역 도서관에서는 전체 도서 구입 예산에서 일정액을 지역출판 도서 구매 의무화.
6. 지역 서점은 지역 책을 구매하는 독자에게는 독서 인센티브 제공.
7. 지역의 출판인들의 역량 제고할 수 있도록 출판 관련 보수 교육이나 연수 기회 제공.
8. 지역 출판물의 유통센터와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러 소규모 출판사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

안성길 프로필

시인, 문학평론가이자 울산매일신문 문화특집부 기자를 거쳐 울산시민학교 국어과 교사로 재직 중이다. 시집은 『남동해역』 1987, 『빛나는 고난』 1990, 『아직도 나는 직선이 아름답다』 1996, 『말희의 사랑』 2001, 『민달팽이의 노래』 2018 등이 있고, 평론집은 『고래詩, 생명의 은유』 1987, 『지역문학, 그 날것의 미학』 2020 등이 있다.

양국 정상회담 재개해 주요 쟁점 논의하고 관계 개선 나서길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오늘 초대받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제국 총장님을 비롯한 김진기 교수님, 전홍찬 교수님, 손기섭 교수님 등 정치학회 일본학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셔서 발표의 형태를 좀 바꾸고자 합니다. 애초에는 강연 형태로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보니 세미나 형식으로 발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 후 교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여러 각도에서 진단·분석해 보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은지,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한일 관계의 현상 진단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현재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토릭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대단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정부 간 관계도 그러

러니와 국민들의 호감도도 2000년대 이후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60%까지 한국에 대해 호감을 보였던 일본 사람들이 최근에는 30% 전후의 사람들만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며 지금 한일 관계가 대단히 차갑게 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한일 관계로 전개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조적이고 대단히 장기적인 현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일본어로 3점 세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다음은 2012년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관한 재판, 마지막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천황의 사죄를 요구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후에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2012년 이래로 올해가 2022년이니까 나빠진 한일 관계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악화된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피해자, 일본=가해자” 인식 최근 역전된 듯한 현상 나타나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한국은 피해자, 일본은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역전된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가 전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화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화난 일본을 방어하느라고 급급한 상태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 간의 갈등이다, 마찰이다라고 하면 대체로 일본발 역사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참배, 망언 등 이런 형태의 일본발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근 2~3년 동안 살펴보면 한일 관계에 과거사 갈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와 다른 양상은 일본과의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관한 이슈가 국내 정치의 갈등, 국내 정치의 진영 간 싸움과 결합되어 동시에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일본 내에서도 국내 정치와 한반도 문제가 서로 얽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한일 간에는 사실상 인적 왕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일 년에 천만 명의 인적 교류 왕래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교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일본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이미 악화된 한일 관계의 상황이 더 심하게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몸소 느끼고 계시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본학과 일본정치 외교를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일본과의 교류, 교환, 유학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특히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0~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즈기와 봉쇄, 미즈기와 쇄국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월부터는 제한적으로 입국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38만 명이 일본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입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유학, 연구의 목적으로 일본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입국 인원을 오천 명



줌 방식으로 열린 한일 신시대포럼 2022년 2월 월례회

으로 제한하여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전부 소화하는데 적어도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연구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주 기형적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쟁점

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요소,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위한 재단을 구성하였지만 2년여 후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한 조치에 대해 일본 측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또 재협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의 판결과 4월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내려졌습니다. 1월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4월에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 면제 조항을 들어서 일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도 위안부 배상 문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합의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위안부 합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징용 재판 문제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의 역대급 악재가 바로 징용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최초 판결이 있었고 2018년에 최종적으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용 재판의 결과로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과의 관계,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현재 강제 집행조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현금화가 되지 않았습니만 언제 현금화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약 한국의 법원에서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를 하도록 판결이 내려지면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대일외교의 방침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징용 재판, 안보, 경제, 북한 문제가 한일 간 핵심 쟁점

그다음은 안보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두드러진 것이 없었지만 불과 2-3년 전 제주 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참여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육 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 자위대의 입국이 거절당하면서 일본이 반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해 선상에서 화기 관계 레이더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을 구조하려는 우리나라의 구축함과 일본의 경계에 나섰던 초계기가 충돌을 벌인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해서 지소미아(GSOMIA)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둘러싼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일 관계가 그동안 협력적이었다고 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 안보 당국자들 간의 불신도 상당

히 깊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안보 문제 역시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로 내려진 수출규제 조치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와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소위 노재팬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급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태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어프로치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면서 한일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비해서 일본은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맵고 차가운 기류가 한일 간에 흐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사도섬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섬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갈등 사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일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 과연 이러한 상황을 단시간 내 복원시키는 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한일 관계 악화의 구조적 배경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망원경의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이완시키는 구조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기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이완하고 갈등하는 마찰을 겪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치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력전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북아 국가들 간의 힘이 라디칼하게 변화하는 상황과 한일 관계의 갈등이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이론에서 대국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의 요인은 대체로 힘의 전이로 세력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제기되는 명제들을 동북아 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힘의 관계를 보면 근 30년 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0년 한중일의 경제 규모를 숫자로 설명하겠습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전후 삼국의 관계에서 한국의 경제규모를 1로 본다면 중국은 거의 1에 가까웠고 일본은 10 정도였습니다. 한중일의 국력 차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1 대 1 대 10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계를 보면 크게 변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GDP 1.7조 달러 정도이고 일본은 5조 달러, 중국은 17조 달러 정도입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일본은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1 대 1 대 10이었던 한중일의 국력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1 대 알파(a) 대 3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국제 질서의 라디칼한 변화와 동북아 간의 양자 관계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미중의 전략 경쟁입니다. 패권 경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의 내용이 한일 간에 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한일 관계를 이완시키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배경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일 GDP 격차 1 대 10 → 1 대 3으로 줄어 ‘수평적 관계’로 전환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만을 두고 보면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였던 것이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GDP 추이만 놓고 설명하면 1965년 수교가 이루어진 당시의 한일 간의 경제 규모는 1 대 30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1 대 10, 2010년에는 1 대 6, 2020년에는 1 대 3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는 힘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

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부적응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취업자의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일본을 상당히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 3,000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향상되었고 심지어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문화 분야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뒤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의 급격한 변화가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덧붙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냉전체제 하에서는 한일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정치가와 경제인들이 인맥을 동원해 무대 뒤에서 갈등을 수습하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갈등을 식민지 국가와 피식민지 국가의 관계라는 역사성으로 발생한 문제들로 파악하여 눈감아 주고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보통의 평범한 관계로 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 세대가 이해했던 한일 관계와 지금 세대가 이해하는 한일 관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한국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입

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무역 파트너 5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의 통상 및 무역 분야에 있어 1순위 또는 2순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였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일 관계를 드라이하게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배경 속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1)

한일 관계가 악화된 첫 번째 요인은 상호인식에 있어서의 오해와 편견, 무지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미디어에 비취진 일본과 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실제 일본의 모습보다 훨씬 더 왜곡된 모습으로 일본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상대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한일 정상 간의 제대로 된 대면은 거의 10여 년간 단절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식 방문 형태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교토 방문입니다. 교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총리와 위안부 문

제를 화두로 의견 대립을 한 후 지금까지 정상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특사외교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다자회담에서의 만남은 몇 차례 있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양국의 현안을 놓고 이루어진 정상 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전략적인 대화가 부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상회담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10년간 단절... 양국 현안 제대로 논의 안 돼

그다음은 양국 간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양국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큰 충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민주화, 인권 의식, 시민사회의 발원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국가폭력과 국민의 관계에서 피해자그룹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위안부, 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 것이 하나의 관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이 크게 변화한 모습이며 그것이 대일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처 : 조선일보)

사회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반일적인 감정과 정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이 강경외교의 형태로 작용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형을 보면 1990년대 이후에 특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지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외교 그리고 일본의 목소리를 실은 평화주의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적으로 불안한 집단 심리가 확대되었고, 그 속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화해와 관용으로서의 역사외교는 완전히 실종했습니다.

1990년대의 일본은 자유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화해를 지향하고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지향하는 선언들은 모두 90년대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는 양국 간의, 국가 간의 정체성 충돌이 벌어짐으로 인해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2)

다음은 전략적인 포지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외교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훼방 놓는 방해꾼으로 인식하고 재팬 패스론의 사상이 횡행했습니

다. 그 당시 한국의 외교는 압도적으로 대미중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형이 미중 갈등으로 치닫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대미, 대중, 대북한 관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일본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치가 대단히 왜소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외교의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여 신남방, 신북방정책으로 전략의 중점이 이동되면서 일본은 우리 시야에서 상대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FOIP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QUAD와 대미동맹 중심의 중국 포위망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구하는 인태전략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 외교당국에서 방위백서나 외교청서에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나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린국가'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애치슨라인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신(新)애치슨라인 밖에 있는 것인지,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인지, 안에 있는 것인지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사 갈등의 이슈가 불거져 한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기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지금 한일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한국에게 대일외교는 왜 중요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일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상식처럼 생각되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거나 경시되고 있습니다. 대일외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외교 공간이며 전략 공간입니다. 한일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고 한미일 관계에서 대미동맹의 숨은 코드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대북 관계나 베이징, 워싱턴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쿄 축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 한일 전략적 이익 공유... '도교 축' 중요한데도 한국 외교에서 경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두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앞으로 인구 문제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미래사회의 경제적인 과제를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일은 협력할 수밖에 없고 서로 배워야 될 나라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일본과 한국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면에서 전략적

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자 협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양자 관계가 역사 문제에 매몰되어서 국익에 손실을 가져 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문제는 시민 레벨 또는 아카데미아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보다 더 전략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한일 갈등의 뇌관 : 징용(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입니다. 징용 문제의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는 큰 갈등 사안이므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악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즉,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뇌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징용 문제라는 것입니다. 징용 문제를 지금의 상태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위변제입니다. 대위변제는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의 판결 이행조치를 우리 정부, 우리 기업, 우리 국가가 나서서 해 주는 것입니다. 입법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에 법리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적인 해결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 대법원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다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한국 대법원이 전 세계 200개 나라에 걸쳐서 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국경을 넘는 순간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용 문제, 사법적 해결 난관 많아... 대위변제, '김영삼 Formula' 주목

세 번째 방법은 '김영삼 Formula'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위안부 문제를 풀었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금전적인 보상을 전부 책임지고 일본에게는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촉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일본 정부에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후세 교육, 사죄를 요구하지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대법원의 판결 논리로 일본에게 주장할 경우 과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문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징용 피해자는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1억 원으로 청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00조의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금 양보해서 우리 정부가 구성한 과거사 피해 진상 조

사 위원회에서는 징용, 징병 피해자를 21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21조의 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일본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논리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순서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리해야 하는가 즉, 외교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거버넌스 문제가 우리 대법원 판결, 우리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8. 한일 관계 개선을 둘러싼 내외 환경

최근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내외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부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시다 정부가 등장하여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외교에 온건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이해하는 쪽의 파벌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에 비해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다는 면에서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4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양 정상 뒤로 '쿼드'를 상징하는 4개국(호주, 미국, 일본, 인도) 국기가 보인다. photo 뉴시스 (출처 : 주간조선)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개선의 기회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놓고 볼 때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일외교 공약을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가 될 경우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트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자세를 답습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한국의 대선 후에 개선의 방향으로 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한 대일 관계가 한국의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정권교체, 대선 이후에 대한반도 관계를 개선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대선이 한일 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덕 프로필

1962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취득. 귀국 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1998년 국민대학교에 전임 교원으로 부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2008년-2017년), 현대일본학회 회장(2015년), 한국정치학회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등 역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민주평통, 동북아역사재단 등 자문위원을 역임. 현재 국민대학교 일본학 전공(일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

한일관계 회복을 다시 생각함: 프랑스-독일 화해외교가 주는 교훈

전 홍 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외교 환경은 물려받았다. 그 중 최대 난제가 한일관계이다.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파탄상태가 되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였다. 정상 서툰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도 가동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에도 부침을 거쳤다.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과거사'는 보상으로 청산되지 않았다. 양국이 정상 간 추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합의한 한일위안부합의(2015)도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 사례가 있다.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 이룬 '화해외교' 모델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수 세기에 걸쳐 쌓은 '과거사' 무게는 한일합방 36년이 남긴 유산을 훨씬 뛰어넘는다. 두 나라가 어떻게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 EU 프로젝트까지 성공시켰는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주목할 만한 교훈이 많다.

프랑스-독일: 원한의 역사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300여 년 동안 큰 전쟁만 다섯 번 치렀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상대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당연히 적대적 감정은 각기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었다.

30년 전쟁(1618-1648) 이후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절대군주들 간에 발생했다. 모든 전쟁에서 프랑스 부르봉 왕실은 독일을 대표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 그리고 프로이센 호헨졸레른 왕실과 항상 적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분열된 독일 지역으로 영토를 확대했다. 태양왕 루이14세가 이룬 '프랑스의 영광'은 독일 희생 위에 이룬 업적이었다.

19세기 이후 양국은 사활을 건 전면전을 네 차례 치렀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동안 양국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자유의 십자군' 나폴레옹 군대는 비엔나와 베를린을 모두 함락하고 독일 지역 전체를 마음껏 유린하였다. 이에 분노한 철학자 피히테(Johann G. Fichte)는 독일 각지를 잠행하며 '독일 민족에게 고향'이라는 애국 강연을 하였다.



보불전쟁(1870-1871)에서 승리한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을 선포했다.

피히테가 뿌린 민족주의 씨앗은 드디어 19세기 후반에 싹으로 돌아나 독일 통일이라는 결실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싸운 보불전쟁(1870-1871)은 짧은 전쟁이었지만 이후 양국 관계에 치명적인 유산을 남겼다. 나폴레옹 3세가 생포되었고, 연이어 파리가 포위되었다. 파리가 패전에 잠겨있는 동안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는 부르봉 왕실이 자랑하던 베르사이유 궁전을 점령하고 여기에 독일제국(독일 제2 제정)을 선포하였다. 독일은 50억 프랑이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패전국 프랑스에 부과하였다. 프랑스 국민에게 엄청난 수모감을 안겨준 전쟁이었다.

절대왕정 시대 전쟁과는 달리 보불전쟁은 민족 간 전쟁이었다. 따라서 보불전쟁은 프랑스와 독일이 상대방을 '민족의 숙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프랑스에게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패전의 상처가 되었고, 이를 파악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 고립을 겨냥하여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등 유럽 열강들과 겹겹이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약 50년 뒤 프랑스가 보불전쟁 패배를 복수할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4년 동안 사망자만 2천만 명이 발생한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참호전으로 벌어졌다. 승전국 프랑스는 보불전쟁 패배를 철저하게 보복했다. 알사스-로렌을 되찾았고,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전쟁 배상금으로 1,320억 마르크를 부과하는 데 프랑스가 앞장섰다. 당시 독일 국내총생산(GDP) 10배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독일을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후 20년 만에 다시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다시 복수전에 착수했다. 알사스-로렌을 독일 영토로 재편입시켰고,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서부와 북부 영토는 독일군이 점령하였다. 나머지 프랑스 영토는 비시(Vichy)에 친독정부를 설치하여 간접 통치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다시 독일 패배로 끝났다. 제1차 세계대전 경우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을 관대하게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방 프랑스는 독일 흔적을



1962년 7월 독일 아데나워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 방문, 랭스(Reims) 대성당에서 드골 대통령과 합동 미사를 드렸다.

지우는 작업에 철저했다. 부역자들에 대한 숙청(épuration)이 회오리쳤다.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런던에 설립하고 프랑스 내에서 레지스탕스를 이끌었던 드골파가 여기에 앞장섰다. 독일이 "지난 145년 동안 프랑스를 일곱 번 침략하고 파리를 네 번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 안전을 위해서는 독일이 희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까지 프랑스와 독일이 쌓아온 적대감은 그 뿌리가 깊고 넓었다. 상대국에 대해 양국 국민들이 형성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였다. 그러나 현재 두 나라 간에는 그런 적대감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다. 획기적인 전환이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바로 1963년 1월 양국이 체결한 이른바 '엘리제조약(독일-프랑스 우호조약)'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도 '한일기본조약(1965)'을 체결하였으나 과거사 청산과 지속적인 화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엘리제조약은 '외교혁명'이었다. 원수를 한 세대 만에 제1 우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화해외교의 모델'로 꼽힌다. 그러면 엘리제조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엘리제조약: 성숙한 리더십의 산물

엘리제조약 체결 자체 그리고 조약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양국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단연 돋보인 리더는 조약 체결을 이끈 프랑스 드골 대통령과 서독 아데나워 총리였다. 특히 드골 대통령이 보인 리더다운 결단이 두드러졌다. 이 두 지도자는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필요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을 보였다. 특히 드골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 치하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항독(抗獨)을 상징하던 존재였다. 전쟁 직후에도 드골은 독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부르짖었다.



1963년 1월 22일 프랑스와 독일은 '엘리제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화해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입장을 수정하였다. 프랑스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두 정당을 승계한 후임 지도자들도 양국 간 진정한 화해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엘리제조약(1963)에서 아헨조약(2019)에 이르기까지 56년간 양국이 11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이 이 점을 잘 보여주었다.

적대관계 역사가 깊고 깊었던 만큼 양국 국민들 입장에서 화해 정책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당은 비범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 시작은 1958년 9월 드골 대통령이 아데나워 총리를 파리에서 250km 떨어진 한적한 시골 사저에 초대하여 숙식을 같이하였다. 대통령 자신부터 독일에 마음을 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 이후 두 정당은 1963년 엘리제조약 체결까지 편지를 40차례 교환하고 정상회담을 15번 가졌다.

본격적인 '화해외교'는 1962년 7월 아데나워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랭스(Reims) 대성당에서 드골 대통령과 합동 미사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서 무흐멜론(Moumelon)에서 수백 년간 총부리를 서로 겨누었던 양국 군대가 합동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놀라운 광경도 연출하였다.

그해 9월에는 드골 대통령이 서독을 답방하였다. 첫날 본(Bonn)에서 드골 대통령은 독일어로 연설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민족은 이제 함께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거대한 사명이다. 경제, 방위, 문화 등에서 독일에 이익되는 것이 프랑스에 해가 되겠는가? 프랑스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독일을 해롭게 하겠는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63년 1월 22일 양국은 '엘리제조약(the Elysée Treaty)' 체결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화해를 공식 선언하고, 지속성 있는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실행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1984년 프랑스 메테랑 대통령(왼쪽)과 서독 기민당 콜 총리가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덩 전투 전사자 묘지를 찾아 같이 헌화하고 손을 맞잡았다.

드골 대통령과 아테나워 총리를 이은 양국 지도자들도 엘리제조약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이 점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과거사 청산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 프랑스 사회당 메테랑 대통령과 서독 기민당 콜 총리가 보여줬다. 양국이 가장 치열하게 맞섰던 ‘죽음의 골짜기’ 베르덩(Verdun) 전투 전사자 묘지를 찾아 두 정상은 같이 헌화하고 손을 맞잡았다.

이는 역사적인 적대감을 양국이 청산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독일 언론은 이를 “역사에 남을 장면”으로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그 당시 우리의 적은 독일이 아니라 독일을 짓누른 권력과 체제와 이데올로기”였으며, “나치 정권에 희생된 독일인들과 프랑스인들 모두 똑같은 피해자였다.”

이 선언을 계기로 프랑스 국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독일 국민과 싸운 전쟁이 아니라 나치와 싸운 전쟁으로 재인식하였다.

엘리제조약은 2019년 1월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체결한 아헨조약(Aachen Treaty)으로 한 단계 더 강화되었다. ‘엘리제조약 2.0’으로 별칭한 이 조약은 외교·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폭을 넓혔다.

엘리제조약을 체결한 지 지금까지 60년에 이르는 동안 양국 정상들은 집권 후 외무장관을 대동하고 상대국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관례도 만들었다. 그 전통에 따라 가장 최근 연립정부를 구성한 올라프 숄츠 총리도 첫 해외 방문지로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그만큼 두 나라 지도자들이 양국 간 우호관계 발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제조약:

지속가능한 과거사 청산 프로세스

엘리제조약은 어떤 점에서 한일기본조약(1965)이 이루지 못한 과거사 청산에 성공했는가? ‘보상’이 아니라 ‘화해’에 초점을 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드골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상’보다는 국민들 간에 ‘존중, 신뢰, 우의’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목표에서 엘리제조약은 양국 간 교류에 초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 이를 ‘의무화’했다.

먼저 정부 고위 공직자들 간 회담을 정례화했다.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하고 증폭된다고 전제하고, 정부 공직자들부터 자주 만나서 대화하도록 만들었다. 정상회담부터 매년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매년 4회, 가족청소년부 장관, 외무부 고위직, 각군 참모총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만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이 정책 당국자 간 정례 회담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과 교육 전반에 걸쳐 협력하고 이해하는 폭을 넓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더하여 아헨조약(2019)에서는 양국 간에 외교·안보 정책 조율하는 ‘공동 국방·안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분기당 한 번씩 정부 각료 한 명을 상대국에 파견하여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는 결정도 하였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 간 신뢰 구축보다 엘리제조약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국민들 간 신뢰 회복이었다. 이를 목적으로 다양한 민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강도 높게 집행한 것이 엘리제조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과거사 청산 프로세스였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청소년 교류에 두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양국은 가장 먼저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사무국(DFJW/OFA)’부터 설치하였다. 양국 정부가 매년 약 2천만 유로를 출자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청소년 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제안한 교류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7천여 건에 이르는 교육 및 친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독일 연립정부 수장 자리에 오른 올라프 숄츠 총리(왼쪽)가 2021년 12월 10일(현지 시각) 취임 이틀 만에 프랑스를 방문,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다.

여기에 2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양국 대학이 복수학위를 시행하는 '대학간 연합 프로그램(UFA/DFH, 1997)'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양국에서 180개 대학이 참여하여 한 해 평균 6천 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아헨조약(2019)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언어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고,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행정 공용어로 사용하는 바이링구얼리즘(bilingualism)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공표하였다.

엘리제조약 프로세스를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 국민들은 상대방을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제1 적국으로 여겼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프랑스와 독일이 이룬 역사적인 화해에는 무엇보다도 두 나라 지도자들이 보인 비범한 리더십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수 세기에 걸쳐 누적된 적대적 국민 정서를 거슬러 화해 물꼬를 튼 것 자체가 비범한 결단이었다. 그 점에서 드골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다. 후임 양국 지도자들도 소속 정당과 보수-진보 차이를 초월하여 엘리제조약을 받아들였고 조약이 규정한 과거사 청산과 화해 프로세스를 성실히 진행했다. 이는 양국 간 화해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성숙한 리더십 산물이었다.

지속 가능한 화해는 보상과 흥정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 간 상호 '존중, 신뢰, 우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은 뛰어난 통찰력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효과적인 추진 체제를 만들고 제도화한 점도 엘리제조약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정부 수반 간 정상회담과 관련 부서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횟수까지 조약 조문에 규정함으로써 엘리제조약은 양국 간 화해 실현을 사실상 정부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청소년교류사무국'을 가장 먼저 설립함으로써 청소년 교류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청소년과 시민들 간 국제교류를 민간 자율 행사로 맡겨놓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 간 화해는 그 효과가 두 나라 문제로 끝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7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처음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6개국에서 발전한 것이다. 두 나라가 화해를 이룸으로써 ECSC가 EU로까지 발전하는 엔진 역할을 했음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안정된 화해를 이룬다면 이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꿈까지 두 이웃이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홍찬 프로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정치학 박사. 주요 관심 분야: 외교사, 러시아, 에너지정책.

주요 연구 논문: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러일전쟁에서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았나?」(2022), 「구한말 뮌헨도르프의 친러정책: 독일 외교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2020), 「영일동맹과 러일전쟁: 영국의 일본 지원에 관한 연구」(2012), 「후쿠시마 이후 독일 원전정책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2016).

16개국 도시정부와 민간단체들 협력해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우 경 하 TPO 사무국장



“호텔서… 바닷가서… MZ세대 ‘우리는 놀면서 일해요’” [oo일보, 22.5.26.]

“카페야? 회사야?…바다 보며 ‘워케이션’ 중입니다” [oo신문, 22.5.25.]

신조어 ‘워케이션(workation)’에 대한 신문기사 제목들입니다. 일(work)과 휴가 (vacation)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2022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68.2%)을 꼽았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관광은 이제 일상이자,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막혀있던 관광수요가 분출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TPO는?

우리 부산에 국제관광기구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관광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각국의 지방정부, 도시,

학교, 기업, 단체가 활동 주체입니다. 부연하면, 도시정부와 관광분야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TPO는 회원도시 간 교류 지원, 관광자원 홍보, 관광상품 공동개발, 관광분야 인재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 국가의 25개 도시 시장들이 일본 후쿠오카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관광이 인적교류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산이 TPO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25개 도시로 시작하여, 20년을 거치면서 현재 16개국 137개 도시와 56개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지닌 국제기구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유치한 TPO 사무국은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T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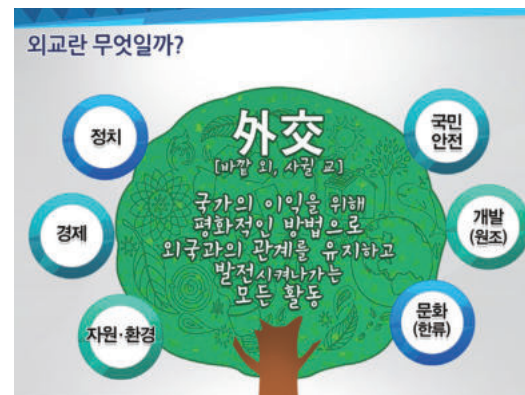
사무국 전경 (부산시 북구)

부산과 TPO, 그 의미는?

‘외교가 무엇입니까?’ 교과서적인 정의는, ‘여러 나라가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 교류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과거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국왕 즉, 국가원수로부터 특명을 받은 외교관들이 상대국 현지에서 전권을 가지고 외교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 발전으로 일상의 시

간, 공간개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외교를 하는 방식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외교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외교관, 중앙정부에 더하여, 지방정부, 민간단체, 학교,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외교를 하는 시대입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중요해진 배경입니다. 각국이 정부 예산을 늘려가면서 경쟁적으로 공공외교를 하는 가운데 도시외교(City Diplomacy, Paradiplomacy)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년 전 아직 생소했던 ‘도시외교’를 부산은 일찍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수행해 나갈 플랫폼 TPO를 주도적으로 창설한 것입니다. 부산은 도시외교, 공공외교의 실천적 선구자인 것입니다.



출처 외교부



지도 위키백과



TPO 관광분야인재육성사업 2019, 한국 전주 한국문화 체험: 비빔밥, 한복



TPO 관광분야인재육성사업 201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전통공예체험: 재활용 가방 만들기

부산시가 TPO 회장도시인데, 역할은?

2022년부터 부산시가 회장도시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도시는 임기 2년 동안 TPO라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면서,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행사를 주관합니다. 지난 20년간 부산이 6차례 12년, 중국 광저우가 4차례 8년간 회장을 맡았습니다.

TPO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는?

16개국 137개 도시입니다. 한, 중, 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여러 나라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공동회장(부회장) 문경시와 전주시에 더하여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광역시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 경주시, 통영시 등이 있습니다.

TPO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각국의 도시 외에 56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TPO 회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 그룹인 137개 도시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그룹 비영리비정부 단체 20개, 셋째 그룹 민간기업 36개를 합하면 56개 회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가고시마 관광컨벤션협회, 부산관광공사, 말레이시아 타이핑 관광협회, 동서대학교 등은 비영리비정부 단체이고, 중국 광저우가든호텔, 통영 스탠포드호텔, 몽골 노마즈 여행사 등은 민간기업 회원입니다.

TPO가 국제관계에서 어떤 점에 기여하는지?

모든 회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각국 도시들은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서로 협력할 때 더욱 발전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21세기 도시의 역할을 감안하면, TP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 간 교류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유산, 다양한 전통이 있어 관광산업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여행수요는 폭발할 것입니다. TPO 회원도시들이 협력을 통해 관광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관광시장을 상호보완적으로 키워나가면 국제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TPO 제9회 총회, 한국 부산 2019



TPO의 사업 계획은?

관광산업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관광 분야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TPO 제10차 총회가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었고, 아직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TPO는 회원들 간 정보, 경험을 공유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산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겪은 모두가 서로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회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과 개별 회원도시에게 특화된 맞춤형 사안,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해외 마케팅, 공동 관광상품개발, 관광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2022년 8월 TPO가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적절한 규모와 방법으로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자 구상 중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년간 TPO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조직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비전 2050'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TPO 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단연 관광산업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하면, 국가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피해가 특히 큼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GDP 10% 정도 경제손실이 전망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완전 정상화될지 다소 불투명하지만,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또한 관광입니다. 2022년 4월 이후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외국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미국 여행전문 컨설팅회사(REVFIN)는 코로나 이후 관광의 트렌드로 '나홀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도시보다는 지역 경험, 친환경성, 개인성향에 따른 맞춤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음성인식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광고, 마케팅 등 관광분야에 적극 활용되는가 하면 호텔, 요식업에서는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TPO 공동마케팅사업 관광교역전,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TPO 공동마케팅사업 홍보설명회, 2016, 일본 도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TPO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TPO는 최신 관광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행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한군데 모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새로이 준비 중입니다. 이는 회원 도시들과 협력하여 문화, 관광자원과 시설을 비롯해 각종 축제와 이벤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은 2020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 부산이 관광진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부산의 관광진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 즐겁고 편하게 지내다

가도록 숙소호텔, 대중교통, 먹거리, 볼거리, 쇼핑,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이 한 마디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관광진흥 방안이 없습니다.

TPO 회장도시인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를 응원합니다. 2021년 12월 부산, 로마, 모스크바, 오데사, 리야드 5개 유치경쟁 도시들이 1차 발표를 했는데, 부산시는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 모스크바가 자진하여 유치경쟁에서 물러난 이후 사실상 부산, 로마, 리야드 3파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도시 간 '국제기구'인 TPO 사무총장으로서



TPO 관광분야 인재육성사업, 2019, 한국 안동, 한복 입어보기



TPO 관광분야 인재육성사업, 2019, 한국 안동, 봉정사(세계문화유산) 견학



유치과정에 중립을 지키면서, 세계박람회의 긍정적인 영향이 TPO 회원도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주 '질그렁이 구좌 거점센터'. 티몬 제공 [서울신문]



워케이션을 떠난 직원이 바다 풍광이 바라다보이는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야놀자 제공 [서울신문]

관광 분야 신조어, '워케이션(Workation)'

많은 사람들이 출장 중 잠을 내 명승지를 돌아보고, 그 지역 특별한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한편 가족과 함께 멀리 휴가를 떠났는데 급한 연락이 오면 대응하기도 합니다. 원격, 재택, 비대면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 휴식, 관광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트렌드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TPO 사무국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회원도시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TPO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사무국을 두고 있는 부산의 글로벌 이미지도 한층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경하 프로필

35년간 외교관 생활 중 해외 여러 나라에서 모두 16년 동안 근무했다. 미국 워싱턴 DC, 세네갈 다카르, 스위스 제네바(WTO, UN), 프랑스 파리 (OECD),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호주 캔버라에서는 한국대사로 일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에는 외교부 주무과장으로 3년 동안 부산을 여러 번 찾았고,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 3년 근무하는 내내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서대학교 객원교수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강의도 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후변화,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무기다

진 재 운 (사)자연의권리찾기 영화집행위원장



은밀히, 급속히 파고든 해파리!

20여 년 전인 지난 2003년 이른 봄입니다.

다큐멘터리 <해파리의 침공> 제작을 위해 제주도 앞바다를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의 기막힌 풍경에 팔려있던 나에게 엄청난 무엇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시계(視界)가 좋아서 그때의 상황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초가집이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시선을 고정하자 곧 그것이 거대한 크기의 해파리임을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우산 즉 머리를 너풀거리며 움직이지만 그 뒤쪽으로는 무수히 많은 긴 촉수가 허물거리며 다가옵니다. 독성이 강한 촉수는 살갗에 닿기라도 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촉수를 떠나 압도적인 크기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놈은 10여m가 넘게 자랍니다. 이 해파리는 따뜻한 물에서 자라나다 바다가 차가워지면 사라집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찬물에서 죽어 버리는 것이 일생입니다. 하지만 이놈들은 겨울을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유를 확인했더니 '바다 수온 상승'이라는 단어를 확인했고, 곧이어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라는 것

을 알았습니다. 당시 '지구온난화'는 흔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바닷속 해파리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해파리에게는 미안하게도 <해파리의 침공>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해파리는 그저 바다가 따뜻해서 살아남았을 뿐인데 말이죠.



노무라입깃해파리

지구에 대한 배반 그리고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는 많은 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SF영화로서는 드물게 한국에서 특히 재개봉까지 하면서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스토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된 지구를 뒤로한 채 인류는 과학으로 결국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았다'가 될 듯합니다. 하지

만 이 영화는 지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혹평을 해야겠습니다. 혹평은 간단합니다.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지구는 망해도, 희망은 있다'를 심어준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

하지만 정확히 지구가 망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미 지구는 망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구는 망한다' 그리고 '똑똑한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몽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선을 넘은 설정에 사람들에게 끼치는 잘못된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기후변화라는 자살폭탄을 해체해야 하지만 그 자원과 에너지를 여전히 다른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진화의 시간을 지구와 함께했습니다. 헤엄치고 뛰고 날고 또

지금은 걷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발달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인은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중력이 사라진 우주에선 단 며칠 만에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 쉽게 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력과 골밀도는 인류에게 지구가 유일한 터전임을 말해주는 수십만, 수백만 가지 이유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 더 풀어내면,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는 지구를 떠난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여 가능할지라도 70억이 넘는 호모사피엔스를 우주로 데려 갈 수도 없고, 극소수만이 대상이 될 뿐입니다. 화성이나 또 다른 행성을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한다 해도 얼마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구의 자원을 외계 행성탐사와 개발보다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과학을 맹신하고 지구를 배반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은 '목이 쉬었다.'

사회과학자인 리베카 헨틀리의 책『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 할 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아무리 쏟아져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져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무관심하다.

기존의 기후 과학은 사람들을 설득해 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 조사에서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담론을 정치나 종교처럼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기후변화가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묘사되면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체념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숫자로 점철된 과학적 데이터로서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방대한 숫자나 전 지구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은 없다'라는 포기 심정이 된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고개를 돌리는 것은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나마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과학 그 자체로는 거리감만 넓혀 왔습니다.

“기후위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구는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리베카 헨틀리는 기후변화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관련 있게 만들어라
- 행동함으로써 '읽을 것보다 얻을 것'을 강조하라
-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라
- 과학적 예측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행동하는 희망을 말하라.

이를 요약해보면 '기후변화는 지나치게 큰 담론이 아니라 나의 일이면서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에 참여하는 것 또한 나에게도 유리할 뿐더러, 희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틀리는 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래전 동굴 생활에서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기억

하면서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스토리가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 그리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그런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¹⁾는 논문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사람 사이에 공감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합해지고 전달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방 이야기로 쏟아 올릴 '기후변화'

시작은 지난 2013년입니다. 지금은 38회째인 프랑스 <메니구트영화제 MENIGOUTE>²⁾에 영화 <위대한 비행, The Great Flight>이 감사하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화제의 느낌은 독특했습니다.

인구 2천여 명의 작은 중세도시지만 영화제가 열리는 일주일 기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유럽에서 몰려옵니다. 숙소가 부족해 캠핑카가 온 마을을 뒤덮습니다. 영화가 상영 될 때마다 전 좌석 매진이었습니다. 표를 사려는 행렬은 비를 맞으면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부영화는 참으로 재미 없었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환경 영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에도 국내에 환경다큐멘터리는 드라마나 예능 스포츠 등에

1) Wang, 'Emotions predict policy support', p26

2) <https://www.menigoute-festival.org/accueil.html>

한참 못 미치는 변방의 메아리였습니다. 1년간 힘들게 만들어 영화관에 걸었던 나의 작품도 일주일 만에 상영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면서 뇌리를 스치는 아이디어가 바로 '환경영화제'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환경다큐멘터리이자 환경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어도 프랑스 변방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결성

영화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제행사 기획 불모지였던 부산에 마이스 산업을 개척해 온 <리컨벤션> 이봉순 대표의 합류입니다. '돈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국제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싶었다'는 말로 취지에

100%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 이동흡 녹지추진단장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필연인 듯 예전 알고 지냈던 환경부의 안영신 씨가 마침 부산시에 내려와 있었고, 여러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기어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때부터 영화제는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행사를 치를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사단법인 명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해 왔던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네 네스의 심층생태학(Deep Ecology)과 미국의 사상가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에서 주장한 자연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빼앗긴 자연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곧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으로 위대한 생태 사상가들의 철학을 용감하게 표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권리찾기'가 등장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누구를 모시느냐를 놓고

도 수개월 동안 고민이 이어졌고, 수색과 물색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동서대 장제국 총장을 삼고초려 끝에 수락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장제국 총장의 말은 '영화제를 대충하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2030월드엑스포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BIE(세계박람회 총회)의 의장인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대사께서 고문역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운영 주체로 부산지역 영화계와 법조계, 기업·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40명이 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위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메인 언론사의 대표 기자들이 참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잔치가 아닌 부산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축제의 장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더했습니다.

탄생,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전 세계에 술하게 많은 영화제, 환경영화제 가운데 어떤 차별화를 갖춘 영화제로 만드느냐에 집중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제여야 한다는 것과 컨퍼런스와 강연 세미나 그리고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플랫폼 영화제'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서 지구는 둘이 아닌 유일한 행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곧 영화제는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로 결정됐습니다. TV다큐멘터리나 아마추어 영상들까지 지구위기를 다룬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하는 틀로서 '영화제'보다 '영상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는 글자 그대로 지구는 대체 불가능한,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줄여서 <하지영>이 되고, 영문은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n Busan, BPFF>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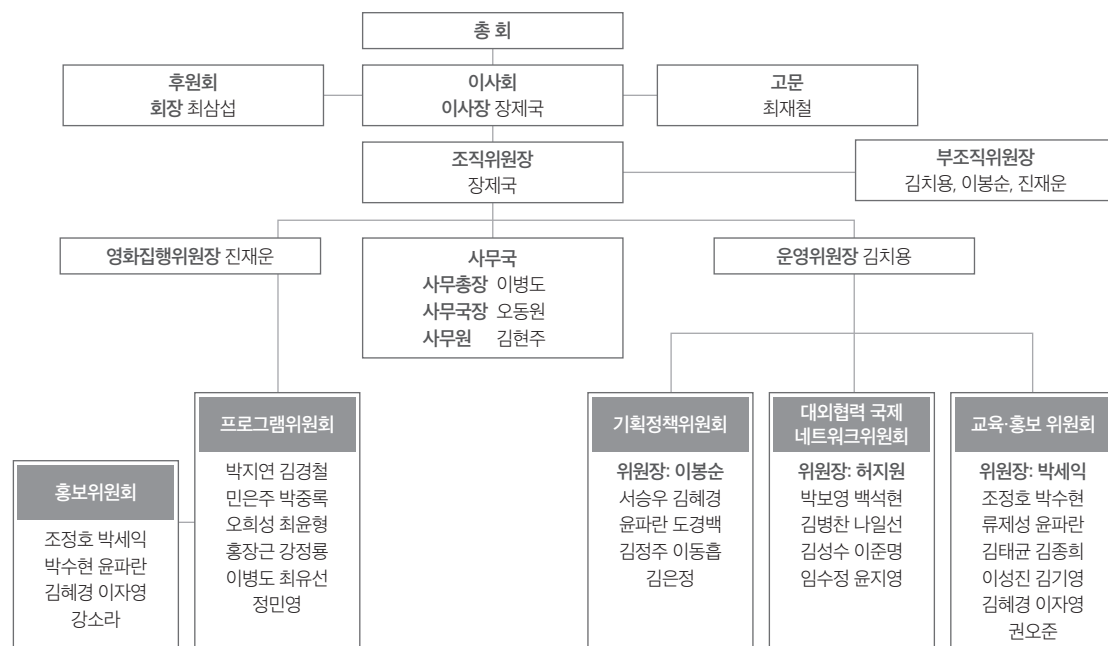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포스터

여기서 Blue Planet은 푸른 행성 지구를 뜻하고 Film 대신 Future를 넣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영상 축제가 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영화 그 자체를 위한 영화제를 지향하기보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영화제가 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지구, Our Only Home

영화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매년 8월로 잡았습니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무더워지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환경 영화를 감상하자는 의미입니다. 영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의전당을 활용해 실내뿐 아니라 야

(사)자연의권리찾기 조직도



외극장 상영도 하는 오픈스크린을 만들어 누구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부산시민공원 잔디마당에서도 매일 영화가 상영됩니다.

논의 끝에 1회의 슬로건은 <다시 지구, Our Only Home>으로 잡았습니다. 비교적 간명한 이 문구를 통해 지구의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땅, 지구의 중력을 제대로 느껴보면서 지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자연의 생존 권리가 너무 훼손되면서 다시 지구에 자연의 권리를 찾아 주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지구>가 될 때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제

- 지구환경 예측이 어려워지고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기상이변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는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 기후위기의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후위기 플랫폼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참여형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 영화와 함께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배우는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대략 20여 개국 40여 편의 환경영화를 발굴 초청해 상영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환경체험이 이뤄지고, 특히 탄소제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궁급증도 풀어줄 'ESG 국제컨퍼런스'도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행사는 변화된 기업환경의 '솔루션 ESG'로 잡아 개막일인 8월 11일부터 이틀간 동시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ESG 솔루션에 대

한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린라이프 쇼(Greenlife Show)'는 특히 눈여겨볼 축제입니다. 친환경제품들과 그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친환경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제품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도 유도합니다. 2022년인 올해 그린라이프 쇼의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위한 실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마다 환경영화제는 필수가 됐고, 환경도시가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트렌드를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화제 기간 중 '부산시 환경주간 선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작가 매튜 윌버 킹(Matthew Wilburn King)의 말입니다.

"수많은 진화를 거쳐 이렇게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킨 종은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비범한 능력을 지닌 다른 종도 없다."

우리는 인간의 그 비범한 능력의 원천이 스토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겐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영화제로 풀어서 그 솔루션을 찾을 것입니다.

진재운 프로필

(사)자연의권리찾기 영화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업은 28년간 KNN 방송기자(현재 기획특집국장)이면서 환경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동하면서 그 비밀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내 안에 그 위대함이 있음을 직관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파리의 침공', '위대한 비행' 등 지금까지 제작했던 30여 편의 환경과 생명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다시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구 환경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다. 세상에 뿌려져 있는 관련 콘텐츠를 활용해 재구성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부산 'Sea & Air' 복합물류 활성화하면 세계 1위 환적항 된다"

대담: 장 지 태 지역사회연구소장(방송영상학과 교수)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

회사 행사는 물론 각종 모임에서 이 구호를 서슴없이 외치는 CEO. 초긍정적인 행복 에너지의 전도사로 불리는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태어나 자란 경남 함양을 품은 지리산의 정

기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어느 지인의 말처럼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건지 양 회장은 언제나 '초긍정 기(氣)'를 전파하는 데 열심이다.

그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가난 탓에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집안 형님이 경영하던 부산의 해운업체에 취업했다. 창업의 꿈을 간직한 채 19년 가까이 이 회사에 근무했다. 1993년 11월 마침내 은산해운항공(주)을 설립했다. 이후 그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 포위당업게 선두로 올라섰다. 2004년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선박엔진을 운송하

여 더욱 도약했다.

은산해운항공(주)은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입 해상 및 항공 물류 업무를 기본으로 내륙운송, 수출포장, 컨테이너터미널, 물류창고 업무를 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중국 톈진, 미국 애틀랜타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지사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도 전파된 초긍정과 열정의 에너지 덕분에 이 회사는 복합물류운송(포워딩) 분야 국내 1위 기업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그는 부산탁구협회 회장을 10년간 맡아 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일궜다.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유치에도 성공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막판에 행사 개최가 무산됐다.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회장, KBS 시청자 네트워크 상임대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기업 경영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긍정의 아이콘' 양 회장을 만나 그의 삶과 긍정 마인드에 대해 들었다.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5 (중앙동4가) 은산그룹 사옥

14세 소년가장 때부터 '큰 사람' 꿈꾼 '신념의 사나이'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

초긍정 에너지 전파

— 회장님께서 이른바 월급쟁이에서 불과 30년 만에 대한민국 최대의 물류기업을 일궈주셨습니다. 창업 과정과 경영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생 회장(이하 양 회장) : 가난한 집안의 2남 3녀 형제 중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선친이 일찍 별세해 14세 때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님께서 운영하던 부산 해운회사(동남아해운)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처럼 기업을 일궈 '큰 사람'이 돼 보겠다는 꿈이 있었지요. 제 몸 속에 그런 도전과 성취에 대한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도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진작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사직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1993년 18년 9개월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은행에서 빌린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종업원 5명을 데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은산해운항공(주)은 고객만족 실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출입 제품을 다루는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잘되어야 은산도 잘된다'는 일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고객사의 이익 창출과 경쟁력 향상이 곧 우리 회사의 성장·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객 모시듯 직원을 모신다'는 신념으로 직원들과 '함께'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이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

히 일하는 직원들을 잘 모시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저의 신념입니다.

— 그룹 명칭이자 주요 기업들 앞에 붙어 있는 '은산(銀山)'이 독특한데, 내포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양 회장 : 한자 '은(銀)'이 '은, 돈, 화폐'를 뜻합니다. '산(山)'은 선박을 고정시키는 닻(anchor)과 형태가 비슷하지요. 합치면 '은'이 산처럼 쌓여라, 돈이 산처럼 쌓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불교 신자인데, 노스님 한 분께서 작명해 주셨습니다.

— 회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인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는 구호가 유명하더군요. 회사 조례나 회의, 행사 때는 물론이고 회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여러 모임에서 그 구호를 외치는 걸로 소문이 짝 퍼졌더군요. 묘한 중독성이 있는 그 구호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요?

양 회장 : 열네 살 때 소년가장이 되다 보니, 제가 중심을 잡고 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면 다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부터 '신념의 사나이 양재생'으로 통했지요. 그게 창업을 한 뒤에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실제 저는 살면서 '안 된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긍정 에너지' 덕분에 일이 잘 풀리니, 이런 기운을 널리 널리 전하려고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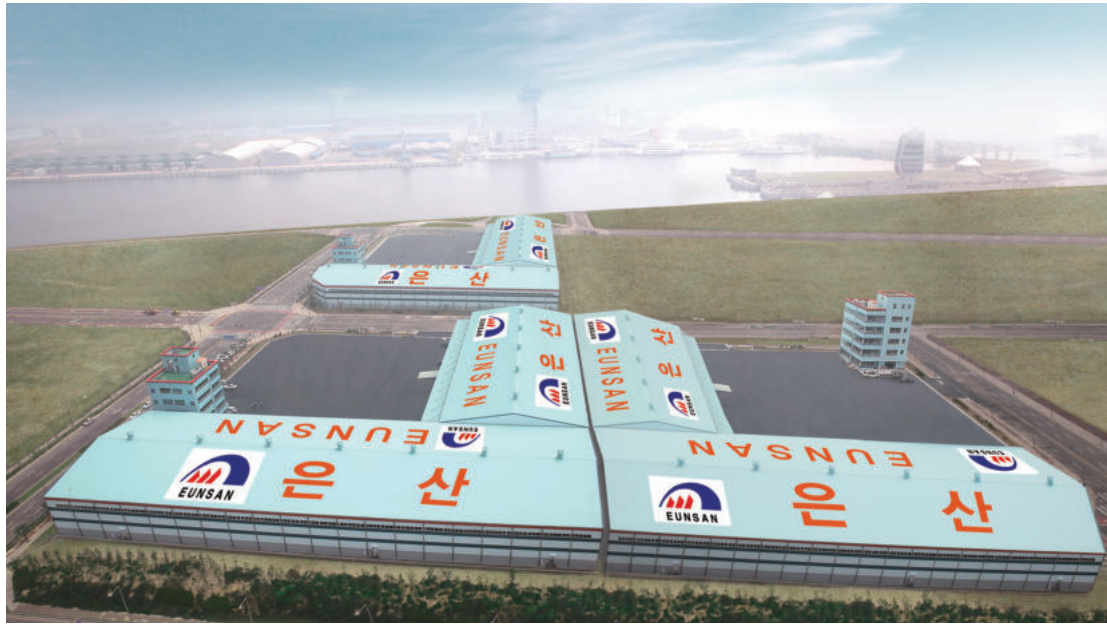


은산빌딩 1층 로비에 있는 '초긍정' 구호

인터뷰 녹음을 하던 이 회사 홍보 담당 이현우 차장은 "입사 초기에는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따라 외쳤는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하다가도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 구호를 외치면 힘이 나고 '끝까지 밀고 나가자' 하는 의지가 절로 생기곤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강충걸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회장은 양 회장의 열렬한(?) 팬이다.

"나이는 나보다 젊으시지만, 양 회장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양 회장은 지수성가했는데 골프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신다. 그런 시간을 아껴 일을 한다고 들었다. 지인들의 길흉사는 다 챙기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모임 자리마다 '된다,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인천공항 경인지점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는 구호를 외치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건지, 아무튼 그 긍정적인 마인드에 흠뻑 빠졌다. 실제 나도 아침에 거울을 보며 그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정말로 잘될 것 같은 자기 최면에 걸리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 회장님께서 열정을 바쳐 일구신

은산해운항공(주)을 비롯한 은산그룹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해 주십시오.

양 회장 : 은산그룹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은산해운항공(주)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1위 종합물류기업이 되었습니다. 은산해운항공(주),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은산수출포장(주), 동서콘솔(주), 은산산업개발(주), 은산로직스(주), 은산바이오(주), 금천게르마늄(주) 등 8개 계열사에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룹 모태기업인 은산해운항공(주)은 전 세계 178개국에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 주요 물류 거점인 미국, 중국, 베트남에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산해운항공(주)은 1993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초공정 정신, 열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고객 감동과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해운 수출입, 항공 수출입, Sea & Air, 프로젝트 및 LCL 콘솔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산해운항공(주)은 수출입 창고를 운영하는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내륙운송을 맡고 있는 은산로직스(주), 수출입화물을 포장하는 은산수출포장(주)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 다른 물류 기업과는 다르게 은산그룹에 수출입 화물을 의뢰하면 물류에 필요한 운송, 상하차, 창고, 수출입 절차 등이 첨단 은산 물류시스템에 따라 모두 은산그룹 자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ALL-IN ONE'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항 신항 화전지점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은 인천공항(경인 지점), 부산항 신항 화전지점과 녹산지점, 경남 양산지점에 10만 평 이상의 창고를 비롯해 총면적 33만㎡ 규모의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산수출포장(주)은 양산과 녹산 공장에서 수출 화물의 특수 포장을 맡고 있으며, 은산로직스(주)는 자차 보유와 정직원 운전기사 원칙을 통해 파업과 물류대란 시에도 안정적으로 고객의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등 8개 계열사 둔 중견 그룹 일귀

고객과의 철저한 신용 바탕 국내 1위 물류기업으로 성장

—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은산그룹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양 회장 :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 한진해운 파산 사태도 겪었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2년 넘게 계속되는 지구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경영학의 오랜 명언처럼 우리 은산그룹은 과감한 투자와 임직원의 합심 노력으로 이 위기를 더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전 위기들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2020년 대비 2021년에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고객과의 신용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외 굵직한 위기 때도 그랬지만, 최근의 큰 위기 속에서도 은산그룹은 고객의 소중한 화물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적기에 정확하게 운송했습니다. 부산의 향토기업이지만 이러한 고객과의 신뢰가 바탕이 됐기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물류업체로는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은산바이오(주)를 설립하고 프리미엄 생수를 생산하는 금천게르마늄(주)을 인수하신 걸로 압니다. 이런 산업에 진출한 계기는?

양 회장 : 은산바이오(주)는 2019년 5월 설립했는데 건강, 미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을 공급하는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현재는 ‘이피미 바이오프로’라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토양 오염과 유전자 조작 식품, 옥수수 사료로 키워지는 가축 등 우리 먹거리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업 포스트폴리오 측면에서 사업을 다각화한 점도 있지만, 기업은 사회와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천게르마늄(주)은 ‘세계 14대 명수’로 알려진 게르마늄 생수 ‘헬시언’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난 2021년 9월 인수한 것입니다. 물은 인체 혈액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사람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어야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지요. 제 고향이 지리산 함양인데, 배가 이플 때 약수를 마시고, 어릴 때 부스럼이 생겨도 약수를 먹으면 나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물을 공급해서 인류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전에 10년 동안 제가 ‘헬시언’ 생수를 계속 사 마셔 왔고, 인수하자마자 전 직원에게도 온 가족이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시언’은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해외에도 수출해 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 부산항은 우리나라 대표 무역항으로, 부산은 오랫동안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 CEO로서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는 데 조언을 하신다면?

양 회장 : 부산항은 세계 7위의 수출입 무역항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을 제외하면 5천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산항이 세계 7위라는 것은 사실상 세계 1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산항을 거치는 화물 55%가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화물입니다. 상하이, 싱가포르, Ningbo, 선전, 광저우, 칭다오 등이 부산항보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적화물은 싱가포르에 이어 부산항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화물 물동량 수송 방식도 선박만 이용하는 ‘Sea & Sea’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연계 활용하는 ‘Sea & Air’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구촌의 관문이자 미주노선의 관문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급성장하면서 중국-미국 간 이커머스 물동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을 키워야 합니다. ‘Sea & Air’만 활성화되면 부산항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1위의 환적항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는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여 ‘Sea & Air’ 융합운송 서비스를 키우는 것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항이 살고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는 관건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말씀이군요. 동남권신공항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양 회장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물류는 대량의 컨테이너가 물류기지로 모이고 이 화물들이 또 항공으로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Sea & Air의 복합물류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은 부산항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인천공항이 반도체 IT 등 고부가가치 화물을 엄청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세계 3대 공항(홍콩, 인천, 상하이 푸둥)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18.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제선 화물처리 기준 세계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2020년, 2021년 잇달아 세계 7위를 기록한 부산항과 24시간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만난다면, 복합

운송체계가 구축돼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지 기반을 마련하는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을 때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동서 간 고속도로가 더 시급하다” 등 정치권 반발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2월 1일, 수많은 논란 속에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고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지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부선 철도였는데, 1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부산을 5시간 내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으니, 물류 대동맥이 탄생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던 것이지요.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남권, 남부권에서 나아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게 분명합니다.



2019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시상식장에서 양재생 회장이 수상자들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세계 7위 무역항 부산, 선박 + 항공기 연계운송이 열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되면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지 도약 기대

— 회장님께서 부산 경제인들을 대표하는
부산상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양 회장 :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기업인들이 의욕이 충만하도록 해주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을 끼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에 수출기업을 많이 육성하면 서울·경기지역 입지 때보다 막대한 시간·비용이 절감됩니다. 기업 이익이 늘면 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지는데, ‘In Seoul’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대기업들이 매력 많은 부산·경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 부산탁구협회 회장을 10년 넘게 맡으셨더군요.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있었을 텐데요.

양 회장 : 부산은 우리나라 탁구의 전설인 유남규, 현정화 선수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부산탁구협회 회장직을 3대 연속 맡았는데, 2013년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와 2019년 7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를 부산에 최초로 유치한 게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유치에 성공했던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끝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납니다. 2018년 5월 1일 22시,

스웨덴 할름스타드 국제탁구연맹 총회에서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 개최지로 부산이 확정되었는데, 이 대회는 세계 130여 개국, 2,000여 명의 선수진이 모이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한국 최초로 그 대회를 유치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 차례 연기 끝에 2020년 12월 21일 최종 취소되고 말았지요. 그 대회가 개최됐더라면 국제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 회장님은 최근 TV에서 방영한 ‘미운우리새끼’
에서 부지런함으로 전국 방송을 타며 그 배경에
국선도로 건강을 다지고 계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 회장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김준호 집행위원장이 부산상의 회장단을 찾아온 영상 애기로군요. 그때도 김 위원장이 물어서 말했지만, 저는 젊



양재생 회장은 매일 오전 그름 사육인 은산빌딩 6층에 있는 은산수련원에서 90분 간 국선도 수련을 한다.

은 시절부터 습관이 들어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일찍 회사에 출근해 사육 6층 은산수련원에서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90분간 국선도 수련을 합니다. 2003년부터 국선도를 해 왔는데 4년 전에 수련원을 이 사육에 만들었지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오후 11시~12시인데, 건강 유지에 국선도 덕을 많이 보는 셈입니다. 국선도는 스트레칭도 많이 하지만 단전호흡을 중시합니다. 임직원들도 국선도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잘 이용을 안 하더군요(웃음).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 청년들 혼 담아 최선 다하면 기회 열려

— ‘헬조선,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꿈
을 잃고 있는 청년들과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
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양 회장 : 저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혼을 담아 최선을 다하면 기회는 만들어지고 길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요즘은 직업이나 산업이 다각화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성공할 여건이 더 좋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저는 지금 백지로 시작해도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의욕과 도전 정신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길은 열려 있는데 못 찾을 뿐이고, 꿈도 꿀 수 있는데 안 꿀 뿐이 아닌가 싶어요. 짧은 시간에 성공하겠다는 조급한 생각도 버려야 하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실제 양 회장은 의지의 한국인이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 와 바로 취업했던 그는 배움의 꿈을 놓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문대 야간반과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법학과와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회사를 창업해 대표가 된 뒤에도 공부를 계속해 동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재생 회장 프로필

1957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경영학 석사·박사를 거쳤다. 1993년 11월 13일 은산해운항공(주)를 창업해 현재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은산수출포장(주), 동서콘솔(주), 은산산업개발(주), 은산로직스(주), 은산바이오(주), 금천게르마늄(주) 등 8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사회활동으로 재부함양군향우회 회장, 제9~12대 부산광역시탁구협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제21~23대 상임의원, KBS부산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회장, KBS 시청자 네트워크 상임대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회장, 부산시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산지역 총동문회장, 재부경상남도 향우회장, 사단법인 부산포럼 이사장, 동부지방 검찰청 청소년 범죄피해위원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 석탑산업훈장, 2018년 대한민국 해양대상, MBC 문화대상 해양부문 등을 받았다.

꿈 없이 사는 꿈 이야기

유 의 신 전 동서대 교목실장



나는 꿈이 없이 살았다. 물론 일상에서 곤잘 잊어 버리는 개꿈은 수없이 많이 꿔지만, 기억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었다. 꿈은 꾸어지는 것인데 꿈을 가지라니? 알고 보니까 목표를 가지라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꿈으로 유명한 인물 요셉이 떠오른다. 이에 대한 설교도 들어 봤고 직접 본문으로 설교도 했다.

요셉은 야곱(이스라엘)의 11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게 된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고, 다른 하나도 이와 비슷하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이었다. 이 꿈을 꾸 요셉이 철없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게 된다. 이 꿈이 빌미가 되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때가 약관의 17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한다.

그때 요셉이 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었기에 농업과 관련된 꿈, 곡식단과 해, 달, 별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목동인 요셉의 잠재의식 가운데서나 본인이 간절히 원해서 꾸 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이 이 두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거나 성취해 내기 위하여 얹히고설킨 사연들이 만들어진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말을 봐도 분명히 요셉이 꾸 꿈은 자의적으로 꿈을 꾸었거나 잠재의식에서 떠오른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꿈이 실현되는 시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졌다. 그가 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상봉했을 때의 나이가 39세(17+감옥 13년+ 풍년 7년+ 흉년 2년)로 추산이 된다. 그러니까 꿈을 꾸 지 22년 후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창 45:7-8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22년 후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꿈을 꾸 자 요셉

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철저히 요셉에게는 가려진 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다. 그런 흔적이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서 여러 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꾸 꿈도 아니고, 꿈을 달라고 간구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었고, 이 꿈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 꿈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꿈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며 청소년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끔 청소년 집회에서 강사들이 '꿈을 가지라'고들 참을 튀기면서 열장을 하는 것을 봤다. 나는 설교자로서 꿈을 가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 번 꿈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오래전 일이었다. 모 교단의 청소년 연합집회에서 강사 섭외가 왔다. 주제가 '꿈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냥 사양하려 했으나 제대로 된 꿈에 대한 강의를 해야겠다는 도전이 생겼다. 그래서 수락했다.

준비된 강의 제목은 '꿈을 버려라'였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신기루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고, 꿈을 못 버리고 있는 동안 심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이라는 꿈으로 몰아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도외시하고 자신이 설정하고 정하는 꿈에 도취하여 인생을 표류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므로 요셉이 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꾸 꿈도 아니고, 꿈을 달라고 간구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었고, 이 꿈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 꿈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선천계서 내가 6살이던 일제강점기에 투옥되어 고문으로 얻은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이듬해에 국민(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에 한국전쟁으로 모친께서는 4남매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그런



2021년 11월 13일 오전 11시 대학교회 본당에서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3개 대학 교직원들이 모여 '2021년 동서가족 연합감사 예배'를 개최했다. 연단 위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유의신 목사



유익신 목사의 목회 활동 모습들 모음

와중에 대구에서의 비극이 벌어졌다. 한 교회당에서 성탄전야 어린이 초청 집회가 있었다. 그 당시 피난 온 아이들과 현지인 아이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교회당에 가득 차게 모였다고 하였다. 이때 교회당 중앙에 있던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야!’ 하는 소리에, 좁은 출구로 피하려다가 2층 층계에서 50여 명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3살 위의 형이 필자를 못 오게 하고 기어이 혼자 왔는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려가셨다. 줄지에 필자는 장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후로 모친은 남은 자녀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다시 부산으로 옮겨 다니며 식솔들을 위해 가장을 겸하여 무거운 싸움을 하셨다. 그래서 모친은 부산 모자원(母子院)에서, 전쟁고아를 위한 단체에서 일을 보셨다. 그나마 그 당시 모친은 전문학교(성경학교) 출신이어서 교회 일이나 단체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런 연유로 나는 전쟁고아들과 섞여서 국민학교를 다녔다. 그 당시 잊지 못할 경험을 많이 하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꿈이 없었다. 아니 가질 수가 없었다. 왜 그런지를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고아원 시설에는 길에 버려진 영아들이 많았는데 자고 깨면 새로 오기도 하지만 자고 깨면 죽는 아기들이 생기곤 하였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인 나와 동년배인 다른 친구에게 특임이 내려지곤 하였다. 종이상자와 삼을 주면서 뒷산에 가서 땅에 묻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 상자에는 영아 시신이 하나 아니면 둘 그렇게 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는 별생각 없이 임무를 수행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각함을 못 느끼고 지냈던 기억 생생하다. 고아원에서 고아들 입장을 고려

하여 친어머니를 큰어머니로 부르면서 모친과 동생과 격리되어 별도의 공간에서 살면서 혼자 겪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꿈은 사치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보다 더 처참한 경험을 한 수많은 필자의 세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소환해 내는 것은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에서이다. 부산에서 시설생활을 하며 초등학교를 마칠 즈음 모친은 손아래 동생과 나를 데리고 서울 작은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이사하게 되었다.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처지라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정제성도, 삶의 목표도, 꿈도 없이 살았다. 그저 그때그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가장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시절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기에 별 고민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내 의식 속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뚜렷한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다. 고1 때 한 번 그리고 고2 때 한 번 이렇게 시차를 두고 생긴 꿈이다. 물론 이 꿈들은 완전히 잊혀졌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기억하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는 1974년 ‘목견(牧犬)들’이라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신 꿈이다. 그 꿈은 이렇다. 야간열차에서 백발이 하얀 노인이 젊은이들과 둘러앉아서 침을 튀기며 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다. 이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목견운동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교사와 교목으로 그리고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특히 동서대

학교에서는 2002년에 고 장성만 설립자님께서 교목으로 불러 주시고 정년이 13년이나 지나도록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입증이 된다. 지난해에는 장손자보다 어린 2002년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 주신 것을 재확인하며 올해 2월에 퇴임하게 되었다.

이런 내 삶의 이야기는 내가 꿈 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분께서 그 꿈을 나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이다. 나는 비록 주신 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나의 의도나 계획이나 목표가 구체적으로 없어도, 그때그때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면서, 꿈을 주신 대로 젊은이들에게 백발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이다.

다른 꿈 하나는 수많은 대중이 뺑뺑이 모인 광장에서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며 연설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꿈도 완전히 잊혀 있었다. 그런데 1976년부터 늘 노래음악전도단들과 순회 집회를 하면서 되살아났다. 수많은 군부대, 학교, 교정 시설, 농어촌 교회들을 순회하였다. 오라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노래하며 복음을 전해 왔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한 달 30일 동안 69회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인천에 있는 금요 철야 집회로 유명한 한 교회에서 철야 집회에 초대받았다. 그 심야 집회에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통로와 강단 위에까지 꽉 차게 모여 있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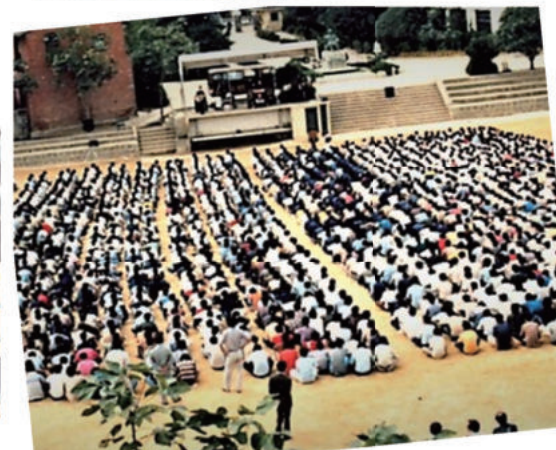
집회를 마친 토요일 새벽에 처가로 가기 위하여 경인선 열차를 기다리는데 바로 두 번째 꿈이 기억나

는 게 아닌가.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모른다. 아, 하나님은 소싯적에 꿈을 주시고 하나씩 돌씩 그 꿈을 이루어 내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 나도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는지 이해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가 가슴에 와 닿게 되었다. 그 새벽 길에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벽찬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성경 속의 꿈 이야기와 나의 꿈 이야기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고 차세대를 향하여 꿈을 가지라고 한다.

“이런 내 삶의 이야기는 내가 꿈 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분께서 그 꿈을 나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꿈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꾸는 꿈은 개꿈으로 끝나 버리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자의적이든 타의에 의한 꿈을 가지고 인위적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와 꿈을 얼마나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부추기는 꿈 이야기는 청소년을 망가트리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꿈대로 된다면 왜 성공한 사람의 수는 극히 적고 성공신화는 드문가?



유익신 목사의 목회 활동 모습들 모음

우리는 성공학이라든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젊은 이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과정에서부터 위인전을 읽으라 하고 다양한 영웅들의 성공 드라마와 이야기로 동기유발을 시켜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본보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유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각자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할 것이며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야망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은 기성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것처럼 꿈과 목표달성이 참으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루어 내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의에 젖으며 위축되고 열등감으로 휩싸이기 쉽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한때 농민들이 농촌진흥청 같은 곳에서 주관하는 특정 작물로 성공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특정 작물 생산을 권하곤 하였는데 후에 들리는 이야기는 성공 사례대로 했는데도 번번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 성공 사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성공을 과장한 탓에 실망이 더 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교계에도 있다. 한때 교회 성장학이 유행하면서 유명한 강사진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곳이 여기저기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세미나에 다녀온 목회자들의 일성은 화려한 성공 사례로 오히려 위축되고 비교 의

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이 생기고 직접 현실에서 그 원리대로 적용해 봐도 열매가 별로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또 다른 한 예는 신앙 간증이다. 신앙 간증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지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간증자의 간증이 언론과 간증집회들을 통하여 전파되면서 조금은 문제성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신앙생활 전에는 안 됐는데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니 모든 게 잘 풀리게 해 주셨다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다. 아니 성공하지 못하면 간증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안 된다는 말도 있다. 이런 유(類)의 신앙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고 나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겠다는 결의도 생기겠지만, 한편 그들과 비교하여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애잔해지는 경험을 성도들이 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학이라든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과정에서부터 위인전을 읽으라 하고 다양한 영웅들의 성공 드라마와 이야기로 동기유발을 시켜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따라서 진정한 동기유발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인 어떤 계획도, 목표도, 꿈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꿈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중

심이 흔들려서 자포자기하며 좌절하고 미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기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롬6:6-7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독특한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꿈은 첫솔과 같이 다른 이와 나누어 사용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꿈이나, 선생님의 꿈이나, 선배들의 꿈이 내 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고유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다양하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에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이란 없다. 그렇다고 더 훌륭한 꿈과 열등한 꿈도 없다. 다 각자에게 적절하고 적실한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꿈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이 안 될 수도 있다.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물론 꿈을 이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성우보육원을 찾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유익신 목사

위하여 꿈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실수를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매일 매일 주시는 삶의 기회, 생명(生命)이라는 의미대로 '살라는 명령'대로 살면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요즘 말로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라!'는 말씀만 의지하고 텐트를 가지고 야영하며 25년의 여정을 살았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그랬다. 사도들과 바울도 '가라!'는 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 세계로 나섰다. 안 가면 핍박을 가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셨다.

가라면 가면 된다. 서라면 서면 된다. 문제는 내가 안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도 앞으로 행진하는 것이 생명 즉 '살아라!'라는 뜻이다. 장벽이 생기거나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뉘인 것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만드실 때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흠이 토기장이 손에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과 같이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꿈을 이루어 내시도록 허용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사실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

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나의 힘과 나의 능(能)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내 생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므로 내 꿈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꿈을 장사지내고 하나님이 주신 꿈(vision)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면 된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허용하며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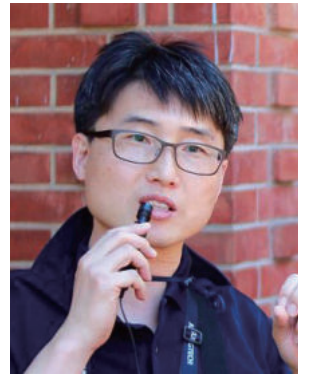
로마서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신 프로필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소장, 동서대 교목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서학원 자문위원, 21세기포럼 자문위원, 믿음찬교회 원로 목사를 맡고 있다.

임시수도 기념관 & 정부청사, 3년간 한국 현대사 심장부였다!

류 승 훈 부산광역시 학예관



피란시절의 심장부, 부산 부민동

심장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쿵쾅거린다. 펄펄 뛰는 심장은 곧 그 개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70여 년 전 부산은 우리나라의 심장부였다. 특히 한국전쟁 시절 부산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위치한 피란수도로서 역할을 했다. 모든 대동맥이 부산으로 향했고, 펄펄 뛰는 부산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다. 부산에서도 서구 부민동은 정부의 핵심 기관이 몰려 있었고, 피란수도의 중심지로 기능을 했다. 비록 3년 동안이었지만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삼권 기관이 모여 있었던 부민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심장부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장소다. 그러므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그때 그 시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민동으로 가봐야 한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에 있는 일제강점기 경남도청 사진(부산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부민동 일대는 원래 '초량(草梁)'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우리말로는 '새끼벌'이었다. 바닷가 근처에 역새와 풀들이 가득 찬 벌판이었다. 하지만 초량왜관이 생긴 이후로 동구 초량동 일대를 신(新)초량이라고 부르다가 아예 초량이란 지명이 옮겨갔다. 대신, 조선 말기부터 남항의 부민포(富民浦)에서 유래한 부민동을 사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부민동 일대는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이 자리를 잡았다. 대표적으로는 경남도청사, 경남도지사관사, 부산지방법원, 부산부립병원, 남선전기 등이다. 이런 시설들은 정부가 부산으로 피란을 내려왔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정부 기관이 속속 부산으로 피란을 내려왔다. 부민동은 피란수도의 요충지가 되었다. 이 일대에는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대법원)도 부산 부민동으로 와서 피란 생활을 시작하였다. 부민동의 경남도청은 임시정부청사, 경남도청 부속시설이었던 무덕전(武德殿)은 임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리에 있었던 옛 부산지방법원 청사에는 대법원이 입주하였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한번 떠올려보자. 이처럼 행정·입법·사법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던 때가 있었던가? 서울에서도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

한국전쟁은 톱질전쟁

한국전쟁은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치열한 싸움이었다. 남북한만이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중공군과 UN군까지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다. 흔히 한국전쟁을 '톱질전쟁'이라고 말한다. 전세가 서로 밀고 당기는 형국을 이뤘기 때문

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의 남침 이후 북한군이 과속지세로 밀려와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이 구축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뒤집혀 국군과 UN군은 압록강까지 밀고 갔으나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썰물처럼 후퇴하게 되었다.

삼시간에 밀고 당기는 톱질전쟁을 하다 보니 많은 사상자와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난민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한국전쟁은 대거 피란민을 낳았다. 한국전쟁은 한민족 간 이념전쟁이었다. 이념전쟁은 물불을 안 가리고 이념이 다른 상대를 절벽으로 밀어 넣었다.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안전지대로 가고자 하는 피란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밀고 당기는 전쟁 중에 부산은 2차례 피란수도로 선정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은 무서운 기세로 밀고 내려왔다. 서울에 있었던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최남단까지 밀려 내려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피란수도가 되었으나 10월 26일 종료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황이 나아져 서울이 수복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찬바람과 함께 대륙에서 밀려온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급속히 악화하였다. 1·4후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2차 피란수도 부산은 1951년 1월 3일부터 1953년 8월 14일까지였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외에도 학교와 기업, 각종 단체, 외국의 대사관 등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부산에 정착하였다. 정부를 따라 피란민들도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1차 피란 시 30만 명가량이, 2차 피란 시는 약 26만 명이 부산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부산에 정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란수도 당시 '임시수도정부청사'였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도떼기 사무실, 임시수도정부청사

지금도 부민동에 가보면 피란수도 부산의 심장부였던 흔적이 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정문 안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멋진 건물은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의 이력은 꽤 복잡하다. 1925년 '경남도청'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피란 시절 '임시수도정부청사'로 변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환도가 된 이후 다시 '경남도청'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의 청사가 되었다. 2001년 법원과 검찰청이 연제구로 이전하면서 동아대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 건물은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등록문화재 이름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이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피란수도 시절의 역사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수도정부청사'로 명명한 것이다. 전쟁을 피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경남도청은 제일 상위 기관이었으므로 많은 중앙 부처가 이곳에 입주하

게 되었다. 전쟁 기간 이곳에서 국가정책이 기획되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국난의 큰 파도를 극복하고 헤쳐 나간 곳도 여기다. 부산으로 피란민이 몰려오면서 기왕의 국가 업무 외에도 전쟁, 피란민 업무까지 수행하느라 임시정부청사는 불철주야 쉴 틈이 없었다. 피란수도 심장부로서 임시정부청사는 1,023일 동안 24시간 가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정부 부처는 부산에서 길고 험한 피란살이가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행정부는 12부 4처, 2 위원회로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과 총무처, 법제처, 기획처, 공보처 등이 경남도청에 입주하였다. 모든 정부 부처가 경남도청에 입주할 수 없었으므로 사정에 따라 부산시청 등으로 분산되었다. 문교부, 사회부, 보건부 등은 부산시청 건물을 사용하였다. 재무부, 상공부, 농림부, 교통부, 체신부 등은 업무의 관련성을 찾아서 산하기관 청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당시 경남도청 건물 면적은 약 4,000평이었다. 경남도청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로 좁지는 않았다. 그런데

많은 부처가 경남도청에 몰리면서 사무공간이 크게 좁아져서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경상남도는 거의 1/3의 사무공간을 중앙정부 부처에 넘겨주어야 했다. 반대로, 경남도청에 입주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다. 당시 언론에서는 정부의 피란생활을 '삼 년 동안의 결방살이'라고 표현하였다. 도청이나 시청에서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근무해야 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결방살이하는 피란민들의 심정과 마찬가지로였다. 넓은 홀을 판자로 구획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도떼기시장과 다름이 없었다.

도떼기시장이 된 정부청사에서는 장관들도 한 칸 반 정도의 좁은 방을 주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차관이나 국장들에겐 별도의 방을 내준다는 것은 엄두조차 못 내는 부처들이 많았다. 당시 공무원들을 '피란 관리', 일하는 곳을 '도떼기 사무실'이라고

불렀는데, 정부의 궁색한 사정을 잘 지적인 말이다. 좁은 도떼기 사무실에서 피란 관리들은 힘들게 일을 했다. 임시정부청사에서는 경제, 행정, 외교, 국방, 원조, 피란 대책 등의 주요한 업무들이 처리되었다.

예컨대 1952년 5월, 트루먼 대통령 특사 일행과 정부 대표단이 마이어협정(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설치되고, 원조물자를 지원하는 틀이 논의되었다. 화폐 단위를 원(圓)에서 환(圓)으로 바꾸고, 100원을 1환으로 교환한다는 제2차 화폐개혁을 실시한 곳도 바로 여기였다.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였던 임시정부청사에서는 늘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알려진 국민방위군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도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부산박물관 소장)

부산 경무대, 임시수도기념관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임시수도기념관에 도착한다. 부민동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 부산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다. 외지인들을 임시수도기념관으로 안내를 하면 인상적인 건물 형태와 함께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곤 한다. 임시수도기념관에는 2동의 건물이 있다. 앞 동이 사적 546호로 지정된 '부산임시수도대통령관저'이다.

'부산임시수도대통령관저'는 붉은 벽돌과 흑색의 기와를 입힌 2층의 근대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지은 관사로서 서양풍과 일본식이 적절히 혼합한 형태이다. 응접실이나 서재는 서양식으로, 내부는 일본의 전통적 다다미방으로 꾸몄다. 좁은 현관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에 비교적 넓은 응접실이 있다. 응접실에는 한국전쟁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유엔

군 사령관을 접견하는 장면의 대형 사진 액자가 걸려 있다. 실제로 이 응접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에서 정부 관료들과 외교관, 군인들과 만나서 중요한 정치, 외교, 국방 업무를 처리했다.

오랫동안 이 건물은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었다. 경상남도 도청과 도지사 관사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1925년 경상남도청을 건립하면서 1926년 도청의 최고책임자가 머무르는 관사를 지은 것이다. 해방 이후까지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내부 시설에 변화가 생겨났다. 서양식 벽난로와 보일러 시설 등이 첨가되었고, 일본식 다다미 방에서 침대 생활을 하는 서양식 방으로 개조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환도한 이후 다시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였다.



피란수도 시절 '부산의 경무대'였던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승만 대통령 부부(국가기록원 소장)



피란 시절 역사를 담고 있는 임시수도기념관거리

피란수도 시절 이곳을 ‘부산의 경무대’라고 불렀다. 경무대(景武臺)는 지금의 청와대와 같은 대통령 관저의 이름이다. 경무대는 경복궁의 후원 터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서울의 대통령 관저를 ‘경무대’로 불리다가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청와대(靑瓦臺)’로 이름을 바꾸었다. 청와대(경무대)는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이 일하는 곳이므로 대한민국의 심장부, 수뇌부 등으로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지만 비서실과 경호실 등 매우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곳이다. 피란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란을 오면서 경무대라는 명칭도 부민동으로 남하(南下)를 하였다.

피란수도 시절 이 대통령은 ‘부산의 경무대’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특히 1952년 부산정치과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재와 응접실을 거닐면서 골몰하였을 것이다. 날카로웠던 정치적 충돌은 이승

만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가 바로 ‘발췌 개헌’이었으며 이 개헌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었다. 이외 임시수도기념관에서는 외무와 국방, 인사 분야 등에서도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에서 장관 후보자를 몰래 불러 대화를 하고 숙고하였으며,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별의 정거장이 된 부산

중장년층은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으로 시작되는 가요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테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발표된 노래로서 당시 최고의 인기가수 남인수가 불러 히트를 시켰다. 이 노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던 젊은 피란민이 환도 열차를 타고 귀향하는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테이블이 꾸러지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환도(還都)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도한 일시는 1953년 8월 15일

이지만 7월까지 상당수 부처는 이미 서울로 올라갔다. 정부의 환도에 따라 피란민들도 부산을 떠나가고 있었다. 당시 부산역에는 매 순간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환도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떠나는 피란민은 들떠 있었지만 남아있는 부산사람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백만 가까이 인구가 치솟으면서 부산의 원도심 곳곳에는 피란도시의 상처가 곳곳에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복도로 주변이다. 삼사십만의 인구를 수용하기에 적합했던 부산의 도시환경에 백만의 인구는 너무 벅찼다. 피란민은 인적이 드물었던 원도심 주변의 산으로 올라가 판잣집들을 짓고 생활했다. 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환도 이후로도 부산은 부산역전대화재, 용두산대화재, 좌천동대화재 등 매번 뜨거운 불길 속으로 휘말려야 했다.

하지만 부산은 피란 시절의 생채기를 보듬고 다시 도약했다. 전쟁 시절의 피란수도 부산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제1의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부산은 피란 시절의 성장통을 딛고 ‘거대한 용광로’로 거듭났다. 부산이라는 용광로는 남북한의 문화를 모두 흡수하여 뜨겁게 녹여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다. 그 고통과 열기를 견뎌 낸 결과로 대한민국호는 세계 속에서 순항할 수 있었다. 부산이 최고의 무역항으로 기능을 하면서 수출의 최전선에서 발로 뛰었기에 산업화 시절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부민동이 담고 있는 피란 시절의 현대사는 쉬이 잊혀질 수 없는 역사다. 한국전쟁 시 부산의 부민동은 피란민의 ‘막다른 등지’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그리하

여 부민동에 남아있는 ‘임시수도기념관’과 ‘임시수도정부청사’는 대표적 피란 유산으로 주목되는 곳이다. 이곳에 가면 피란 시절 심장부의 뜨거운 기운을 느낄 수 있고, 그때 그 피란 시절의 역사로 돌아갈 수 있다.

류승훈 프로필

역사민속학자. ‘옛 우물에서 맑고 새로운 물을 길는다(舊井新水)’라는 신념으로 우리 문화와 부산 역사를 알리는 글을 쓰고 있다. 민속학을 전공하여 한국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의 탄생』, 『부산은 넓다』, 『여행자를 위한 도시인문학, 부산』,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 『문화유산 일번지』 등 10권의 책을 썼다.

“시대의 가치를 찍어야 하는데...” 나는 오늘도 백두대간을 걷는다

김 홍 희 사진작가



루트 777을 따라 남한의 서해, 남해, 동해를 다 돌아 보았으니 이제는 피부에서 척추로 가야 할 때다. 피부라는 것이 사람의 생김생김과 혈색을 보는 것이 라면 척추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는 일쯤 될 것이다. 정신은 다음에 돌아보기로 하고 우선 척추를 둘러보자.

오래전 이야기라 지금도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 그를 마중 나온 사람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세탁소 사장이 나오면 세탁소 직원이 되고 식당 사장이 나오면 식당 종업원이 된다는 말이었다. 이건 일종의 관계의 역학이라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세탁소 직원이



사진1



사진2

상원 의원이 되고 식당 종업원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이 말이 옛말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인간관계의 역학이고 산골짜기마다 사람이 사는 것을 목도한 백두대간을 돌아보노라면, 거참!

이쪽 ‘빼알’서 나면 감자만 먹고 살아야 되고 저쪽 ‘빼알’서 나면 쌀알은 평생 죽어도 구경을 못 하게 되는 자연과의 역학 관계를 어렵듯이 이해하게 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동서구분이 되는 곳에 사는 인간들에게나 가능한 말. 중천에서 떠서 중천에 지는 동네가 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냥 거짓부렁에 불과할 뿐.

백두대간을 돌아야 한다니 백두산이 시작인데 이 건 이념의 역학이라 불가하고 금강산 밑자락부터

돌라치면 아무래도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를 시작으로 남하해야 한다. 남한 땅에서 최북단쯤으로 쳐주는 통일 전망대를 오르려면 우선 군부대의 검문검색부터 받아야 한다. 아저씨들이 어느새 동생 같았다가 이제는 아들보다 어리다. 그런 이들이 검문검색을 한다.

세월은 그대로인데 의식 있는 인간들에게만 시간이 흘러간다. 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니 현상을 시간 차로 기억하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능력이기도 하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통일 전망대를 오르면서 왼쪽에 자리 잡고 북녘 땅을 하염없이 살펴보는 부처님이다. 부석사 부처님만 빼고 이 땅의 모든 부처는 남쪽을 보고 계신데 이 분은 북향이다(사진1).



사진3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인간의 고통은 자신에게 즉각적일 때 효과가 있다. 한 다리 건너면 다 남의 이야기다. 공감은 하되 고통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집에서 세운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 가톨릭, 전통 종교의 기도를 위한 모든 제단이 통일전망대에서 있다. 다 북쪽을 향해.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통의 분담 공간이거나 통일의 염원 기도장이 아닌 관광지로 그 행세를 한다(사진2). 자신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정신적 직접적인 고통이 아닌 이상 인간이라는 동물과 동물 세계의 동물은 하나 차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념의 뼈대. 기록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을 하는 중이다. 국토 어디를 돌아도 타워 크레인 없는 곳이 없다. 도시는 유기체인지라 변모하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 그

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본과 건강한 정신이 있는 새로운 도시를 원하는 것이다. 돌아보라. 그렇지 않은 모든 고대의 성도는 다 폐허가 된 것을!

그런 중에도 아날로그는 존재하며 아날로그와 미래 세계의 공존이 변화다. 이 중간 공간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속초, 사진3). 누가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가? 누가 현재를 말하는가? 당신이 사는 곳이 현재인가? 말해보라!

이것은 나의 질문이 아니다. 별들의 먼지들이 하는 질문이다. 이 작은 돌 하나가 있기 전에 그대는 무엇이었느냐고 묻는 질문이다. 질문에 답이 막힌 승려는 카페에 앉아 훌쩍 커피를 들이킨다(사진4). 아이쿠!

사람들은 일도 아닌 것이 돈도 안 되는 땀을 흘리며 한계령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왔다. 그저 하염없이 떠도는 구름을 한 번 내려다보고는 내리막길로



사진4



사진5



사진6

쏟아지듯 사라진다(사진5). 부처님들이 사라졌다. 중생들만 남기고.

자전거를 탄 부처가 사라지면 추위에 떠는 부처들이 나타나고(사진6).

사방이 자연이고 천지가 있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따로 자연을 찾고 천지를 찾고 부처를 찾는다. 그러니 나는 사진기를 메고 자연도 팔고 천지도 팔고 부처도 팔아 입에 풀칠을 하나보다. 그런들 저들은 하염없이 그대로이고.

택리지를 사진으로 해석해 보겠노라고 길을 나선지 작년에 이어 두 해째. 루트 777에 이어 올해는 백두대간. 산마다 골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다. 사람 따로 산 따로가 언제부터였던가. 사람 따로 골 따로로는 또 언제부터였던가. 알고 보면 그게 다 '인문학'이라는 변설이 생기면서부터 아니겠는가?

종과 횡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건 바로 종과 횡이 있어 가능하거늘, 종을 놓으면 횡도 없을진대 그러하니 지식을 구할 수 없다. 산중에도 지식이 있어야 연명이 가능한데 이 일을 어찌할꼬? 백두대간을 돌며 하염없이 허를 찌는 연유다.

사람들은 이유도 없고 인연도 없는 곳에 이유를 달고 인연을 쌓는다. 가보면 별것도 없고 이미 다 본 것인데도 돌아갈 때는 모두 김동리의 기왓장 한 장씩을 들고 집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 주말이 되면 또 다른 기왓장을 챙기러 나오고, 그 많던 기왓장은 다 어디로 갔을꼬?

한국 최고의 난코스라고 하는 스키장 꼭대기를 케이블카로 올라왔더니 휴게소 방탄유리에 '기대지 마시오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사진7). 세상 모든 것 중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사진7

만든 것뿐.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것에 기대겠는가? 인심도 말랐지. 다 기대고 사는 한 세상 기대지 말라니. 어찌하면 이리도 우리는 경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언젠가 중국 화산인가 어디서 케이블카를 탔다가 자그마치 한 시간 이상을 오르내리는 경험을 했다. 코앞의 사람을 찍는데 안개인지 구름인지에 가려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반복하기를 수십 번. 바람이라도 휘몰아치면 낭떠러지 아래로 마치 옷소매 날리듯 날아갈 것 같은 곳에도 기대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산 높아

구름 더욱 짙네

길은 오래 전부터

오리에

무중이니

상무주를 찾는 이어
발밑을 보라(사진8)

-김홍희 줄시

한껏 산 정상을 올라 땅굴을 파고 금을 찾아 헤맨 내리막 막장을 돌고 돌아 나오니 어느덧 주차장. 돌고 돌아봐야 다 부처님 손바닥 안. 본래 그 자리. 수고한 인간이 얻는 것은 시원한 바람에 식히는 몇 방울 땀과 겨우 자신을 위로하는 성취감. 그럼에도 산 정상을 향하는 케이블카의 손님은 끊임 줄 모른다(사진9).

택리지 백두대간을 돈 지 이제 겨우 두 달. 11월까지 지는 지리산 고개를 다 넘어야 하는데 전쟁 통에 기름값은 오르고 차는 망가졌다. 걸어서라도 가야 할 길. 내 인생의 본 것들이 후세에 영감이 되기를



사진8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 세상은 흘러가고 인생도 흘러가고 나도 흘러간다.

아……. 시대의 가치를 찍어야 하는데 시대의 가치를 찍어야 하는데……. 이런 욕심이 만 가지를 망가뜨리는 욕망의 시작이자 끝. 그럼에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니 나는 오늘도 백두대간을 걷는다.

그러게. 그대는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시누?

김홍희 프로필

2008년 일본 니콘 '세계의 사진가 20인'에 선정되었고, 개인전 30여 회 열었다. 저서로는 『사진 잘 찍는 법』(김영사), 『나는 사진이다』(다빈치),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다빈치), 『세기말 초』(051), 『몽골방랑』(위즈덤 하우스), 『청춘방랑』(지혜), 『상무주 가는 길』(불광 출판사) 등이 있다. MBC '포토 에세이 골목', KBS 1 '명작 스캔들', EBS '세계 테마 기행-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짐바브웨'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다.



사진9

봄밤의 낭독

이 미 옥 소설가



깊은 밤, 조요한 달빛에 창호지는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그린 수목의 그림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거렸다. 농선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퍼지는 풀벌레 소리가 고적한 어둠을 흔들었다. 문득 눈을 뜬 미루는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곤하게 잤는지 정신이 어느 때보다 맑았다. 분명 어떤 소리에 사로잡혀 깨어난 것이었다. 꿈이라 하기에는 뭔가 선명하게 느껴졌지만 더는 들리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져 개운한 기분이었다. 어제는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느라 바쁘게 움직인 탓에 온몸이 무겁고 빠근했는데 다행이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서 진한 청색으로 물든 밤하늘을 보았다. 한가운데 떠 있는 투명한 달을 보니 동이 트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달아난 잠을 다시 부르고 싶지 않았다. 코고는 소리가 나는 방문 앞에 서서 먼 때가 긴 신발이 놓여 있었다. 미루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나누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미루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다가 말을 꺼냈다.

“글을 배우면 콩이 나오냐 팔이 나오냐?”

아버지는 손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뭐가 나올지는 배워 봐야...”

미루의 목소리는 자꾸만 기어들어 갔다.

“땅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 괜히 마음 어지럽히는 일은 접어두고 농사일에 신경을 쓰거라.”

아버지는 밥상에서 일어났다.

미루는 왜 글이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귀가 밝고 눈썰미가 좋다고 칭찬해주던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어린 나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던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미루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다가 그대로 까무룩 잠들어버렸다.

미루는 청마루 기둥에 기대어 앉아 무심히 마당을 보았다. 차츰차츰 알아볼 수 있는 검은 풍경을 엮어가며 눈에 담았다. 담장에는 감나무 잎과 새로 심은 푸성귀에 봄기운이 퍼져 있었다.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이 미루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연분홍 꽃잎이 분분히 흩날리고 연둣빛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찻물 같은 빛깔을 사랑하는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소리를 냈다. 바람 소리인가 나뭇잎 소리인가. 생각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는 꿈이 아닌 생시였다. 지난번에 멈추는 바람에 놓쳐버

린 소리였다.

‘무슨 소리일까.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인가.’

미루는 꼼짝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 그게 주어진 제 일인 것처럼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집중했다. 자신의 마음을 붙잡은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듣고 싶었다. 미루는 귓가에 맴도는 소리에 이끌려 집을 나가 걷기 시작했다.

은은한 달빛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걸었다. 차마가 낮은 집들을 지나갔다. 익숙한 길이 낯설게 보일 정도로 앞만 보고 걸어갔다. 미루는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데려가는 것 같았다. 발길에서 오솔길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는 마음 한구석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이윽고 강변이 잘 보이는 언덕배기 오르막길로 접어들었다. 고개를 들어 언덕 위를 올라다보았다. 아담한 팔각정 누각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루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팔각정을 쳐다보며 눈을 두어 번 깜빡거렸다. 그곳에 오이밭을 일구는 아재가 앉아 밤의 적막을 가르고 있었다. 미루는 친족이 아니어도 아버지 연령대로 보이는 어른을 모두 아재라 불렀다. 오이 아재가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술대를 오른손에 끼고 왼손으로 패를 쪼으면서 줄을 튕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미루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얼떨떨했다.

몇 해 전, 소리 소문도 없이 강변 마을에 찾아온 아재를 두고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허여멀건 얼굴에 비쩍 마른 몸피와 하얗고 긴 손가락이 농사꾼과는 무관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방치된 빈집을 고쳐 살면서 숲이 우거진 나지막한 구릉에 팔각정을 짓고 그 근처에서 오이밭을 일군 지 여러 해가 지나자 영락없는 촌부가 되었다. 오이 아재의 볼품없이 비쩍 마른 팔다리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종일 꾸물거

리면서도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말수가 적어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종종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구름을 보거나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는 했다. 그런 아재의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복장이 터진다고 했다. 하지만 미루는 때때로 오이 아재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생각하는 자세를 익혀나갔다. 미루는 오이 아재의 손끝에서 울리는 현의 소리를 들었다. 거문고 가락의 선율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찬찬히 읽었다. 미루는 누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나지막하게 불렀다.

“아재요.”

그러자 거문고 소리가 일순 멈추었다. 현의 파동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

질푸른 어둠 속에서 단정한 자세로 눈감은 채 거문고를 탄주하던 정가(鄭家)는 문득 손끝을 멈추었다. 강변 마을에서 자신을 아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아이가 아재라고 불러주었을 때 메마른 땅에 물이 차오르는 듯한 감정을 잊지 못했다. 덕분에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다. 인적 없는 시각에 찾아온 아이가 걱정되는 반면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자 아이는 갓 지은 흰 쌀밥 한 공기 같은 얼굴로 오도카니 서 있었다. 뭔가 심상찮은 눈빛이었다. 정가는 아이를 겸허하게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도 저런 눈빛이었다.

그날, 해 질 무렵 낮은 산자락에서 자생하는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다. 땀이 들려주는 소리에 나른함과 고단함을 달래며 걸었다. 점점 그림자가 길어지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해거름의 불그스레한 하늘을 보며 아련한 기억 저편으로 그리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숙연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는데 새순이 눈에 들어왔다. 죽순이구나, 하고 앉아



고려시대 문신인 정서(鄭敍)가 정자를 짓고 오이발을 일구며 유배 생활을 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은 <정과정곡> 그 노래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엮어봅니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망미2동 17번지 일원 정과정 유적지]

자세히 보니 작은 꽃잎을 매달고 있었다. 죽순에 꽃이라니. 고개를 가웃거리며 다시 보고 있는데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그거 죽순 아니예요.”

다부진 목소리를 지닌 아이였다. 정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아이는 가까이 다가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대나무 마디를 닮은 잡초예요.”

정가는 아, 하고 탄식을 내뿜었다. 대나무와 비슷한 잎줄기로 자라면서 대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기생하는 잡초였다. 무심하던 정가는 잡초를 노력보다가 갑자기 어금니를 짹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가시지 않은 억울함이 불쑥 치밀어 올라왔다. 정가는 잡초를 붙잡고 힘껏 뽑아서 어디론가 던져버

렸다. 긴 숨을 내쉬는 후련함도 잠시 더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했던 맹세를 저버린 자신이 부끄러웠다. 판단하는 일은 임(王)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역모 사태로 오랏줄에 묶여 곤장을 수백 대 맞고 강변 마을로 유배령을 받았다. 하지만 임이 모함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 부른다고 약속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준 것이었다. 정가는 그 기다림의 자세로 기다림을 잊은 채 자신의 삶을 숨어내는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었다.

잡초를 뽑는 정가의 모습을 심상치 않게 보던 아이는 침묵에 귀 기울였다. 정가는 아이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고 대숲 끝자락으로 향했다. 정가의 뒤를 따라 걸던 아이가 다가오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아재… 한테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요.”

아이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좋아하는 냄새가 어떤 냄새냐?”

정가는 냄새에 대해 생각하며 물었다.

“먹 냄새요.”

낭랑한 목소리가 파고처럼 밀려오더니 정가에게 깊숙이 파고들었다.

“먹 냄새라…”

정가는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네, 흙과 술 내음이 빚어내는 먹 냄새요.”

정가는 걸음을 멈추었다. 자신에게 절실한 냄새라는 것을 깨닫게 한 아이와 마주하고 싶었다.

“참… 이상한 코로구나.”

입가에 얹은 미소가 감돌았다.

“이상한 건 코가 아니라 냄새지요. 아재의 먹 냄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굳건히 내린 대나무 뿌리가 쪽쪽 뚫어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감이라… 네 이름이 무엇이나?”

정가는 아이가 궁금해졌다.

“…미루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정가는 좋은 이름이라고 했다.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이름의 뜻을 알고부터는 아니예요.”

목소리에서 쓴맛이 묻어나왔다.

“이름의 뜻이라…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느냐?”

아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곤란한 것을 물었나 보다. 굳이 말 안 해도 된다.”

“쌀 미에 다락 루.”

정가는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이름의 뜻과 의미를 알고 나서 이상하게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글을

알고 싶는데 아버지는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매일 땀 흘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서 깨우치고 싶어요.”

정가는 잠깐 어지럽더니 손에 땀이 축축하게 배어 나왔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진하는 아이에게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여섯 해의 봄날이 지나도록 임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임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다.

*

정가와 아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쩌면 같은 지점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람에 떨어진 꽃잎의 붉게 질린 속내를 아는지 산에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어찌 여기에 온 것이냐?”

정가가 거문고를 내려놓고 물었다.

“소리가 들려서 어떤 소리인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이에요.”

아이는 거문고와 정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달빛만큼이나 귀가 참 밝구나. 그런데 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더냐. 어찌 찾을 생각을 했느냐?”

정가는 문득 미덥고 정다운 기분이 들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서당에 다니는 아이가 그랬어요. 잘 듣고 생각해야 글을 읽을 수 있다고.”

누각에 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퍼져나가자 정가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들더냐?”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에게 서운한 제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아이는 조금 울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의 얼굴을 보던 정가는 잠시 멍해졌다. 깊숙이 감추고 있던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을 달래는 글을 읽고 싶어요.”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글을 읽고 싶지 않다.”

정가는 뭔가를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는 못마땅한 듯 눈을 번뜩였다.

“무엇이 말이나?”

정가의 표정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글을 알면서도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이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그러자 정가는 글을 읽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다고 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글을 잘 아는 사람의 몫이 아닌가요? 글을 몰라서 제 마음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목젢까지 차올라 어찌지 못하는 지경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어롱져 비치고 있었다. 정가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텅 빈 허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진달래 피는 둥근 산등성이에서 고고한 새 울음소리가 밤의 적막을 깨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음, 한 번 들어보겠느냐.”

정가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는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정가는 꽃봉오리가 북쪽으로 피는 북향화를 향해 앉아서 낭독하기 시작했다.

내담을 그리와 우니다니

山 접뚝새 난 이솝소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아으

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

헛 마러신더

웃브더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불씨가 발강게 달아오르는 듯 끝 간 데 없이 펼쳐지는 감정에 가슴이 아리고 목이 메어왔다.

“괜찮느냐?”

낭독을 마친 정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음, 좋고 나쁘거나 옳고 그른 것은 어렵겠지만 뭔가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기분이 들어요.”

아이는 자기 내면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천천히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다. 정가는 연약하고 순수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말... 고맙구나.”

정가는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럼, 어찌 한 번 따라 읽어 보겠느냐.”

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장막을 걷어낸 세상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두 사람의 글 읽는 소리가 누각에 퍼져나갔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이미욱 프로필

2005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단칼」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서비스 서비스』, 『밤이 아닌 산책』이 있다. 2010년 한국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가 기금, 2013년 요산창작기금 수혜, 2018년 부산소설문학상, 2019년 현진건문학상 추천작, 2020년 부산작가상을 수상했다.

김정명 원로 조각가

“작업으로 고해성사하고 진실된 작품 통해 인류사회에 보시하고파”

대담: 강 선 학 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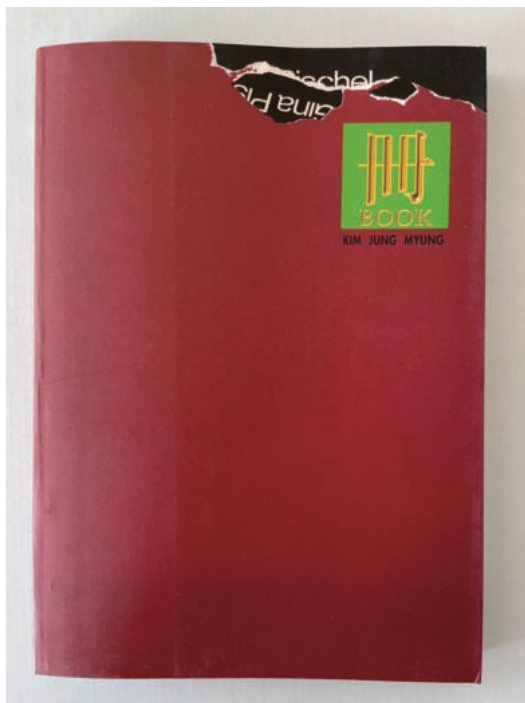


김정명 원로 조각가

한 권의 책으로 된 『책』은 조각가 김정명의 작품이다. 책은 하나의 언어체계이고 시종일관하는 관점과 내용의 논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760쪽의 독일어 미술사 책 한 권을 하나의 오브제로 보고 그 책을 이루는 도판과 언어, 논리를 형클어 새로운 책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책이라는 사물성과 책

을 이루는 언어체계를 그저 하나의 오브제로 보고 한 통 속에 넣어 마구 썬어놓은 셈이다. 책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경악할만한 대항적 상상력이다. 시대를 앞서보는 보기 힘든 해체적 상상력이라 할 것이다. 미술은 무엇보다 재료가 가진 질감이 형식과 내용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중에 조각은 이런 요건의 충족이 작품의 승패를 낼 정도이다. 지난 세월, 300여 회의 전시를 통해 김정명의 작품은 물질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언어로 꽃피는 탁월한 감각적 사물을 만나게 한다. 그의 작품 세계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하다.

2022.5.13. 오후 12시~3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암리 김스아트필드 제2 전시관에서 부산의 원로 조각가 김정명 선생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면서 조각과 회화를 넘나들며 50여 년 이어져 온 그의 작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품 "책"(1998, 부산대학교 출판부)

— 저는 작가를 이해하거나 읽는 일은 작가의 말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사람을 투과하면서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작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작가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특징들 혹은 어법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 데도로 작가나 작품을 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듣기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작가인가요?

김정명 조작가(이하 김 작가) : 작가라는 인정은 상대적이라 본다. 작가로 보이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걸 보면 판단이 설 것이다.

— 스스로 작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김 작가 : 으흐흐, 그래 말이죠. 일가를 이루었을 때 작가이지, 그전에는 작가, 작품이라는 말을 함용 쓰긴 해도 부끄러웠다. 근래 몇 년 사이 이런 말을 해도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아. 일찍이 작가나 작품이나 하는 건방을 떠는 게 우습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작가'란 예술로서 '일가'를 이뤘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인가 싶다. 젊었을 적에는 작업 발상에서 완성까지의 프로세스 자체가 예술인 걸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과정이 가당찮은 걸 느낀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술가가 될 수 있었겠나.

가령 <풀밭 위의 식사 이후(1975)>는 설치 작업인데, 가야(그땐 시골이었음)에서 예닐곱 가마니에 벤 풀을 꺾꽂 눌러 담아 리어카에 가득 싣고 광복동 전시장까지 끌고 간 자체가 퍼포먼스였고 콘크리트 건물 속에 뿌려졌을 때 그 향긋한 풀내음도 예술이었다. 그때 팜플렛 사진도 내 뒤통수(뒷모습도 나니까)를 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예술이 아닌가. <프레임과 캔버스(1978)> 제작 때에는 직접 마대천을 조이고 뒷면이 보이게끔 얇게 바탕칠을 하고 프레임을 잘라 이래저래 조합하던 일, <빨(1976)> 시리즈 때는 천에 석고를 적서 물성의 고착으로 커튼이나 캔버스를 덮어씌워 그림을 그리는 일, 수천 개의 깡통을 수거해 씻고 말리고 망치로 두들겨 우연의 형태를 만들어 그 위에 도료를 입히고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설치해 보는 과정, <스크랩 시리즈> <엘로라인> 시리즈 등 대부분 그랬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명예니 돈이니, 작가니 하는 환상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 전혀 할 수 없었다. 오로지 작업하는 일 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가의 위치는 평론가의 입장과 다르다. 평론가는 너무 내용적인 것에만 매달려 '통속적이다, 진부하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데, 작가는 도리어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붓 터치로 감정이입을 이끌어내갈 것인가,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마 이런 간극이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것 같다.

— 뒤통수 사진이라니, 당시로서는 참 재미있는 시도네요, 혹 마르셀 뒤샹의 뒤통수만 보이게 만든 사진 작품을 본 적은 없습니까?

김 작가 :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그저 뒤통수만으로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해 본 건데, 뒤샹을 본뜬 것 아니었지.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 중에 그의 전화를 받았다. 내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화집을 뒤져 확인해보니 뒤통수에 별 모양 문양을 깎아낸 뒤샹 사진 작품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그런 작품 사진을 몰랐고, 뒤샹은 작품으로 시도한 것이고, 나는 증명사진 대신 제출한 것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언이 있었다.)



빨-커튼-바람(석고,천 138x122x23cm 1976)

그 당시는 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커튼을 조각화하는 방법 등에 매료되어 <빨> 시리즈 작품들에서 움직이는 시간성을 어떻게 구체화해 볼까 하는 데 빠져 있었고, 그 작품을 판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 그런 생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개의 폐깡통을 두들겨 작업을 한 것도 그런 연유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

“무언가, 감성적인 직관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면, 글이나 악보로 옮겨볼 수 있겠지만, 나는 자유롭게, 조형으로,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시각에서 새롭게 얻어지는 슬픔, 기쁨, 충동을 보여주는 것이 작품이라 생각하지.”

— 이미 말씀 중에 다른 작가와 소재나 작업 방법에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만, 다른 작가와 다른 점이 이야기해 본다면?



창75번지 2통10반(유리 인쇄물 15x15x38cm 1975)

김 작가 : 그 당시에는 그때그때 발상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평면이든, 입체든, 행동과 궁리(스케치)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였지. 다른 작가들은 한 우물을 팠지만 나는 지하수 개발업자처럼 이곳저곳을 마구 쭈셔댔다. 그러다 온천수도 만나고 광천수도 만나고 샘물도 만나면서 조각이 되고 그림이 되고 인스타그램(설치)이 되기도 했다. 근래에는 키네틱도 하고 영상물도 하면서 장르 구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야, 내가 나에게 감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나?

— 앞의 질문과 대답에서 언급이 없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작품이란 무엇이어야 한다고 봅니까?

김 작가 : 무언가, 감성적인 직관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면, 글이나 악보로 옮겨볼 수 있겠지만, 나는

자유롭게, 조형으로,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시각에서 새롭게 얻어지는 슬픔, 기쁨, 충동을 보여주는 것이 작품이라 생각하지.

—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든, 국내 어느 곳에서 작품을 하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작가(생계형 작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김 작가 :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행동, 표현이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일상이어야 하고,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복제, 그런 행동' 즉 자기를 베끼는 것은 작품도 예술가도 아니라 생각한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예술가인 척, 작가인 척, 안 하면 된다. 뭐 장사가 나쁜가? 예술가를 빙자해서 팔아먹는 속임수가 나쁘지.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예술가로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상인은 상인이고 예술가는 예술가고 도

둑은 도둑이야(남의 것 베껴먹는 놈). 요즘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면 예술가로 인정받은 걸로 착각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걸 베껴먹기 시작하는 것 같다. 다 인정하기 어렵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남이 내 작업을 인정하면 또 다른 걸 시도하곤 했지. 심지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대형 사립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출품할 때도 그동안 관심을 받던 작업과는 달리, 생뚱맞은 신작을 내어 주최 측의 빈축을 사고 했지만. 대형 전시든 작은 전시든 아랑곳하지 않고 신작 발표하는 모습에 관심과 기대치를 가지는 관객들도 있지, 이를 보고 항상 보람을 느끼곤 했지. 전시마다 작가의 새로운 의도가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발표자의 책무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자세로 내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정신이 고양됨으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그렇지 않나? 문학이나 음악에서 같은 스토리 같은 멜로디를 쓰는 걸 봤나?

— 선생님은 시기별로 폭넓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20세기 중후반을 살아왔고, 21세기 초엽에 몸담고 있는데, 자신의 미술을 돌아볼 때, 이 시대 미술을 어떤 것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손가락-객석(상주석 2160x360cm 1988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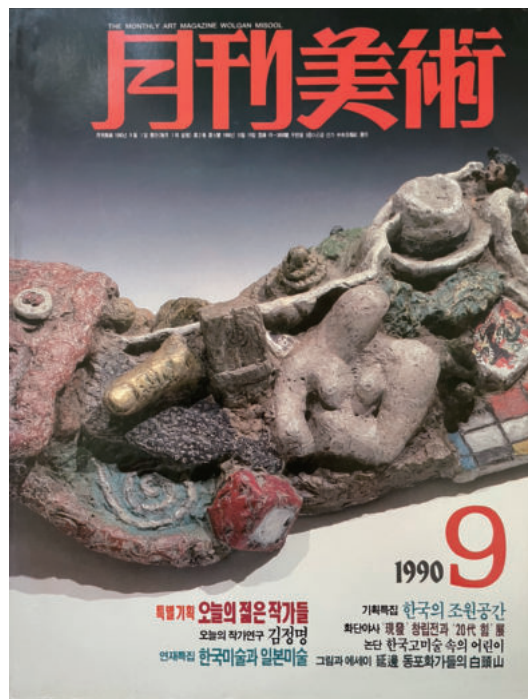
김 작가 : 옛날에는 삶이 단순했다. 우동집을 해도 30년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그래, 순식간에 바뀐다. 찌든한 게 없지. 티브이 채널처럼, 원시에서 우주과학까지 동시에 제공된다. 또한 백화점 쇼케이스처럼 디스플레이나 신상품으로 바뀌내듯 계속 변신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체질적으로 엘레강스한 면이 없지 않아. 내 작업이 상투적이거나 통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존심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지. 작업을 찬찬히 보면 생각의 전환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있어. 그래서 찾는 재미, 느끼는 재미, 보는 재미도 있지만, 작품 전체가 가지는 조형의 심미적 표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예술은 시대의 반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런 현상에서 예술가들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급속한 변화가 시대상이라면 작가도 그만큼 해내야 한다. 상투성에서 벗어나, 그런 철학 아래 조형적 심미감에 몰두해야 한다.

— 꼭 하고 싶은 말은 아니겠지만,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지역 미술이 지역성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향을 받은 한국 작가나 외국 작가가 있다면?

김 작가 : 사실 정보량이 엄청 많아진 시대라 그런지 어떤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 도리어 구미 유행

자들의 역량, 그저 지난 아방가르드,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따위, 지난 경향으로 편을 나누는 움직임에 대해 거북했다. 도리어 나는 팝적인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 부산에서도 국제시장의 깡통시장을 헤매고 다녔고, 상표 라벨의 디자인에 더 매혹되었고, 국제시장의 상품진열이 더 좋았다. 몇몇 술집이나 작가들이 자주 모이는 식당 등에서 멜랑콜리한 투덜거림만 봤다. 친목 정도였지 구체적인 반성도 문제 분석도 없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위크현대미술연구회, 1975>나 <포인트, 1976>를 결성해서 젊은 작가들의 무대를 만들고, 기존의 학연, 지연 따위를 무시하고 장르 불문, 작품으로만 모았던 것이 그런 질문에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다. 현대미술에 대한 담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지역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송혜수 선생님께서부터 머스 커닝햄이나 다다이즘에



포켓속의 작품들(부분.F,R,P에채색100x56x27cm1989)

대한 학습이 있었다. 그 덕분에 현대미술의 흐름에 주눅들지 않았다. 나를 미술에 눈뜨게 해준 송혜수 선생님, 그분은 일거수일투족이 예술가였고 삶 자체가 예술이었다. 그런 덕분인지 처음부터 지역성에 붙잡혀 있지 않았고,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가 내게는 심각하지는 않았다.

“예술은 시대의 반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런 현상에서 예술가들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급속한 변화가 시대상이라면 작가도 그만큼 해내야 한다. 상투성에서 벗어나, 그런 철학 아래 조형적 심미감에 몰두해야 한다.”

— 선생님 개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시기별로 폭넓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자신의 예술관 혹은 세계관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흘러간 것인가? 등단 당시, 첫 전시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 한국화단과 부산화단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작가 : 그 당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현대미술제’가 불이라 좀 바빴다. 주 무대는 부산과 서울이지. 간혹 그룹전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는데, 개인 초대 전시로는 <서울그룹초대>가 있었고 미국 LA에서 <4인 초대전>이 애깃거리가 됐지 싶네. 부산에서는 78년 <프레임과 캔버스>로 첫 개인전으로 열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고, 통상적인 미술이 아닌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라 무슨 대응이 없었겠나? 다들 재미있고 좋아했지. 더군다나 언론의 기사감으로 제격이었지, 그 덕에 언론에 회자 되고, 그 일로 어느 날

(1979년 가을) 국제신문사에서 신년도 연재소설 삽화 의뢰가 들어왔어. 그림쟁이들을 두고 조각쟁이에게 부탁이라니! 의외의 일이었다. 걱정도 앞섰지만, 욕심도 났다. 이것이 그림으로 수입이 생긴 최초의 일이었지. 판에는 활자를 배경으로 그림을 이곳저곳 배치하면서 통념적인 기존 삽화의 틀을 깨고 싶었는데, 막상 인쇄와 조판기술상 난관이 있어 어렵다는 거야. 때로는 소설 원고가 제때 오지 않아 신문사 내에서 급히 그리기도 하고, 원고 내용도 보지 못하고 몇 장을 한꺼번에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보위의 언론통폐합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에 따른 다른 에피소드도 있지만 생략합시다. 참 무지막지한 세월이었지.

— 지역작가의 한계 중 하나로 지역 내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인 비평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평문을 청탁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평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작가 : 작품이 모두 실험적 성격이라 시시비비가 항상 따라다녔다. 필경 등사한 <시험문제지, 1974>를 판화개념으로 전시한다든지, 유리 사각통에 플레이보이 잡지 사진을 찢어 넣어 <창75면지 2통10반, (75.2.10)>이란 제명을 붙이고 동전을 넣고 흔들어 재미를 찾아보는 관객 참여 작업이라든지, 물감 튜브를 갈라놓고 <해부도, 1975>라 명명한다든지 등등, 기존 조형어법을 벗어나, 관념적 사고틀을 깡그리 깨는 짓으로 점잖은 교수들이나 문외한들에게 빈축이나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 작가로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까지 일관성이 있거나 예견된 행로를 걸었다고

보시는지? 시기별 활동 사항 중 특이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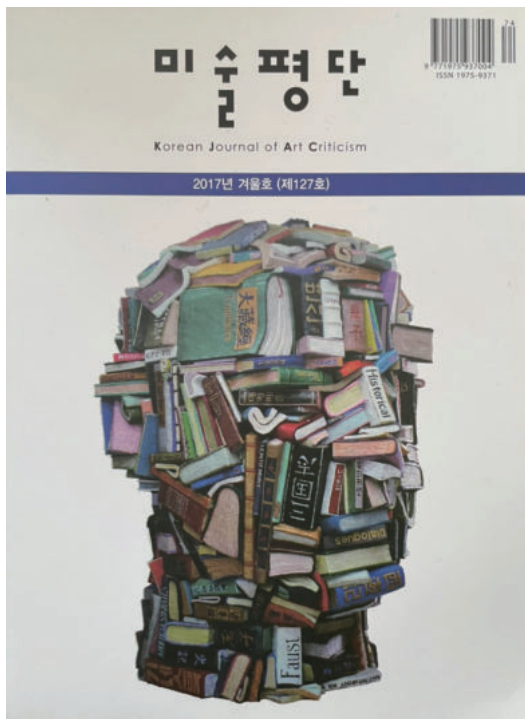
김 작가 : 전체를 두고 볼 때, 일관성 없게도 보이지만, 그 전부가 김정명이다. 다원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가? 이것이 내 삶의 통로였고 정화였으며 넓은 공간에 방대한 크고 작은 작품을 늘어놓고 한번 나의 스케일을 점검해보고 싶기도 하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점철되었기에 예견된 행로나 시기별 활동 사항을 뚜렷하게 들려주기 힘들다. 작품 제작이 단숨에 즉발적으로 되기도 하고, 한두 달 걸려서 되기도 하고, 일이 년 혹은 삼사 년 만에 완성된 작품도 있다. 작품이 대략 3천, 4천 점이 되니 그저 몽똥그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김 작가 : 이야기 중에 간간이 작품 경향을 이야기했듯이, 당분간 그런 행보가 계속될 것 같다. 한 곳에 집착하지 않으면 지혜는 내게 불쑥 나타나곤 했지. 뭘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는 강박을 털어버리니 편안히 나타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매일 매일 다른 녀석들이야. 죽은 물감 부스러기들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있는 거야. 그냥 신기해, 우주의 생명체 같아 내 스스로 매료되고 있어.

— 70 중반을 넘은 작가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하긴 싶은데, 어떤 작가이고 싶은지,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김 작가 : 작품이 나이에 따라 늙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웃음).



머리-책(F.R.P에 채색 157x166x218cm 2004).

— 반성의 지점에서 볼 때,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볼 때 흔히 가질 수 있는 아쉬운 점, 혹은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노년(?)이라 하면 부정하실 수 있지만 사실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노년이고, 노년으로서 자신의 작품과 앞 시기의 작품과는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사실 지역 사회에서 작가로서 작업 활동 시기가 짧아 노년의 작품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업성이 없다는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한평생 상품과 무관하게 지낸 것이 지역작가라면, 새삼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성, 예술성으로서 노년의 작품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 작가로서 평생에 걸친 작업이 무슨 의미

인가? 다른 작가의 노년의 작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 작가 : 다른 작가들은 일찍 정착기에 들어 노숙한 세월을 보내는데 나는 아직 철이 덜 들어 내 속을 헤매고 있으니... 생각거리나 구경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가 봐.

— 앞의 질문과 무관하지 않은데, 작가 활동이 정말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해주었다고 보시는지, 다른 길을 갔다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 같은가요?

김 작가 : 그렇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다고 다른 길을 선택해... 끔찍하지. 이 길은 구도자의 길이기도 하고 내 안의 빛을 찾아 밖으로 분출하는 해탈의 길이기도 하다. 누가 감히 찾을 수 있느냐 싶어. 잘못된 건 없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이 길을, 죽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다. 이보다 더한 자유가 있는가?



말풍선 시리즈(2001-2012)

— 그동안의 활동이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게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작가 : 의상 대사가 화엄경을 8자로 일축해서 '행행도처(行行到處) 지지발처(至至發處)'라 했다. '걸어도 걸어도 그 자리, 가도 가도 그 자리', 그런 행보를 통해 남들보다 맑은 영혼을 얻은 걸로 믿는데, 육신을 벗고 먼 우주로의 여행 준비지, 아무나 갈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 2015>의 내 그림처럼, 넋 빠진 인간은 갈 수 없는 곳이야. 하하하.

— 일상의 삶에 사유로서 작품 활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가로서의 독특한 사유와 삶의 형태는 여느 사람과 다른 예술과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태도와 일상적인 삶과 윤리적 기준, 통상적인 교양과 상충하거나 부딪힌 적은 없는지요?

김 작가 : '예술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마티스의 말인가? 나의 크고 작은 실책들을 작업으로 고해성사하고 진실된 작품을 통해 인류사회에 보시하려 한다.

— 허심탄회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프로필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계명대학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받고 1982~2008년까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재직하였다. 그동안 쓰구바 예술학계 연구원으로 1년간 다녀오기도 했으며, 노스리지켈리포니아 주립대학 객원교수로 1년간 머무르기도 하였다. 1975년 <스크랩>시리즈를 시작으로 <빨>시리즈(1976-1978), <프레임과 캔버스>시리즈(1978-1982), <카렌다>시리즈(1981-1982), <책>시리즈(1982-2000), <손가락>시리즈(1984-1992), <공룡>시리즈(1992-1994), <혀>시리즈(1993-1997), <빠>시리즈(1996-2013), <포켓>시리즈(1997-1999), <말풍선>시리즈(1998-2013), <큰머리>시리즈(2001-2013)등 일련의 작업과 혼합재료를 사용한 설치 및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로 국내외에서 300여 회의 그룹전 초대와 스무 차례의 기획, 초대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내 마음의 장식장』, 『환골탈태』, 『머리』, 『책』, 『김정명』 다섯 권의 작품집을 내기도 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며, 부산시 가장군 기장을 동암해안길 53번지 작업실에서 칠판 작품제작으로 소일하고 있다.



강선학 프로필

부산대학교 미술교육과,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미술평론집 『한 도시의 급진성 혹은 진정성』 등 16권이 있고 13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

“현역 때보다 더 바쁘네요…
지역사회에 구심점이 절실합니다”

대담: 김 용 성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 : 김철진(동서대 종합홍보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현 BNK금융지주) 회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금융전문가이다. 첫 직장은 한국은행이었지만 27살의 나이에 부산은행으로 옮긴 뒤 무려 40년을 재직하며 말단 행원에서 지주회사의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오랜 금융맨

경력으로 이 전 회장은 부산 재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금융지주 회장에서 퇴직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지만, 이 전 회장은 현재에도 여러 직분을 맡아 현역 못지않은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당초 인터뷰 약속이 되었던 날도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서 한 차례 연기되어야 했다. 코로나19가 고개를 숙이던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를 운영하는 한 선사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어려움이 많습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장호 전 회장(이하 이 회장) :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은 사람치고는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요

즘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력운동을 하는데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골프 라운딩도 종종 하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데 문제없습니다. 술만 못할 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회장은 일흔다섯 살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안색이 좋고 거동이 활발했다. 이 회장은 3년 전 문득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큰 병이 발견되어 서울에서 대수술을 받았다. 이전에도 뇌와 갑상선 쪽에 수술을 했는데, 3년 전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한 편이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 생활로 돌아왔다. 지역사회에서는 그가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3년 전 대수술 후 기적적으로 건강 회복… 이사장·회장 직책 다수, 사회활동에 분주

— 건강을 회복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전히 바쁘게 일과를 보내고 계시다면요?

이 회장 : 동아대학교 석좌교수는 끝났습니다만,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태석 기념사업회 일이 많습니다.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기념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청록문화회 회장직도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관련 행사를 주최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후쿠오카포럼 회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제국 총장님과 함께 시작한 의미 있는 포럼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후임 찾기가 어렵네요. 일단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 공동모금회를 맡아 여러 해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요?

이 회장 : 제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5년 동안 맡아 일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차상위계층이 참 많습니다.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인데, 할 일이 많습니다. 회사 법인의 기부는 비교적 간단합니다만 개인이 자신의 돈을 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1억 이상 개인 기부자로 구성된 아너 소사이어티를 활성화한 것은 참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후에 신태정 회장(세운철강 회장)이 맡아서 더욱 활성화 하였고, 지난해부터 최금식 회장이 맡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 단위 가입자가 많이 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 여전히 활동이 활발하신데요, 원래 부산 재계의 마당발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회장 : 네, 제가 부산에서 워낙 오래 살아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산서 태어나 초·중·고와 대학교를 모두 부산에서 졸업했습니다. 출생지가 부산 서면 부전동인데,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서면서 다녔고… 특히 40년 부산은행 생활을 하면서 서울 3년, 해외 근무 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산 기업인들과 인맥이 많습니다. 부산의 어지간한 기업인들은 다 알고 있고 그들과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합니다. 부산은행 내에서도 그룹이 많은데, 임원으로 경영진에서만 15년을 근무했고 회장까지 지낸 만큼 간부들과 OB들을 포함해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사적으로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은 안 하지만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과는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정보를 나누고 후배들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 있습니다.

— 부산은행장과 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이 회장 :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이 대거 없어졌습니다. 조흥은행과 상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사라지고 동남, 대동, 한미, 평화은행 등도 없어졌습니다. 10대 지방은행도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을 제외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상하게 불가능할 정도로 다행히 부산은행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우량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면 자산 보호가 안 되었는데 부산은행은 괜찮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2001년 부산은행이 부산시금고를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사로 담당 임원이었는데, 부산시와 처음으로 시금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2006년 부산은행장이 되고 난 다음 자산규모에서 부산은행이 대구은행을 추월했습니다. 2007년도인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지요. 제가 6년간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된 건데, 결국 2011년 BS금융지주를 만들고 제가 회장이 되었지요.

BS금융지주는 지역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기록된다. BS금융지주가 설립되고 두 달 뒤 대구은행도 DGB금융지주를 설립했다. BS금융지주는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BNK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문현금융단지에 본사를 신축, 이전했다(사진). BNK금융지주는 2015년 BNK자산운용(전 GS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대형 금융지주회사로 성장했다. 2021년 자산규모는 128조 원으로 금융지주회사 중 국내 6위에 해당한다.

2001년 담당 이사로 부산시금고 유치 성사...
2011년 BS금융지주 설립, 초대 회장 맡아

— 금융지주회사가 성공을 거두었는데,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이 회장 : BS금융지주는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캐피탈과 저축은행이 주력으로 나섰습니다만, 기존 회사들을 프리미엄 주고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동안 쌓은 능력과 기술을 동원해 스스로 새로 회사를 만들었지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설립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부산은행 직원들의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투입한 결과 지주회사 산하에 캐피탈과 저축은행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공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본점 사옥(문현금융단지 내)

을 발판으로 어렵게 본사 사옥도 짓고 기장에 연수원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아쉬웠던 일도 있으셨죠?

이 회장 : 부산에서 시작해서 전국 규모를 달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후임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 있는 성장을 이룩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해외 진출도 참 열심히 했습



부산 기업인들과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한 이장호 전 회장



부산은행 중국 청다오사무소 개소식(2012.12)

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진출했지요(지금은 캄보디아는 철수하고 인도에 진출).

— 앞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시금고가 부산은행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이 회장 : 2001년 부산시금고 계약은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이 과감하게 결정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그 계약으로 인해 부산은행은 노하우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은행은 지역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부산시와 함께하면서 결정적인 장이 만들어진 셈이지요. 시금고가 되면서 부산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사회공헌에 눈을 돌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잘 맞아떨어진 건데요, 이후로 부산시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일들을 부산은행이 찾아서 맡게 됩니다. 부산불꽃축제 등 시 예산을 투입하기 힘든 곳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은행 직장에 사회공헌반을 신설해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지요. 지금도 부산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행사에 부산은행이 협찬으로 들어갑니다.

— 제가 기자로 입사한 1980년대 말만 해도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걸 같습니다.
처음 은행이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장 : 그래서 제가 봐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은행이 지역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전에는 은행장이 모두 외지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부산은행에서 경영자 자체 승진 첫 사례입니다. 그런 최초의 CEO지요. 제가

말기 전에는 모두 서울서 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무부, 시중은행 등지에서 고위급이나 임원을 지내던 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주말이면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을 통해 서울 가느라 부산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주말에 서울로 갈 필요가 없었지요(웃음).

—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부산은행에서 많이 기여하였지요?

이 회장 :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996년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초기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부인 정희자 여사가 영화제에 큰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역할을 찾아보았는데, 전산 분야에서 할 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주었습니다. 또 전산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영화제 측은 보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수백 대의 PC를 먼저 구입해 주고 영화제가 끝나면 회수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산장비 지원도 담당했구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희자 여사와 저에게 특별공로상을 줍니다. 지금도 영화제가 열리면 꼭 저를 초청합니다.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맙지요.

**BIFF 초기부터 부산은행 적극 지원
특별공로상 받고 매년 영화제 초청받아**

— 2022년 현재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요?

이 회장 : 부산에 상징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 해운대나 광안리 말고 갈 데가 없습니다. 김 교수님도 아는 분이 부산에 온다면

어디로 안내할 겁니까?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글썄요. 두 번째로는 부산의 문화사업이 여전히 약하다는 겁니다. 대구는 오페라다, 뮤지컬이다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은 문화예술이 많이 취약합니다. 창원만 해도 메세나협회가 활발한데 부산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 공감 많이 갑니다.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우리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이 회장 : 부산 지역사회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역대 시장들 중에 지금 부산에 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남식 전 시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도 여러 명 있었지만 정의화 전 의장 말고는 부산에 없

니다. 3선, 4선 국회의원들도 끝나고 나면 지역사회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업인들의 경우 생각은 있지만 중심세력이 없습니다. 기업인들은 안 뭉쳐 집니다.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약합니다. 기업인들의 사회기여 부분이 여전히 미약합니다. 자기들만의 리그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십시일반 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앞장설 사람이 부족합니다. 엑스포 유치활동도 그렇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나서야 하는데 부산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거 부산은 대단한 상공도시였습니다. 위대한 기업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부산 향우의 날'을 개최하는데 참 초라합니다. 산업보국의 기초가 부산인데 다 없어졌습니다. 부산시와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늘 아쉽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리셉션에서 참석한 이장호 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그 옆으로 고 강수연, 고 강신성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동호 전 BIFF 조직위원장, 신정택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후쿠오카포럼 부산 회원(왼쪽부터) 허용도(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장호, 장제국(동서대 총장)(2013.2)

정치인·기업인들 지역사회에 더 관심을 부산 현안에 앞장설 구심점 만들어야

— 전문가그룹도 역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장 :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시민단체가 부족합니다. 부산-후쿠오카포럼의 경우 장제국 총장이 열정을 가지고 주관하지 않았다면 벌써 중단되었을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태석 기념사업회도 얼마 전 음악회를 했는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나서준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회장 : 요즘은 현역보다 더 바쁘네요. 시간적으로도 쫓기며 삽니다. 부산은행은 선후배 간 관계가 지금도 참 좋습니다. 지나가다 어느 지점이든 들어가면 인사도 하고 밥도 사고 초대도 하고 좋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평상시 신정택 회장, 허남식 시장 두 분과 자주 보는데, 부산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 부산의 구심점을 찾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 프로필

1947년생. 부산상고와 동아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행정학 석사,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석사, 동아대 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외환은행을 거쳐 부산은행에 입행해 40년을 근무하였다. 부산은행에서는 국제금융부장, 서울지점장, 이사대우, 부행장을 거쳐 2006년 은행장, 2011년 BS금융지주(현 BNK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동탑산업훈장과 동명대상, 부산산업대상, 협성사회공헌상, 부산체육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한국의 100대 CEO,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 등 최고의 경영인으로 여러 차례 선정됐다. 회장 퇴직 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 ㈜엠에스페리 회장과 사단법인 이태석 기념사업회 이사장, 사단법인 청목문화회 회장, 부산-후쿠오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김용성 프로필

1988.1~2018.2 부산문화방송 기자, 보도국장, 상무이사
2018.9~현재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성공한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 업적은?



장 지 태 지역사회연구소장(방송영상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풍운아다. 지금 대한민국을 그보다 더 요동치게 하는 이가 있을까. 그가 퇴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취임 초기의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은 빠를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을 보라. 퇴임 후 국민의 사랑 속에 평탄한 삶을 살다 간 분이 몇이나 되는가. 여러 전직 대통령이 재직 때 비리로 수감됐다. 산에 오른다고 정상에 마냥 머물 수는 없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5년 뒤에는 권력의 정상에서 물러난다.

나는 언론계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여러 대통령을 직접 보았다. 부산 출신인 두 대통령을 얘기해 보자. 두 분 다 공과(功過)가 뚜렷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내가 일하던 신문에 두 번 찾아온 걸로 기억한다. 김 대통령은 ‘40대 기수론’으로 완강하던 정치 지형을 확 바꾸었다. 5공화국 독재에는 목숨 건 20여 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맞섰다. 대통령 취임 이후를 보면 ‘검은돈’에 철퇴를 가한 금융실명제 도입, 군의 쿠데타 공포를 지운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이 큰 공로다. 자유민주주의 성숙과 금융의 투명화는 그의 용단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킨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초래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큰 과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할 때 몇 번 보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 한 모임에서는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번에 대선에 나서실 겁니까?”, “내가 이인제 후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꼭 나갈 겁니다.” 그의 대선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 과정은 극적이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도 당했다. 퇴임 후엔 ‘권력 비리’로 수사받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기업 지방 이전,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한 주 5일제 시행의 결단을 내렸다. 지지층의 반발을 부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이라크 파병도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한 용단이었다.

김영삼, 노무현 두 대통령은 기(氣)가 켜졌다. 과실도 있지만 그들 사후 국민은 공로도 되새겼다. 국민은 5년 임기 대통령의 숭한 공로와 과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굵직한 공과만 기억할 뿐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쳤을 때도 같을 것이다. 그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역대급 업적은 뭐가 될까. 언론에서는 벌써 ‘청와대 이전’, ‘5.18 갈등 종식’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하고 싶다. 국가 안보와 실리외교 분야도 물론 중요하다.

하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지 않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줄곧 “국민이 저를 불러내셨다”고 했다. 그런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당선인 시절 ‘정치 초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 준수를 고집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재고 요청이 있었다. 민심도 엇갈렸다. 지지율은 50%를 밑돌았다. 정치권 논란도 거셌다. ‘평화 문 정부 청사’ 공약은 어긋났다. 대신 용산 국방부에 대통령실이 들어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던 청와대는 개방됐다. 청와대는 이제 국민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그의 결단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장관 인선은 매끄럽지 못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능력’만 앞세웠다. 짧은 정치 이력 탓인지 널리 인재를 구하지 못했다. ‘서오남’(서울·50대·남자) 내각, 측근과 검찰 출신의 잇단 요직 배치는 많은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순발력은 대단했다. 여성 장관, 청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4명의 여성을 장관, 청장에 곧장 발탁했다.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여의도 정치’의 구린내 나는 ‘정치 9단’ 같은 노회함이 아니다. 참신한 파격과 국익 우선의 용단을 바라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그런 희망의 싹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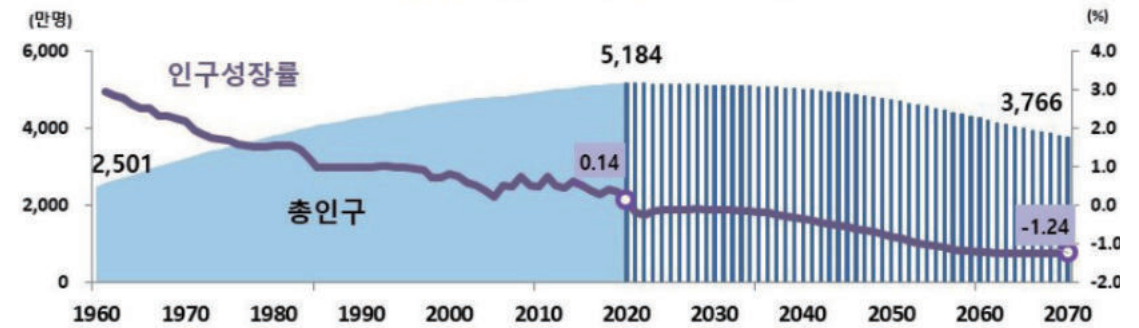
‘5.18 갈등 종식’을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과격적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통령실, 내각,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했다. 이런 행보를 5년 임기 내내 지속한다면 참으로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짓눌러 온 지역갈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확산하면 국민 갈등, 국론 분열이 사라질 터이다. 비례하여 국민 통합, 국력 상승의 효과가 커질 게 분명하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갈등의 표심은 여전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나타났다. 호남지역 여당 득표율이 높아졌다. 지역갈등 해소에 성과를 거둔다면 윤 대통령의 크나큰 업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분야가 경제다. 그는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도 태풍 권역에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물가가 급등하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도 심각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 적자도 걱정스럽다. 경제 활동의 주체는 가게,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이다. 가게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재정, 외국은 국제무역의 주체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 6.1 지방선거의 여당 압승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했다. ‘성공한 대통령’의 업적으로 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경제 살리기의 열쇠나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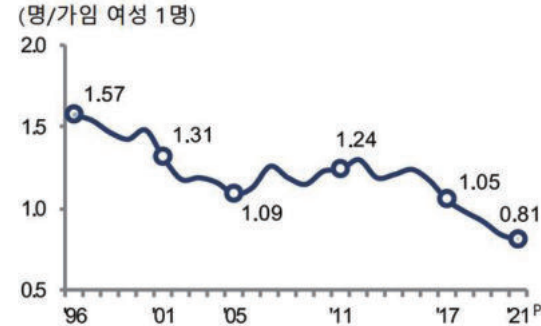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상승,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었다. 임시직이 늘어났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치솟았다.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치중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자자금 순유출액이 56조 원이나 됐다. 역대 정부 최고액이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오랜 진리를 외면했다. 그 후유증이 세계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산업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규제 혁파가 위기 탈출의 실마리”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우리 기업들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 개혁, 민간 주도 성장 지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합계출산율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에 기업들도 화답하고 있다. 이미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 투자와 40만 명 이상 채용 계획을 밝혔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국민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면 출산율 저하 현상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는 심각하다 못해 처참하다.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8개국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압도적 최저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인구가 2020년 현재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까지 줄어든 것이라는 통계청 분석이 나와 있다.

출산율과 외국인 유입 등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추정하면 3,153만 명까지 줄 수 있다고 한다.

청년들의 취업은 결혼·출산과 직결된다.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캠퍼스를 오가는 청년들의 얼굴에서 한숨을 견어내자. ‘헬조선(hell朝鮮)’, ‘N포세대’의 절망도 지워주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축복이 되게 하자. ‘일자리 공화국’의 열쇠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산뜻한 해법이다. 신규 취업을 늘릴 노동개혁,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新)동반 성장도 그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게 한다면 퇴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장지태 프로필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출발해,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을 거쳤다. 2016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재)학교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부산국제영화제후원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백산의 동지들』(1998·공저), 『서울공화국은 안 된다』(2004),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길다』(2016)가 있다.

올 상반기는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다. 지방선거가 뒤따랐고, 여러 지자체의 권력이 물갈이됐다. 고인 물은 썩기 쉽다. 국민은 변화를 선택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갈망한 결과다. 새 대통령은 청와대 밖으로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을 택했다. 외교노선도 미국 중시로 변했다. 친(親)기업 행보도 거침없다.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선장,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사정도 만만찮다. 수도권과 격차는 커지고 있다.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시도지사의 분발이 요구된다. 국회와 지방의회도 정쟁보다 국익과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地域社會(지역사회) 제3권2호를 펴낸다. 2020년 7월 창간호가 나왔는데, 어언 다섯 번째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인「지역연구 특집 1」은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산학 프로젝트'를 다뤘다. 지자체가 산업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을 살리자는 프로젝트다. 산학협력이 잘 되려면 지자체가 열정을 보여야 한다. 해외 유수의 자산·학 협력 성공 모델들이 증명한다. 지자체가 판을 열고, 키웠다. 부산시가 산학협력을 업그레이드해 지산학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니 기대가 크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 원광해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장,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성문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정도운 동서대 산학협력단장, 이영환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등 지산학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주셨다. 바쁜 와중에 육고를 보내 주신 일곱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역연구 특집 2」는 문화분권을 해부했다. 지난 4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삶의 질을 담보하는 문화분권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문화 인프라 못지않게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방안이 화급하다. 부산과 울산은 경남이 뿌리다. 지난 3월 '경부울 문화연대' 발족을 계기로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세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하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모색했다. 남송우 교수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필진께 또한 감사드린다.

언론사 월간지도 아니요, 대학에서 연 2회 발간하는 잡지에 흔쾌히 집필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내로라하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친절한 출판사 편집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늘 새겨야 할 성경 말씀이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회가 모든 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닐는지...

장지태 본지 편집인



학교 발전기금 안내

『지역사회』는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가 연간 2회 발간하는 잡지로,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서대의 인재 양성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분께는 가정이나 지정하신 곳에서 발행과 동시에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서대 발전기금 계좌 농협 301-0160-4025-91

문의처 Tel. 051-320-1500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 추모집

목회 50년 교육 40년 정치 10년

부르심에 응답한 삶의 단상

새로운 약속

장성만 지음 · 장제국 엮음

“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